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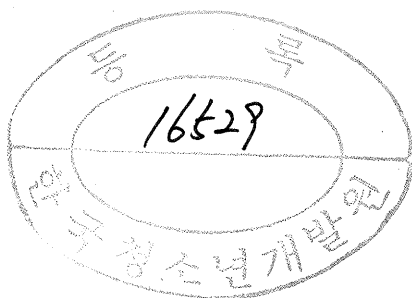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② 2003-01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연구책임자 : 이 종 원(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이 경 상(한국청소년개발원·부연구위원)

김 종 길(덕성여자대학교·조교수)



한국청소년개발원

본 보고서는 인문사회연구회 2003 년도 협동연구사업이 일환으로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5 개 국책연구기관이 협동으로 수행한 연구과제 중 하나입니다.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이며, 인문사회연구회 및 한국청소년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연구요약

2002 년 한일 월드컵과 그 이후에 전개된 일련의 사회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청소년세대의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들이 주도한 거리응원을 통하여 월드컵은 국민적 축제로 승화될 수 있었고, 이후의 촛불시위·대선과정에서 청소년·청년세대는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연구는 지난 해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사회가 목격한 청소년세대의 새로운 정체성과 그 형성요인을 실증적·이론적으로 구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월드컵대회를 통해 확인된 신세대의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조장하고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월드컵현상의 문화적 배경

2002 년 한일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행사에 머물지 않고 한국사회 문화변동의 성격과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청소년”이라는 연령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범주가 등장하면서부터, 기성문화(주류문화)와 청소년문화는 상호영향과 길항의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의 문화적 변동을 이끌어 왔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새로운 매체와 과학기술에 친숙한 청소년문화는 인터넷에 기반한 가상현실 공간을 장악하고 점차 그 영향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가고 있다. 청소년문화는 이제 과거의 부분문화, 대항문화의 성격에서 벗어나 사회의 문화적 주도권을 놓고 기성문화와 경합하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월드컵현상은 우연히 등장한 일과성의 이변은 아니며, 이와 같은 거시적인 일련의 문화변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지난 해 우리사회가 체험한 국민적 역동성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가상현실 공간에서 성장한 신공동체 문화가 월드컵을 계기로 현실사회에 발현

되고, 기성세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월드컵을 통해 문화적 자의식을 확보한 청소년세대는 이후 가상현실 공간을 매개로 직접 거리와 광장으로 뛰쳐나와 촛불시위의 확산과 새로운 정권 탄생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월드컵현상의 사회·문화적 맥락

청소년들을 거리와 광장으로 유인하여 월드컵을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맥락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먼저, 청소년들의 월드컵 참여는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권력이 조성한 “허용된 축제적 일탈의 장”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사회적 권력의 허용적 태도는 월드컵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전략적 고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붉은 악마의 성공적인 응원전략과 매스미디어를 통한 응원관련 상징의 급속한 확산·공유의 메커니즘을 들 수 있다. 지난 해 우리사회가 목격한 전체 청소년, 전 국민의 “붉은 악마화” 현상은 조직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 고안된 간결하고도 단순한 붉은 악마의 응원상징과 매스미디어의 경쟁적인 보도 열기, 월드컵에 편승한 기업의 광고전략이 맞물린 상승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업으로 인한 스트레스, 일상의 무료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신세대의 억압된 욕구를 들 수 있다. 가정과 학교의 제한된 생활공간에 갇혀 있던 청소년들은 월드컵 기간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허용된 축제와 일탈의 장”에서 자신들의 억압된 욕구와 개성을 마음껏 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청소년의 월드컵 경험과 평가

청소년들의 월드컵 참여경험과 그 평가, 월드컵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전국의 중·고교생과 24 세 이하의 대학생 2,306 명을 표본으로 하여 조사하였다.

월드컵 기간 중 청소년의 8 할 이상이 야외에서 전개된 응원에 참여하였

고, 그중에서도 길거리·광장 응원참여율이 가장 높았다(56.6%). 전체 청소년의 7 할 이상이 붉은 색 T-셔츠를 착용하였고(70.4%), 절반 이상이 태극기 등 소품을 활용하였으며(54.9%), 페이스페인팅 경험자도 3 할을 넘었다(35.5%). 응원참여율은 남녀가 유사하였지만, 응원의 방식에 있어서는 여자가 훨씬 더 적극적인 행태를 나타내었다.

월드컵대회의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전체 청소년의 9 할이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응답하였고(90.0%), 기성세대보다는 청소년 자신들이, TV·신문과 같은 일반 대중매체보다는 인터넷이 월드컵대회의 성공에 보다 많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월드컵대회의 개최경험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92.4%)과 “시민의식의 발전”(84.3%)이 높은 응답율을 나타내었다. 국제적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다는 자신감과 월드컵기간 중 확인된 시민들의 질서의식에 대한 높은 신뢰감을 엿볼 수 있다.

월드컵 경험은 청소년들의 국가 이미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터키는 이미지가 크게 호전된 반면, 이탈리아와 미국은 매우 악화되었다. 월드컵을 통해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노력과 훈련의 중요성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원칙들을 재확인하였고, 국가적 자부심과 자신감이 높아졌으며, 세계시민으로서의 국제적 관심과 유대감이 증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비참여집단과 비교하여 배경변인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일반 청소년들이 월드컵 응원의 주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의 활용도·의존도의 측면에서 응원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간의 차이는 현저하였다.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컴퓨터의 점유도와 인터넷 이용빈도, 정보매체로서의 인터넷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사회참여의 측면에서는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촛불시위 참여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드컵 응원참여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월드컵현상과 신세대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21세기 초입에 들어선 오늘의 사회는 상호모순되는 이질적 요소의 동시적 공존이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직면해 있다. 개인과 조직, 국가의 수준 모두에서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요구받는 “패러독스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변동의 큰 흐름에서 볼 때, R세대는 패러독스의 시대(the age of paradox)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전령이다. 기성세대를 “양자택일(either/or)세대”라고 한다면 신세대는 서로 충돌하는 요소와 가치관들 사이의 조화가 가능성을 타진하고 체현했다. 예컨대, 이들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서 집단적 개인주의를, 민족주의와 개방주의에서 개방적 민족주의를, 통제와 자율에서 자율적 통제를, 지방화와 세계화의 기로에서 세방화(glocalization)를 추구한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명백히 패러독스 시대에 조응하는 “패러독스세대”이다.

젊은 세대의 패러독스적 성향은 월드컵 축제 기간 중 이루어진 길거리 응원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현장의 유기적 결합으로 이중적인 가치지향을 조화시켰다. 사이버공간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면서도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된 모습에서 탈피하여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나타냈으며, 기성세대와도 하나가 되어 화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와 더불어 선진세계에 일방적으로 매몰되지 않는 탈사대주의의 성향도 보였다.

동원된 행사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 참여했으며, 월드컵을 동원된 행사가 아닌 놀이로서 즐겼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재충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거리청소와 같이 자신의 할 일을 술선수범하는 자기규율적(self-regulated) 자세도 보였다.

길거리응원과 평화적인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무질서의 질서”는 시민의식이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 행동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화된 기준에 의해 윤리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내적 자기규율로 승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복지향은 편협한 집단 귀속의식에서 보다 넓은

국민의식, 종국적으로는 보편적 세계시민(cosmopolitan) 의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였다.

포스트월드컵의 청소년 정책과제

정보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새로운 매체와 과학기술에 친숙한 청소년세대는 인터넷에 기반한 가상현실 공간을 장악하고 점차 그 영향력을 현실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가고 있다. 청소년정책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정책대상·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월드컵현상을 통해 확인된 신세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조장하고 정보화를 향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청소년 정책의 방향과 그 대표적인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정책방향	추진과제(대표사업)
월드컵 이념·성과의 계승	1) 사이버 월드컵기념관 건립
청소년 사회참여 제도화	2) 참정권 확대: 선거연령 하한조정 추진
청소년법령체계 정비	3) 청소년기본법의 위상 정립
청소년관련 인력·시설 자원의 네트워크화	4) 전국 유스트레블 네트워크 구축 5)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보호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정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6) 청소년 수련활동 데이터베이스 개발 7) 청소년지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육성체제 구축	8) 지역사회 청소년 정보봉사단 구성 9)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정책의 국제화·세계화	10)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청소년포럼 개최

차 례

연구요약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6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8
I. 월드컵현상의 문화적 배경	
1. 문화변동의 기본원리.....	22
2.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문화변동.....	32
3. 한국 청소년문화의 실태 및 특징.....	43
4. 월드컵문화와 현대 청소년문화.....	49
II. 월드컵현상의 사회·문화적 맥락	
1. 월드컵 응원의 사회구조적 여건.....	52
2. 월드컵 응원의 문화적 여건.....	58
3. 월드컵 응원참여의 내면적 동인.....	64
4. 청소년 월드컵 참여의 특성과 그 함의.....	67
III. 청소년의 월드컵경험과 평가	
1. 조사의 개요.....	82
2. 월드컵 응원참여 경험.....	85
3. 월드컵대회의 평가.....	92
4. 월드컵의 영향과 효과.....	101
5. 응원참여 청소년의 특성.....	114
IV. 청소년의 생활·의식 특성과 그 변화	
1. 조사의 개요.....	132
2. 가족의식·가족관.....	135
3. 교육현실 인식.....	145
4. 사회·국가관.....	153
5. 생활 일반·정보화.....	165

V. 월드컵현상과 신세대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1. 월드컵과 세대.....	180
2. R 세대 부상의 사회문화적 맥락.....	182
3.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산과 N 세대.....	188
4. 세대 패러다임의 전환: N 세대에서 R 세대로.....	191
5. 2002 년 신세대의 부상이 주는 교훈.....	198
6. 패러독스 시대, 패러독스 세대.....	203
결 론	
1. 요약과 논의.....	208
2. 포스트월드컵의 청소년 정책과제.....	223
참고문헌.....	239
부록: 조사결과 단순집계표.....	247

표 · 그림 차례

<표 II- 1> 월드컵 한국경기 응원장소와 매체	55
<표 II- 2> 월드컵 거리응원에 함께 참여한 사람유형.....	56
<표 II- 3> 거리응원 참여자들의 타인과의 소통방식의 분포	73
<표 II- 4> 거리응원 과정의 청소년 시민 질서의식	74
<표 III- 1> 표본의 특성.....	84
<표 III- 2> 월드컵 야외응원 참여 경험	85
<표 III- 3> 야외응원 유형별 참여빈도.....	86
<표 III- 4> 야외응원 참여경험자 비율: 성별.....	87
<표 III- 5> 야외응원 참여경험자 비율: 교급별	87
<표 III- 6> 시설형 응원참여 빈도 평균값.....	88
<표 III- 7> 광장형 응원참여 빈도 평균값.....	89
<표 III- 8> 월드컵 응원행태	90
<표 III- 9> 월드컵 응원행태: 성별.....	90
<표 III- 10> 월드컵 응원행태: 교급별	91
<표 III- 11> 한국팀의 예상 성적.....	92
<표 III- 12> 월드컵대회의 전체적인 평가.....	93
<표 III- 13> 월드컵대회의 부문별 평가.....	94
<표 III- 14> 월드컵대회의 부문평가: 회전된 요인행렬표	94
<표 III- 15> 월드컵대회 부문별 평가척도.....	95
<표 III- 16> 시민들의 참여와 태도 평균값	95
<표 III- 17> 경기의 내용과 수준 평균값.....	96
<표 III- 18> 월드컵 성공의 기여요인	97
<표 III- 19> 월드컵 성공의 기여요인: 회전된 요인행렬표	98
<표 III- 20> 월드컵 성공의 기여요인 척도	99
<표 III- 21> 사회적 관심과 참여 평균값.....	100
<표 III- 22> 공공부문의 역할과 시설 평균값.....	100
<표 III- 23> 감독 · 선수의 능력과 역할 평균값.....	100
<표 III- 24> 월드컵대회의 영향	101

<표 III- 25> 월드컵대회의 영향: 성별	102
<표 III- 26> 월드컵대회의 영향: 교급별	103
<표 III- 27> 월드컵대회와 국가 이미지 변화	104
<표 III- 28> 월드컵대회와 국가 이미지 변화: 회전된 요인행렬표	105
<표 III- 29> 국가 이미지 변화: 미국	106
<표 III- 30> 국가 이미지 변화: 이탈리아	106
<표 III- 31> 국가 이미지 변화: 터키	107
<표 III- 32> 월드컵대회와 생활·의식의 변화	108
<표 III- 33> 월드컵대회와 생활·의식 변화: 회전된 요인행렬표	110
<표 III- 34> 생활·의식 변화 척도 평균값	111
<표 III- 35> 사회적 원칙의 확인 평균값	111
<표 III- 36> 국가적 자부심/자신감 평균값	112
<표 III- 37> 국제적 관심/유대감 평균값	112
<표 III- 38> 스트레스 해소 평균값	113
<표 III- 39> 응원참여 정도별 집단분포	115
<표 III- 40> 응원참여 정도별 집단분포: 성·교급별	115
<표 III- 41> 응원참여 정도별 집단분포: 사회·경제적 특성	116
<표 III- 42> 월드컵대회의 전체적인 평가: 응원참여 정도별	118
<표 III- 43> 월드컵대회의 부문별 평가: 응원참여 정도별	118
<표 III- 44> 월드컵 성공의 기여요인: 응원참여 정도별	119
<표 III- 45> 월드컵을 통한 생활·의식 변화: 응원참여 정도별	120
<표 III- 46> 월드컵대회의 영향: 응원참여 정도별	121
<표 III- 47> 컴퓨터 유무와 점유도: 응원참여 정도별	122
<표 III- 48> 주된 정보입수 경로: 응원참여 정도별	123
<표 III- 49> 인터넷 이용빈도: 응원참여 정도별	124
<표 III- 50> 인터넷 이용시간대: 응원참여 정도별	124
<표 III- 51> “인터넷이 없다면...”: 응원참여 정도별	125
<표 III- 52> 생활영역별 만족도: 응원참여 정도별	126
<표 III- 53> 청소년세대의 자기평가	127
<표 III- 54> 청소년세대의 자기평가: 응원참여 정도별	128
<표 III- 55> 촛불시위 참여경험: 응원참여 정도별	129

<표 III- 56> 대학생의 선거투표율: 응원참여 정도별	129
<표 IV- 1> 표본의 특성: 청소년 생활·의식 조사.....	134
<표 IV- 2> 부모님 부양의사	135
<표 IV- 3> 부모님 부양의사: 성·교급별	136
<표 IV- 4> 가족의식·윤리관	137
<표 IV- 5> 가족의식·윤리관: 2000 년과의 비교	138
<표 IV- 6>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	139
<표 IV- 7>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이혼할 수 있다”	139
<표 IV- 8> “자녀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다”	140
<표 IV- 9> “부모님의 의견에는 순종해야 한다”	141
<표 IV- 10> “할아버지·할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	141
<표 IV- 11>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142
<표 IV- 12>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142
<표 IV- 13> “남자·여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	143
<표 IV- 14>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144
<표 IV- 15> 교육현실에 대한 인식.....	145
<표 IV- 16> 교육현실에 대한 인식: 2000 년과의 비교.....	146
<표 IV- 17> “과외를 안해도 학교수업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	147
<표 IV- 18> “잘사는 집 아이가 못사는 집 아이보다 공부도 더 잘한다”	148
<표 IV- 19> “공부를 잘하려면 부모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148
<표 IV- 20> “사회에서 졸업장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	149
<표 IV- 21> “우리사회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할 수 있다”	149
<표 IV- 22> 학급(학과) 친구와의 경쟁의식	150
<표 IV- 23> 학급(학과) 친구와의 경쟁의식: 성·교급별	150
<표 IV- 24> 학과공부에 대한 인식.....	151
<표 IV- 25> 학과공부에 대한 인식: 2000 년과의 비교.....	152
<표 IV- 26> 사회현실 인식.....	153
<표 IV- 27> 사회현실 인식: 2000 년과의 비교.....	154
<표 IV- 28>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155
<표 IV- 29> “잘살고 못하는 사람간의 격차가 심하다”	156
<표 IV- 30>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156

<표 IV- 31>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157
<표 IV- 32> “사람들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	157
<표 IV- 33>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158
<표 IV- 34> “집안이나 뒷배경이 중시된다”	158
<표 IV- 35>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159
<표 IV- 36>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159
<표 IV- 37>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160
<표 IV- 38> 국가 발전수준 평가.....	161
<표 IV- 39> 국가 발전수준 평가: 2000 년과의 비교	161
<표 IV- 40> 사회현실 만족도.....	162
<표 IV- 41> 사회현실 만족도: 성 · 교급별.....	163
<표 IV- 42>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163
<표 IV- 43>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성 · 교급별.....	164
<표 IV- 44> 생활영역별 만족도	165
<표 IV- 45> 생활영역별 만족도: 2000 년과의 비교.....	166
<표 IV- 46> 가정생활 만족도: 성 · 교급별.....	166
<표 IV- 47> 학교생활 만족도: 성 · 교급별.....	167
<표 IV- 48> 지역사회 만족도: 성 · 교급별.....	167
<표 IV- 49> 친구관계 만족도: 성 · 교급별.....	168
<표 IV- 50> 취미/여가생활 만족도: 성 · 교급별.....	168
<표 IV- 51> 주변사람들의 자기 이해도.....	169
<표 IV- 52> 주변사람들의 자기 이해도: 2000 년과의 비교	170
<표 IV- 53> 부친의 자기 이해도: 성 · 교급별.....	170
<표 IV- 54> 모친의 자기 이해도: 성 · 교급별.....	171
<표 IV- 55> 학교선생님의 자기 이해도: 성 · 교급별	171
<표 IV- 56> 친구들의 자기 이해도: 성 · 교급별.....	172
<표 IV- 57> 고민/걱정거리.....	173
<표 IV- 58> 고민/걱정거리: 성 · 교급별.....	173
<표 IV- 59> 고민/걱정거리 상담상대.....	174
<표 IV- 60> 컴퓨터 유무와 점유도.....	175
<표 IV- 61> 컴퓨터 유무와 점유도: 성 · 교급별.....	176

<표 IV- 62> 인터넷 이용빈도.....	176
<표 IV- 63> 인터넷 이용빈도: 성 · 교급별.....	177
<표 IV- 64> “컴퓨터/인터넷이 없다면...”.....	177
<표 IV- 65> “컴퓨터/인터넷이 없다면...”: 성 · 교급별.....	178
<표 V- 1> 패러독스 세대의 특징.....	204
[그림 I- 1] 데리다의 차이 개념.....	24
[그림 I- 2] 데리다의 차연 개념.....	24
[그림 I- 3] 사회변동의 기본구조.....	27
[그림 I- 4] 문화변동의 기본원리.....	30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하여 우리사회는 아시아권 최초의 4강 진출이라는 신화와 더불어 경기외적인 측면에서도 이른바 “월드컵현상”으로 지칭되는 독특한 사회현상을 체험하였다. 한국팀 경기가 있는 날이면 세대와 계층, 지역을 초월한 대규모의 군중이 거리와 광장에 운집하여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도 끝까지 질서를 유지하였고, 경기종료 후에는 자발적으로 거리청소에 참여하였다. 또한 군중들은 붉은 셔츠·태극기 패션 등을 통해 열정적으로 민족적 일체감을 표현했지만, 승자와 패자,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팀을 성원하는 포용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월드컵현상의 사회적 의미와 요인들에 대해서 그동안 매스컴을 중심으로 하여 적지 않은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특히 월드컵 기간 이후에 전개된 일련의 사건들, 즉 촛불시위와 대통령선거 과정을 통해 월드컵현상의 외연이 확대되면서 우리는 월드컵현상이 단순한 일과성의 이변이 아닌 한국 사회문화의 질적·구조적 변화, 또는 그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회과학적 지표일수도 있다는 인식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가 특히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월드컵과 그 이후의 촛불시위, 대선과정에서 나타난 청소년·청년세대의 역할과 그 의미이다. 이른바 “W세대”(Worldcup Generation) 또는 “R세대”(Red Generation)로 지칭되는 신세대들은 월드컵 축제와 더불어 그 이후의 연속적인 사건의 전개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해에 전개된 광의의 월드컵현상을 세대론적 관점에서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월드컵은 신세대의 능동적·자발적 사회참여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가정과 학교, PC방에 갇혀지내던 청소년들이 월드컵 참여를 계기로 국가적인 행사, 정치·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세대는 과거의 사회·문화적 마이너리티에서 벗어나 주류사회·기성문화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동의 주역

으로 부각되었다.

둘째, 월드컵은 온라인세대가 오프라인으로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오프라인(현실세계)의 쟁점들을 온라인에서 논의하고 토론하던 신세대들은 월드컵을 계기로 거리와 광장으로 진출하여 현실 사회문제에 대한 개입과 참여를 시도하였다. 월드컵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세계를 갈라놓았던 장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셋째, 월드컵은 단절되었던 세대간의 교류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월드컵 기간을 전후하여 SOFA 개정문제, 대통령선거 등 사회적 쟁점과 이슈에 대하여 동일한 의견을 공유하는, 세대를 초월한 온라인/오프라인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으며, 신세대가 이러한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넷째, 월드컵은 개방적 매니어집단의 존재와 그 등장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당초 소규모의 온라인 동호회로 시작된 붉은 악마의 성장과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관심과 취미를 공유하는 다양한 매니어집단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들은 폐쇄적인 매니어의 고정관념과는 달리 자신들의 능력과 시간을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월드컵현상을 통해 나타난 신세대의 성격과 역할은 그들을 사회적 이슈에는 무관심한 자기중심적·소비지향적 세대로만 낙인해 온 우리사회의 통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은 월드컵현상을 통해 확인된 신세대의 모습이 그동안 사회적 제약으로 발현되지 못하였던 그들의 내재적 속성이었거나, 아니면 신세대의 의식과 태도가 변화된 사회문화적 구조에 따라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월드컵현상을 통해 나타난 신세대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구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신세대·청소년문화가 우리사회의 전면으로 부각된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 월드컵경험이 청소년 생활·의식에 미친 영향과 의미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문화변동의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신세대의 새로운 정체성을 시론적인 차원에서 구명하고자 한다. 또한 월드컵현상을 통해 확인된 신세대의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조장하고 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내용과 방법

본 보고서에서 다루게 될 연구의 내용은 크게 다음의 다섯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월드컵현상이 나타나게 된 문화적 배경과 의미를 문화변동론의 관점에서 살펴볼 것이다. 산업사회의 등장과 더불어 시작된 기성문화(주류문화)와 청소년문화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월드컵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 청소년문화가 사회의 전면으로 등장하는 과정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들을 거리와 광장으로 유도하여 월드컵을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월드컵 참여를 가능하게 한 사회·문화적 여건과 청소년의 내면적 동인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들이 지난해 월드컵에서 어떤 체험을 하였고, 1 년여의 시간이 경과한 지금 월드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한 월드컵경험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병행하여 신세대의 새로운 정체성을 구명하기 위해 청소년 생활·의식의 전반적인 특성과 그 변화양상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다.

넷째,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이론적인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다.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이행하는 구조적 변동과정에서 청소년세대는 변화된 사회적 상황에 적응하여 그들만의 독특한 생활·의식의 특성을 형성해 가고 있다. 기성세대와 차별화되는 신세대의 특성은 무엇이고, 그것이 월드컵대회의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월드컵현상을 통해 확인된 신세대의 긍정적인 역할과 기능을 조장·함양할 수 있는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를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선행연구·이론에 대한 문헌연구와 청소년 대상의 설문 및 면접조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는 2002 년 한일 월드컵대회 공식 문서자료와 연구논문, 매스컴 보도자료, 인터넷 자료 등을 일차적인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고, 이밖에 청소년문화, 세대론, 정체성 관련 국내외 이론과 연구물을 검토하였다.

설문조사는 “청소년의 월드컵경험 조사”와 “청소년 생활·의식 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두 조사 모두 전국의 중·고교생과 24 세 이하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추출된 2,500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학급단위의 집단조사(중·고교생)와 조사원을 활용한 개별조사(대학생)의 방식으로 수행되었다. 자료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의 대상이 된 표본은 2,306 명이었다. 면접 조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과정에서 조사대상을 선별하여(50 명), 월드컵경험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질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졌다.

I. 월드컵현상의 문화적 배경

최원기(한국청소년개발원·연구위원)

1. 문화변동의 기본원리
2. 2002년 한일 월드컵의 문화변동
3. 한국 청소년문화의 실태 및 특징
4. 월드컵문화와 현대 청소년문화

2002년 한일 월드컵은 분명 한국사회의 문화변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바라본 지난 월드컵의 열기와 길거리 응원문화의 영향력은 가시적인 차원에서 볼 때 다소 감소적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청소년문화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거나, 대선 이후 사회 전반적으로 젊은 계층의 사회적 도약이 강화되어진 부분 등을 고려해볼 때 아직도 포스트 월드컵의 잔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와 같은 측면을 중심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을 문화변동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이를 청소년문화의 특징 및 변화양상과 연계시켜 봄으로써 그 의미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우선 문화변동을 가능하게 하는 제반 원인에 대한 이론적 관점을 정리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문화변동 현상들 및 그 원인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며, 더불어 오늘날 한국 청소년문화의 특징 및 원인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의 응원문화와 한국 청소년 문화간의 관계를 정리해 보도록 할 것이다.

1. 문화변동의 기본원리

문화변동 현상은 인류의 역사적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다. 이는 여러 문화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상징을 사용하는 인간의 특성에 기인하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산물의 결과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에 있어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의 전제를 상정하게 된다(최원기, 2001).

첫째, 인간적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적 특성인 애매모호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측면.

둘째, 지속적 변화, 즉 일련의 끊임없는 과정의 연속선 위에 놓여있다는 사실.

결국, 문화변동이 지니고 있는 이와 같은 내재적 특성에 기인해 볼 때 문

화변동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하나의 가시적 결과에 대한 연구라기보다는 일련의 움직이고 있는 불명확한 과정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향성의 문제”라고 규정지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문화라고 하는 거시적 담론 속에는 한 사회의 통시적 모습 및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의식적·무의식적 정체성의 문제가 항존하고 있다. 슈츠(A. Schutz)가 일상생활을 연구하면서 간주관성을 이야기하였던 것이나, 미드(G. H. Mead)가 상호작용을 연구하면서 자아에 대해 이야기하였던 부분, 또는 막스(K. Marx)가 경제결정론적 관점에서 종교의 허구성과 사회구성원들의 소외문제를 거론하였던 부분까지도 모두 이와 같은 문화 및 문화정체성에 대한 사회학적 담론의 장과 연계된다. 문화이론과 관계된 중요 이론적 논의를 제시함에 있어 이와 같은 기본 전제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논의 3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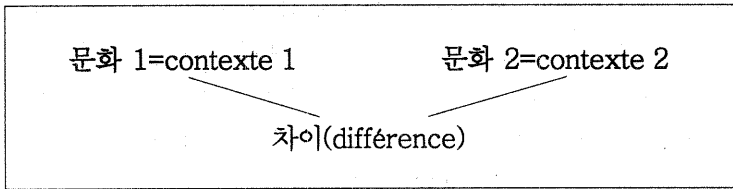
가. 데리다(J. Derrida)

문화변동의 분석에 적용될 수 있는 데리다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념들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제시될 수 있다(최원기, 1997): 배경(contexte), 텍스트(texte), 외적 텍스트(hors-texte), 차이(différence), 차연(différance), 해체(déconstruction)

1) 상이한 문화간의 관계: 차이(différence)

데리다에 있어 차이(différence)라는 개념은 “외형적 구분”이라는 의미로 간략히 규정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구분은 가시성에 기초한 명확성을 특징으로 하며 설정된 기준에 의해 상이해질 수 있다. 차이의 개념을 상이한 문화간의 관계를 예로 들어 배경(contexte) 및 텍스트(texte) 개념과의 관계를 통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은 도식화를 추론해낼 수 있다.

[그림 I - 1] 데리다의 차이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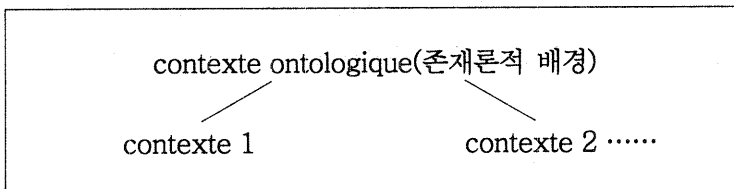
여기에서의 차이(différence)는 문화 1 과 문화 2 가 서로 상이한 배경(contexte) 1, 2 에 의해 확연하게 구분되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에서 텍스트(texte) 1 은 배경 2 에서 보면 외적 텍스트(hors-texte)로 구분되어지며, 또한 텍스트 2 는 배경 1 에서 보면 외적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데리다는 해체작업을 통해 이와 같은 명확한 구분의 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공유의 관계를 이끌어낸다. 모든 관계는 확연하게 구분되어지기 보다는 유형, 무형의 배경 공유에 의해 연계되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유형 자체가 그가 주장하는 차연(différance)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2) 해체(déconstruction) 이후의 관계: 차연(différance)

데리다의 해체개념은 현상학적 개념인 판단중지(époché)와 괄호넣기(mise en parenthèses) 개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즉, 이미 이루어져 있는 고정된 틀에 의한 기존의 사고체계 또는 인식작용을 멈추고, 모든 것을 괄호 안에 넣고 의문시함으로써 기존의 간혀진 사고틀에 의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의미의 본질을 느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의 모호한 글쓰기 작업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다.

문화간의 차이(différence)에 있어서도 데리다의 이와 같은 해체 작업을 적용할 경우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그림 I - 2] 데리다의 차연 개념



이 도식에서 알 수 있듯이 배경 1 과 배경 2 는 동시에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본질적인 배경인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론적 배경(contexte ontologique)의 하위개념으로 위치하게 된다. 이러한 본질적 배경내에서 서로 상이한 존재인 차이(différence)의 관계를 형성하였던 각각의 배경 1, 2, 3... 들과 각각의 배경들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텍스트 1, 2, 3... 들은 더 이상 차이의 관계가 아닌 존재론적 배경이라고 하는 공통적 요소에 의해 연결되어 있는 차연(différance)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연의 관계는 흔히 비가시성 또는 비합리성의 영역으로 가려져 있다. 절대적 객관성이라고 하는 과학적 합의에 의해 배타된 사회과학적 비객관성의 모델로 인식되어져 왔기 때문이다. $1+1=2$ 가 되어야 하는 자연 과학적 합리성에 의한 사고체계는 $1+1=3$ 일수도, 4 일수도 있다고 하는 차연의 관계에 객관적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는 것이다. 기존의 사고체계를 해체하고 합리적 구분에 의해 보지 못했던 본질적 의미를 찾으려 하는 데리다의 의도는 열린 다양성 속에 숨어있는 오늘날의 제현상들을 열린 다양성으로 이해하려는 새로운 노력인 것이다.

절대적 이성이 지배하던 현대사회에 있어 각 문화들은 차이(différence)에 의해 구성된 그들만의 고유한 경계를 이루고 있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로 대립되는 명확한 이데올로기의 차이에 의해 세계는 두 질서로 구분되어졌고, 그들 간의 융합은 상상할 수 없는 배타의 대상이 되었다. 인간, 일상적 욕구, 정치권력, 경제 등과 같은 보다 본질적인 배경들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라는 제한적 틀은 서로의 영역을 고수하며 차이만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대립관계 유지노력의 본질적 의미는 차이의 강조가 두 체제들의 생존을 위한 기본전략이기 때문이었다. 남녀관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들간의 갈등적 조화는 그들이 공생하기 위해 필요한 역설적 생명력이며 존재양식이고 또한 필수적 존재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는 오늘날 더 이상 공산주의는 힘있는 강자로 위치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승리를 거둔 자본주의 역시 존재의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그들의 관계가 동전의 앞면과 뒷면으로 대표되는 필연적 공생관계이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결과이다.

이러한 변화의 과정 자체가 데리다가 주장하는 차이와 차연의 관계이며, 이들 관계를 파악하고 올바르게 보기 위한 방법이 그의 해체작업이다. 차이가 강조되던 과거시대로부터 오늘날 시대성은 점차 차연을 보다 중요시하며, 해체되어진 틀들간의 다양한 공생관계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문화적 격차가 차연에 의해 극복되고 그들간의 경계가 약화되고 있는 “상이한 문화간의 결혼”의 시대인 것이다. 국경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제한되던 문화적 특수성이 공간성과 시간성을 해체시키고 있는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보편화되어지고 있다. 동일문화에 속하고 있는 여러 텍스트들간의 차이에 의해 명확히 구분되던 하위문화들간의 갈등 역시 그들이 동일 배경(contexte)이라고 하는 일련의 차연성의 공유에 의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그들간의 막연한 갈등이 해체되고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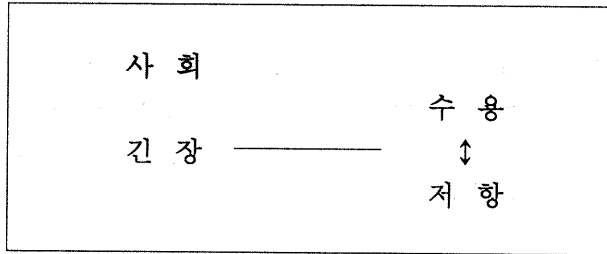
나. 마페졸리(M. Maffesoli)

문화와 관계된 마페졸리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3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Choi, W. K., 1997).

1) 사회의 역동적 생명력: 수용과 저항간의 긴장(tension)

마페졸리는 사회의 역동성을 사회의 생명력이 지속될 수 있는 중요한 기제로 위치시키고 있다. 사회는 변화해야 생존해 갈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역동적 측면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사회의 역동성을 구성하고 있는 부분을 사회에 항존하는 수용의 욕구와 저항이라고 하는 욕구간의 끊임없는 긴장으로 해석한다. 기존 사회체제에 대해 적응 또는 안정하려고 하며 수용적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강할 경우 그 사회는 변화를 거부하고 기존의 체제 및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지만, 기존체제에 적응하려하지 않고 거부하며 변화를 요구하는 저항욕구가 사회의 강한 경향성으로 작용할 경우 그 사회는 궁극적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계는 다음의 도식으로 기술될 수 있다.

[그림 I - 3] 사회변동의 기본구조



2) 지속적 순환논리(la logique de va-et-vient constant)

마페졸리의 이론에 있어서 사회변동의 흐름은 순환성을 지니는 지속성으로 해석되어 진다. 가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오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논리로서, 이 부분은 온다는 것 자체가 간다고 하는 상대적 속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상대론적 동양철학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그의 이론의 중심 축이다. 예를 들면, 바로크 시대 예술의 대변화는 사람들로 하여금 새로운 무엇인가로 향하게 하는 역동성을 제공하는 힘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특징적 경향은 오늘날 볼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경향과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고 하면서, 이런 측면에서 이들 두 시대의 유사성을 볼 수 있고, 따라서 시대를 따라 변화하고 다시 돌아오는 순환논리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그의 주장처럼 사실주의의 대두 뒤에는 낭만주의나 인상파 등과 같은 대립적 경향의 출현이 있었으며, 그 이후 다시 추상이나 구상으로의 전향 등과 같은 사회성의 변화는 이상과 같은 사회적 경향의 순환적 변화를 검증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가 기술하고 있는 오늘날의 새로운 사회성 역시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렸던 흘러간 사회성에 대한 르네상스로서 표현될 수 있다.

3)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양성(hétérogénéité)

이상에서 제시한 긴장이론과 순환논리를 바탕으로 마페졸리는 오늘날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사회성에 대해 기술한다. 그가 해석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회성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대표되며 그의 특징적 현

상으로 다양성의 출현을 예로 든다.

현대성(modernité)이 지배하던 현대사회에서는 현대적 합리성의 범위를 벗어나는 모든 현상이나 사실들에 대해 일탈 또는 기타 부정적인 레이블링(낙인찍기)을 함으로써 그 사회로부터 소외시키거나 배타하는 등 일련의 강한 제도적 틀에 의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이데올로기의 강한 지배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수용과 저항 욕구간의 필연적 긴장은 사회변동의 순환논리와 결합하여 이와 같은 합리적 “틀”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새로운 지향성을 산출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경향의 주류로서 자연과학적 합리성에 기인하고 있는 현대적 합리성에 반하는 비합리적 특징들을 담고 있는 다양한 현상들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양한 두발형태, 다양한 의복 스타일, 다양한 행위형태, 다양한 건축형태, 다양한 예술기호 등 모든 부문에 있어서의 다양성의 지배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가 주장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새로운 사회성으로의 지향이라는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개인주의도 강한 집단주의도 사회의 절대적 지향성이 되지 않고 있으며, 대신 자유로운 집단의 구성과 집단으로부터의 자유로운 탈퇴 등과 같은 개인 사생활 및 개인 의사에 기초한 새로운 집단성의 출현이 마페줄리가 기술하고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의 구체적 특징이다. 그러나 또한 그의 순환논리에 의하면 이러한 포스트모더니즘의 또 다른 사회성으로의 변화는 예측 가능한 것일 수 있다. 모든 현상의 의미는 수용과 저항간의 긴장, 그리고 가고 오는 순환논리에 의해 이미 거시적 차원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의 관점에 있어 불변 위에서 변하는 유일한 것은 단지 그의 형상적 현상들일 뿐이다.

다. 유행문화의 세대간 전이에 대한 논의: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

지금까지 살펴본 두 학자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변동의 주요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간 문화전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기본전제를 상정해 볼 수 있다(최원기,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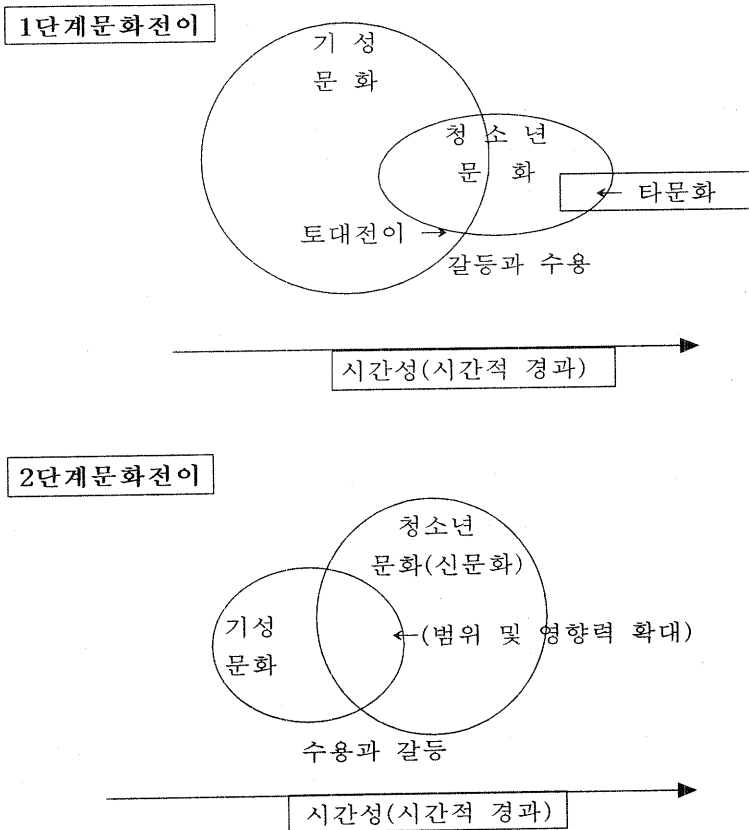
첫번째는 기성세대의 문화와 청소년세대의 문화가 한국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된 배경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각자 서로 상이한 텍스트로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청소년문화의 토대가 기성문화이기는 하지만, 이미 하나의 독립된 특성을 지니고 있는 명확한 하위문화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문화와의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기성세대와의 관계에서도 청소년문화는 공통성과 상이성을 모두 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두번째 전제는 이들 두 문화가 수용과 저항간의 긴장논리에서와 동일한 관계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두 문화 모두 서로에 대한 수용성과 저항성을 적절히 이용하는 상태에서 일정 방향으로의 변화를 경험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변증법적 관계에서와 같이 이들 두 세대는 시간적 흐름을 타고 끝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새로이 탄생하고 점차 힘을 얻어가고 있는 청소년문화, 반면 그들이 세워놓은 문화적 영향력을 점차 다른 세대에 내어주어야 하는 기성문화. 이상에서의 두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이들간의 관계를 구조화해보면 [그림 1-4]와 같은 도식으로 제시될 수 있다.

결국 이와 같은 논리구조로 볼 때, 기성문화와 청소년문화간의 관계는 마치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와도 같이 지속적인 필연적 관계 속에서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또한 그러한 과정을 통해 본질적으로는 변증법적 발전의 역사를 되풀이하는, 그와 같은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수용과 갈등, 갈등과 수용이라고 하는 이중적 태도의 존속은 마페줄리의 주장처럼 오히려 이와 같은 발전의 역사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생체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동양사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모든 현상은 음과 양의 두 축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끝없는 움직임의 틀 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무엇을 수용함이란 그것을 수용해야만 할 필요성이 존재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동일한 논리로 갈등이나 저항이라고 하는 태도 역시 그와 같은 요구가 주어질 때 발생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림 1-4] 문화변동의 기본원리



다만 오늘날의 모습에 있어 과거와 비교해볼 때 다소의 상이함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세대간의 문화적 전이나 영향력의 정도가 매우 신속해졌으며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청소년문화(또는 유행문화)의 기성문화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가 두드러진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적 범위 및 공유 정도를 확대시켜주고 있는 다양한 매체들의 등장과 이를 통한 소비문화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무엇보다 현실과 구분되는 가상공간의 일상 속에서의 영

향력 증대 등에 기인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유행문화는 이미 전 세대 층을 통해 새로운 문화적 특성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점차 단기적 유행성을 벗어나 일상성의 한 유형으로 위치를 바꿔가고 있다. 막스의 논의처럼 물질적 하부구조의 변화가 정신적 상부구조의 변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다.

2. 2002 년 한일 월드컵의 문화변동

가. 주요 현상

2002 한일 월드컵은 기대 반 우려 반으로 구성된 불안한 예측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월드컵이 종료된 이후 나타나게 될 경제적 차원에서의 문제점들로부터 과격응원단의 통제를 담당할 치안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최국으로서의 한국축구가 가져올 성적표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걱정스러운 예측들이 매스컴을 통해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개막전 이후 이와 같은 우려들은 급격히 감소되기 시작했으며, 한국 국가대표팀의 연승과 이에 따른 붉은 악마 응원집단의 체계적인 응원모습이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켜 결국 한국에서만만의 독특한 응원문화의 탄생이 나타나게 되었다. 붉은 색 티셔츠의 물결은 연령, 세대, 성별간의 차이를 무색하게 하였으며, 전국적으로 1 천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한국 대표팀의 경기를 응원하기 위하여 길거리로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스포츠 영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현상이 출현한 것이다. 이들 대표적인 현상을 몇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최원기, 2002).

1)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

2002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으로 인하여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붉은 악마 응원단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 모두가 세대,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각 가정, 학교, 일터, 길거리 등에서 순수하게 자발적인 의지로 한국팀 응원에 동참하였다. 한국팀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700 만 이상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응원하였다고 하는 추산이 이루어질 정도로 그 자발적 참여열기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자발적 응원 참여는 직장동료, 친구, 가족 등과 같은 사회의 기본적 집단 단위로 이루어졌으며, 아무런 이해관계 없이 서로 만나 월드컵 및 응원열기를 즐기고자 하는 순수한 의도의 발현이 대부분이었다.

2) 국민적 축제의 발현과 이로 인한 국민통합의 가능성 발견

축제의 본질적 의미에는 신성성, 공동체 연대성, 일상으로부터의 탈출, 삶의 긍정성 및 역동성 등이 내재되어 있다(최원기·맹영임, 2001). 이런 측면에서 볼 때 2002 한일 월드컵에서의 길거리 응원문화 현상은 이들 축제의 본질적 의미가 발현되어진 국민적 축제였다고 할 수 있으며, 더불어 이를 통해 새로운 차원에서의 국민적 통합 가능성이 모색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구성되어졌다고 말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길거리 응원을 통해 연령, 성별, 계층, 지역, 이데올로기 등 기존에 있어왔던 모든 구분과 차이의 요소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기회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는 붉은 악마 응원문화가 보편적으로 수용되어지면서 부정시되었던 붉은 색의 선호도가 높아졌으며 이로 인해 붉은 색은 곧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이데올로기적 갈등의 종식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세대간 상호 이해현상도 나타났는데, 그동안 지속되어 온 젊은 세대군과 기성세대군간의 갈등은 월드컵을 통해 서로의 행위적 특성을 이해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이다. 이를 시점으로 두 세대는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세대갈등을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월드컵은 성별 차이에서 비롯되는 갈등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도 하였는데, 즉,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축구에 대한 열기가 전 국민적 열기로 확산되어지면서 길거리 응원에서 보여졌던 여성의 참여는 남성의 참여를 뛰어 넘는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는데,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젊은 세대에서의 참여는 매우 높았고, 결국 이와 같은 여성 참여의 극대화로 인하여 여성과 남성은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던 것이다.

3)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

길거리 응원문화를 통해 볼 수 있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은 비폭력적

응원문화, 선진 질서의식, 포용성의 발현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700 만명이상이 길거리에 나와 열광적인 응원을 해도 폭력적 현상의 출현은 미미하였으며, 응원장소 청소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응원 후 귀가 또한 일반적으로 질서 있게 이루어졌다. 특히, 상대편 또는 외국인들에 대한 포용성은 응원 곳곳에서 발견되어져 외국언론에서 이와 같은 현상을 “폐쇄적 국수주의”가 아닌 “열린 국수주의”라고까지 표현하기도 하는 등 새롭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편적으로 발견할 수 있었다.

4) 신공동체 의식의 발현

전통과 현대에 있어 지칭되어지고 있는 “공동체”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집단 폐쇄성을 중심으로 한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서의 공동체성은 폐쇄성보다는 열린 개방성과 개별적 자유에 초점이 주어져 있으며, 따라서 이를 여러 학자들은 신공동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폐쇄성으로 일관하여 온 이웃간의 관계가 길거리 응원을 계기로 열린 공동체성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 다수의 현상들은 한국사회에서의 신공동체적 의식이 점차 강화되어지고 있다고 하는 측면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5) 청소년문화의 주류화

청소년문화와 기성세대문화간의 관계를 볼 때 기성세대문화는 주로 문화적 토대 및 정체성 유지와 강화 등의 부분에서 주류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청소년문화는 현재까지의 경우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한 문화 및 상품 소비에 있어 주류의 위치를 담당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길거리 응원문화를 주도한 청소년 및 젊은 세대의 문화는 그 역할의 영역이 세대와 성별의 벽을 뛰어넘는 곳으로까지 확장되어졌으며, 일정 부분 한국 문화를 이끌어 가는 주류문화로 등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6) 응원문화의 세계적 모델화

서구의 축구 응원문화와 달리 붉은 악마 응원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길거리 응원문화 형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응원문화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붉은 악마 응원단 자체의 특징인 온라인-오프라인의 조화, 독립적 재정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자발적 참여, 잘 짜여진 조직구조 등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새로운 응원문화의 세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최원기 외, 2002).

7) 애국심의 현실적 발현

“태극기를 찢어 머리와 몸을 감싸고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애국가로부터 독립시키고 …” 이와 같은 현상은 애국심 자체가 공산주의에 대항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한다고 하는 거대한 이데올로기에 간혀 형식화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의미로부터 벗어나 현실적 일상생활에 보다 가까워진 사회 변화의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도덕적이고 형식적인 애국심이 실재적 효율성과 효과를 강조하는 현실적 애국심으로 변화된 것이다.

나. 문화변동 요인과 특징

이와 같은 새로운 문화현상들은 2002 한일 월드컵을 계기로 나타나게 되었지만, 그 원인을 문화배경론적 입장에서 기존 연구들(최원기, 1996; Ulrich BECK, 1997; 김무경·최원기 외, 1998; 윤옥경·최원기 외, 2002)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다양하고도 복잡한 역사문화적 원인들을 추출해낼 수 있으며 그 특징도 다음과 같다(최원기, 2002).

1) 문화변동 요인(1992-2002)

(1) 국내 요인

① 정치체제의 변화

한국사회가 급속하게 변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2년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였다(Wonki CHOI, 1996). 민간인출신의 정치인인 김영삼씨가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1961 년 5.16 군사혁명으로 군사정부가 들어선 이래 처음으로 군사독재가 종식을 고하게 된 것이다. 이후 1998 년에도 다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에서의 정치체제는 더 이상 군사적 영역으로부터 영향 받지 않는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치체제의 특성이 변화됨으로 인해 이 시기 이후 대부분의 사회구조 또한 군사적 성격으로부터 벗어나 새롭게 재구축 되어지게 되는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예를 들면, 교사들의 노조구성이 합법화되어지고, 기타 공무원 및 교수들의 노조 또한 합법적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현재 과정이 진행중이다. 또한 그동안 한국사회를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반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점차 약화되어 학문 영역에 있어서 Marxism 이 합법적으로 읽혀지게 되었고, 기타 영역에 있어서도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이 이루어지는 등 커다란 변화가 수반되어졌다.

② 경제구조의 새로운 위기

1992 년부터 점차 자유로운 사회분위기가 익숙해져가면서 한국인의 소비지수도 급상승하게 되었다. 남북 갈등 상황과 가족 및 집단의 전체성을 중요시하는 기존의 전통적 가치관 등으로부터 억압되어 있던 개인들의 자유욕망이 사회적 자유와 다양성의 증가로 인하여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급격한 소비의 증가로 출현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1997 년 말 외환관리 부실 및 전체적인 경제구조의 허실로 인하여 한국사회는 경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고 급기야 IMF 의 관리를 받게 되었다. 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지고 실업률이 증가하였으며 일시적이거나 범죄율도 증가하였다.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단행하였고 국가적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상실하게 되었다. 그동안 보여졌던 경제활동과 소비문화의 활성화는 사회적 자유의 증가로 덮여졌던 일시적 거품이었던 것이다. 물론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IMF 체제는 3 년만에 마무리되었고 이제는 다시 기존의 국제적 신용등급을 회복하게 되었지만, 거품경제에 기인한 경제환란의 결과는 한국인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하였다. 기업들의 구조조정의 결과 호봉제가 폐지되고 연봉제가 보편화되어가면서 집단보

다는 개인의 가치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되어가고 있으며, 자본주의의 무한 경쟁이라고 하는 사회적 관계 및 물질주의의 강화 등이 한국사회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③ 새로운 정보통신 매체의 활성화 및 온라인-오프라인간의 조화

한국사회에 286 컴퓨터가 보편화되어진 시기는 1990-91 년이었다. 이후 컴퓨터보급율의 증가, PC 통신과 인터넷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1999 년에는 PC 통신 유료 가입자수가 전체 인구의 1/4 인 1000 만명을 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컴퓨터 보급정도는 99 년에 총 300 만대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핸드폰 보급을 또한 1995 년에 160 만대 였던 것이 1999 년에는 4500 만명 전체 인구의 1/2 넘는 2300 만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1 년에는 2,600 만명이 넘어 일반 유선전화 보급율을 초과하였으며, 1 가구당 월 평균 핸드폰 요금으로 10 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있다. 2002 년 현재에는 무선인터넷 가입자가 500 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와 같은 가상공간의 중요성이 급증함에 따라 가상 공간에서의 다양한 모임들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오프라인에서의 활동으로 직접 연계되어지는 등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는 새로운 문화의 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붉은 악마 응원문화의 독특한 구조를 가능하게 한 기저에는 한국사회가 그동안 추진하여온 이와 같은 정보 인프라 구축의 강화가 자리하고 있는데, PC 통신으로부터 시작한 응원 동호회가 인터넷 등 정보 인프라의 구축으로 인하여 전국적 네트워크로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전통적 집단성과 연계되어진 온라인-오프라인간의 조화 현상 역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의 자발적 길거리 응원문화를 가능하게 한 주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④ 붉은 악마 응원문화의 모델화

서구의 축구 응원문화와 달리 붉은 악마 응원문화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길거리 응원문화 형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응원문화의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붉은 악마 응원단 자체의 특징인 온라인-오프라인의 조화, 독립적 재정구조,

민주적 의사결정, 자발적 참여, 잘 짜여진 조직구조 등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으로서 새로운 응원문화의 세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붉은 악마 응원문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on-line, off-line 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공동체이다.

붉은 악마 응원문화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한국 사회에 PC 통신이 시작되면서 나타나기 시작한 다양한 형태의 동호회 유형이 붉은 악마 응원단의 특징적 공동체성을 대변하고 있으며 나아가 현실공간에서의 응원행위에 직접 연계되어지면서 한국적 사이버공동체의 긍정적 발전 가능성에 대한 표상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응원집단의 체계적 조직화가 되어 있다.

붉은 악마 응원문화의 두번째 특징은 그것이 매우 잘 계획되어지고 조직되어진 과정과 형태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구나 일본 응원집단의 경우에도 일련의 잘 짜여진 조직체계를 지니고 있지만 지역적이며 개별적 특징을 보이고 있는 이들과는 달리 붉은 악마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전국 조직이며 또한 이들의 응원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중앙 운영집단이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와 같은 응원조직의 높은 체계화 정도 등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민주적 운영방식이 채택되어 있다.

붉은 악마의 민주적 운영은 붉은 악마를 지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일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데, 과거 PC 통신으로부터 오늘날 인터넷상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의견수렴과 운영진에 대한 민주적 선출과정 등은 응원조직의 민주성을 대표할 수 있는 선진형적인 민주적 운영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구성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힘도 바로 이 부분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비폭력적 응원문화이다.

오늘날 볼 수 있는 축구 응원문화의 일반적 문제점들중 훌리건으로 대표되어지는 축구장 폭력문제는 FIFA 월드컵에서뿐만 아니라 여타 일반 축구 경기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매우 중요한 정책 및 연구주제로 위치지워져 있

지만, 이와 같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홀리건 문제는 세계 곳곳에서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붉은 악마의 경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자체적으로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폭력적 응원문화를 철저히 지양하는 등 축구 응원문화의 비폭력화를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재정의 비종속성이 특징이다.

어떠한 응원집단의 경우에도 재정의 종속성은 응원문화 자체의 배타성 또는 편향성으로 연계되어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재정의 출처가 특정 단체 또는 집단에 기인할 경우 축구경기의 승패는 곧 재정출처의 다양한 현실적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계되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붉은 악마의 경우 재정의 토대가 구성원의 자발적 참여와 자체적인 수익사업에 기인하고 있음으로 인해 응원집단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재정의 독립성이 확보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바로 이와 같은 점이 다른 응원집단과 구분되어질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응원문화의 문화운동화가 특징이다.

붉은 악마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축구에 대한 열정 자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볼 수 있는 붉은 악마 응원문화는 그것이 FIFA 월드컵과 연계되어져 한국사회 전체로 확산되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변동 과정으로부터 산출되어진 여러 문제점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가능성으로서의 문화운동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단순한 응원문화가 문화운동의 의미로 확대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⑤ 세 가지 매개적 요인의 만남

가장 직접적인 국내 요인의 하나로서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 붉은 악마 응원문화의 보급 등과 같은 세가지 매개적 요인들간의 상호작용을 들 수 있다. 특히 이들 세가지 요인들 중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 결과는 가장 중요한 변수였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부가하여 붉은 악마 응원에 의한 국민적 응원열기의 통합이 두번째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외 요인

① 동서 이념갈등의 종식

동서독 통일과 구소련의 붕괴로 대표되는 동서 이념갈등의 종식은 전반적으로 막시즘의 쇠퇴와 함께 한반도에 있어서도 남북갈등의 정도를 약화시켜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가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 있어 군사독재의 종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정 부분 해석될 수 있는데, 즉, 동서 이념갈등의 세계적 쇠퇴는 곧 한국사회에 있어서는 그 동안 한국인의 이념적 자유를 억압했던 공산주의 논쟁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문화변동이 가능하게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② 국가 및 문화적 경계의 약화

1990년대 중반 이후 전 세계는 인터넷 망에 의해 하나가 됨으로써 타문화 및 국가에 대한 자연스러운 정보의 교류가 수월해졌으며, 이는 곧 노마디즘(nomadism)으로 대표될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의 세계적 경향성과 연계되어 국가 및 문화적 경계의 약화를 가져오게 되었다(M. Maffesoli, 1997). 한국사회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현상은 보편적인 특성으로 나타나 그 동안 미국과 일본 중심의 정치, 경제, 문화적 관계가 점차 유럽, 아시아 및 기타 다양한 지역들로 확대되어져 결국 세계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이 다양해지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특히 이와 같은 변화는 문화적 영역을 중심으로 강하게 출현하기 시작했는데, 스포츠, 음악, 음식문화 등과 같은 부분에서의 교류와 관심 확대를 예로 들 수 있다.

③ 세계화 경향의 강화

1990년대 초반 동서 양대 진영간의 균형이 붕괴되어지면서 자본주의의 확대는 가속도를 타게되고 다국적 기업들이 강세를 보이는 등 극대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의 물결을 타고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럽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경향성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제시되기도 하였지만(Pierre BOURDIEU의 세계화

비판운동/ Ulrich BECK, 1997), 한국사회에서의 정치, 경제 시스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 논의를 수용하여 마치 미국화가 곧 세계화일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영어를 제 2의 공용어로 쓰자고 하는 논의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유럽에서의 비판적 논의에 동참하여 미국 주도의 세계화를 거부하고 대신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한국적인 것의 개발과 학습에 몰두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기도 하였다.

2) 2002 한일 월드컵 문화의 특징

(1) 한국인의 신명의식

한국인의 전통적 의식들 중 흥을 즐길 줄 아는 신명의식은 역사적 상황에 관계없이 어려울 때는 어려움 속에서, 여유로울 때는 여유로움 속에서 독특한 신명의 장을 연출해 왔다. 길거리 응원에 모두가 동참하고 그 속에서 한국대표팀의 선전 자체를 즐기며 발산했던 극대화된 신명 에너지의 외현화는 곧 국민통합 가능성과 더불어 앞서 살펴보았던 여러 긍정적 현상 자체로 이어져 길거리 응원문화의 가치를 더욱 높여주는 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으며,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나타난 새로운 문화현상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2) 형식적 형식주의에서 현실적 형식주의로의 전환

철학의 일반론적 관점에 의하면 모든 가치들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가치도 없으며, 또한 언제나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가치도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가치는 그것이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에 위치해 있는가에 따라 판단되어질 뿐이라는 것이다. 한국인의 형식주의적 태도 또한 이와 동일한 논리 구조에 포함되어 있다. 즉, 한국인의 형식주의가 부정적인 것으로 분석되어지는 경우에는 현실 속에서 외현화되어진 형식주의가 어느 한 방향으로 극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이 부정적으로 판단되어질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길거리 응원문화

에서 보여진 외국인과 상대팀에 대한 포용적 태도, 쓰레기 청소 및 질서 존중과 같은 시민의식의 발현 등은 모두 어느 정도 타 집단에 보여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국인의 도덕적 형식주의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발현되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형식적 형식주의가 현실적 형식주의로 가치전환되어진 경우이다.

(3) 획일적 전체주의(totalitarisme)에서 자발적 전체주의(holisme)로의 전환

700 만 명 이상의 국민들 모두가 붉은 색 옷을 입고 동일한 응원구호를 외치며 도시 곳곳의 동일한 장소에 모여 응원을 하는 모습은 개념의 본질적 의미에서 볼 때 일종의 전체주의적 태도일 수 있다. 특히,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전체주의적 사회가치를 강조해온 부분을 보면 이와 같은 현상은 자칫 또 다른 전체주의의 가능성으로도 논의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전체주의적 행위는 한국사회가 90 년대 이후 급격하게 경험해온 개별성과 자발성으로 특징지워질 수 있는 포스트모더니즘적 가치관으로의 전환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즉, 과거 폐쇄적 집단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획일적 전체주의의 특성이 교통통신 및 인터넷 망의 발전과 국가 및 문화간 경계의 약화에 의한 개인적 가치의 강조 등에 의해 자발적 전체주의로 변화되어지면서 길거리 응원에서 보여지듯이 전체주의적 양태이기는 하지만 참여자의 자발성으로 철저히 무장된 새로운 형태의 전체주의(holisme)가 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3. 한국 청소년문화의 실태 및 특징

한국 청소년문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오늘날의 청소년문화가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모습과 그 특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할 수 있다(최원기, 2001; 최원기·전정숙·김창남, 2000).

다양성의 증가

마페줄리의 논의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후기 현대성이 보다 강해지고 있는 오늘날 종교와 정치는 이미 포화상태에 도달해 있으며, 사람들은 이들에 대한 그 동안의 관심을 거두어가고 있다. 단일 형식성 속에서 살아와야 했던 사람들에게 있어 종교와 정치는 그들의 삶의 틀을 구속했었던 주체로 인식되어져 더 이상 매력을 끌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회에 있어 진보적 성향을 대표하는 청소년세대에 있어 현대성이 보여주었던 강한 사회적 틀은 거부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가상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유형의 공간은 이들에게 그에 대한 유용한 대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실적 공간 속에서 할 수 없었던 다양한 일들이 가상공간 속에서는 가능하게 되었으며, 정보의 범람 또한 그들에게는 다양성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지니게 하고 있다. 다양한 언어형태(표준어, 채팅용어, 이모티콘..), 다양한 동호회, 다양한 게임, 다양한 복장, 다양한 두발, 다양한 삶의 목표 등 자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때론 이미 존재하는 유행성 등을 기준으로 청소년문화는 다양성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양성이 유행되고 있다.

물질주의적 경향성 강화

상부구조와 하부구조간의 힘의 역학관계를 고찰하고 있는 마스적 해석방법에 의하면, 물질주의의 지배란 그 사회의 물질적 기반의 변화에 따라 사람들의 행위 및 의식구조가 변화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반면 정신주의의 지배는 그 사회의 물질적 기반의 변화가 사람들의 행위 및 의식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신주의와 물질주의간의 이러한 관계

문제는 특히 오늘날과 같은 거대 소비사회에 있어 매우 커다란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들간의 힘의 균형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 산업사회의 자본논리가 커다란 힘을 획득하면서부터 사회 속에서의 소비는 보드리야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체와 객체간의 혼동의 문제로 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본인이 물건을 주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고와 같은 시뮬레이션 세계에 의해 특정 물건을 구입하도록 조종당하는 것인지 알 수 없게 되고 있다. 소비를 위한 소비의 논리에 빠져버린 것이다. 더욱이, 가상공간이 하나의 유행으로 등장하면서 물질주의의 지배는 더욱 더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물질주의적 경향은 청소년들의 유행성 속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핵심 축으로 위치되어져 있다. 가상공간으로의 접근도구인 컴퓨터로부터 유행하는 의상, 핸드폰, 여가공간 등에 이르기까지 행위와 의식의 모든 부분은 물질주의의 지배를 받아가고 있다. 심지어 가상적 물질인 온라인게임에서의 각종 무기들도 현실의 중요한 물질적 도구로 인식되어져 심각한 부작용이 출현하기도 한다. 소비와 가상공간을 이루고 있는 물적 하부구조가 청소년문화의 의식구조를 대변하는 정신적 상부구조를 강력하게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개인주의와 집단주의간의 혼재

개별화라고 하는 측면은 소비와 특히 가상공간의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가상공간의 특성 자체가 개별화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컴퓨터, 핸드폰, PDA 등과 같은 가상공간 도구들을 관찰할 경우 쉽게 확인될 수 있다. 물론 온라인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 있고 게임 역시 그러하지만 이러한 사용을 개별화의 반대 영역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 온라인 게임의 경우 상대방의 신원에 대한 정보가 단순한 ID 의 차원 이외에는 기본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며 전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위한 단순한 게임일 뿐이다. 게임의 상대자가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의해 움직이는 컴퓨터가 아닌 다양성을 지닌 실재 인간이라는 점이 차이점이며 온라인 게임의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뿐이다. 핸드폰의 사용, PDA 의 사용 등도 동일한 논리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와 같은 도구들이 지니고 있는 개별화의 특성이 기성문화로부터 영향받아 청소년들의 의식 기저에 잔존하고 있는 집단주의적 특성과 혼재되어 있다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온라인 동호회의 경우 이들 가상공간에서의 모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 현실화시키고자 한다. 현실적 공간에서 만남으로 인해 더 이상 가상공간의 특성을 지니지 않는, 따라서 집단적이고 개인간 친밀성을 지닌 기존의 동호회 모습으로 변화하게 된다. 도구만이 가상공간일 뿐 인간관계의 특성은 현실적이다.

일상을 통해서도 청소년들의 행위는 이상에서와 동일하게 개별성과 집단성의 혼재로 특징지어진다. 개인주의도 아니고 집단주의도 아닌, 따라서 이기주의의 모습(왕따, 컴퓨터 범죄,...)을 일상 속에서 보여가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대중매체 및 대중문화에의 의존성 증가

오늘날 자연에 대해 청소년세대가 갖는 이미지는 점차 휴식처라고 하는 의미로부터 일상과는 동떨어진 오지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TV, 라디오, 컴퓨터 등과 같은 대표적인 대중매체들과의 접촉을 단절하도록 할 경우, 많은 청소년들은 불안해하거나 할 일을 찾지 못해 순간적 아노미(?) 상태에 빠지게 된다. 자연으로부터 멀어져버린 것이다. 일상 속으로의 이와 같은 매체들의 투입이 강화되어가면서 그들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들 기계에 종속되어버린 것이다.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서있는 공간과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즉 상황에 대한 주체적 대응력이 약화되어버린 것이다. 편지를 쓰고 우표를 부칠 수 있는 여유도, 또한 답장을 기다릴 여유도 이미 기계적 매체의 신속성과 대용량 속으로 매몰되어 버리고 있다. 즉각적 자극, 가시적 외현화만이 중요한 의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이처럼, 대중문화는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화 환경이자 청소년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제로 자리잡고 있다. 청소년들은 입시 제도와 업적주의 교육 시스템에서 많은 중압감을 경험하며 대중문화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중압감으로부

터 벗어나는 통로로 기능한다. 청소년들이 대중문화 상품을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대중문화의 스타에 대해 광적인 동경을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그들에게 가해지는 억압이 심하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가상성의 증가 및 가상과 현실의 혼돈

가상세계와 현실세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가상과 현실간의 차이를 이론적인 측면에서 해석한다면 단적으로 물리적 공간의 차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가상세계는 현실세계와는 달리 물리적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서 따라서 현실적인 행위나 신체접촉의 가능성이 존재할 수 없다. 온라인게임은 게임일 뿐 게임과 현실간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는 이유도 그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이성적 사고에 기초한다면 현실과 가상간의 혼돈이 발생될 가능성이 미약해진다.

그러나, 오늘날의 청소년문화에 있어 가상과 현실의 구분이 소수의 경우 혼동의 상태에 빠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게임 속의 전투가 현실적 감정을 자극하고 이것으로 인해 실재적 폭력이 발생하기도 한다. 가상세계에 대한 느낌이 일상적 삶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다. 2000년도 초반에 한 중학교 남학생에 의해 발생하였던 여중생 엘리베이터 살해는 바로 이와 같은 혼동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가상에서의 인간 살해가 던져주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허구적 느낌이 현실 속으로 투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실 속에서도 게임에서와 같이 인간에 대한 살해가 아무렇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순간적인 충동을 느꼈을 것이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현실과 가상의 혼동이 과학기술의 발전에 의해 가능해질 미래가 올 수도 있다. 물리적 절대 공간에 대한 기준이 사라진다면 가능한 미래이다. 그 시대에 있어 이러한 혼돈은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오늘날의 현실은 가상과 현실간의 혼동이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며, 더욱 심각한 점은 그것이 집단적 유행의 특성으로 전이되어질 수 있다는데 있다. 혼돈의 사례가 증가한다든가 또는 이러한 모습들이 집단적 유형으로 발생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수준에서 심각히 고려되어야 할 청소년문화 정체성

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이 문제는 앞서 살펴보았던 대중매체로의 의존성 증가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는데, 즉 컴퓨터만이 삶의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는 인식 하에 일상의 대부분이 가상 세계와의 만남에 쓰여질 가능성이 증대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현실 세계와의 단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보드리아르는 오늘날 시뮬라시옹(simulations)에 의한 현실과 상상의 혼란을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계의 한 모습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가상공간에로의 몰입정도가 증대되면서 가상적 시뮬라시옹의 세계가 현실계의 절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학교 혹은 학습이라는 영역과의 긴밀한 관계 지속

한국의 청소년문화는 어떤 식으로든 학교생활과 학습, 입시제도 등의 조건에 관련되어 있으며 그런 삶의 조건에 대한 청소년 집단의 대응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학생 신분의 청소년들은 생활시간의 가장 많은 부분을 학교와 학원 등 학업 중심의 삶에 바치고 있으며 학업의 성취를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강요받고 있다. 청소년문화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그들의 은어를 보면, “범생이” “날나리” “양아치” 등 주로 학교생활과 학업에 대한 태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많으며,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바 있는 학교 폭력이나 “왕따” 현상 역시 학교라는 공간에 결박되어 있는 청소년의 삶의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학교 문화는 그러나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한국 특유의 교육제도와 입시환경에 의해 강제된 문화이다. 기성세대는 흔히 청소년문화를 독립된 실체로 인정하기 보다 교육의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경험하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치부하곤 한다. 생활의 대부분을 학교라는 제도의 울타리에 결박당해 있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창조하거나 독자적인 생활 문화를 형성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소비의 주류문화이자, 사회적으로는 억압의 대상이고, 기성의 담론질서에서 소외된 하위문화

80년대 후반 이후 청소년들의 구매력이 크게 신장함에 따라 청소년은 가장 중요한 문화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사실상 90년대 이후 청소년문화는

대중문화 전반에 가장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실상의 주류 문화로 등장했다. 이는 청소년문화가 기본적으로 주류 담론에 대한 저항적 하위문화 이면서 자생적 창조성에 기반하기 보다 주어진 대중문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필연적 결과이다.

도덕적 가치보다 개인선호도 위주의 가치관 강화

활자문화 세대의 가치기준이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있는 반면 오늘날 청소년들의 가치기준은 “어떤 것이 좋고 싫은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들의 성장기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여행자유화, 문화개방 등으로 특징 지워진 시기였고 따라서 보다 개방적이고 개인적이며 유연한 사고와 경험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전히 기성세대의 주요 가치관 소유

오늘날 청소년은 새로운 사회적 변화의 과정에서 성장하면서 기성세대와는 여러모로 다른 문화적 감수성과 사고방식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윤리와 가치관, 교육 체계, 질서 등은 여전히 기성세대의 구시대적인 잣대에 의해 고수되고 있다. 집단주의적인 태도, 가족중심주의적 가치관 등에 기반한 혈연, 지연, 학연 등이 청소년들에게서도 상대적으로 강조되어지고 있는 현실이 이를 말해준다. 이와 같은 부분은 앞선 이론적 논의에서도 제시되었던 것과 같이 문화변동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의 하나로서 흔히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의 새로운 행위특성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을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을 수정하게 해주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월드컵문화와 현대 청소년문화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볼 때 우리는 2002 년 한일 월드컵을 통해 발현되었던 새로운 문화변동으로서의 길거리 응원문화 및 여타 주목할만한 특징적 현상들이 단지 우연히 출현하게 된 일시적 특징으로서의 결과들이 아니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들 현상들은 문화변동이라고 하는 거대 흐름 속에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 요인들의 작용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그 의미 또한 새로운 문화변동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늘날의 한국 사회에 있어 커다란 가치를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화현상의 해석에 있어 더욱 중요한 점은 그것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들 현상의 중심에 청소년이라고 하는 특정 연령계층이 자리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 년 한일 월드컵에서 나타난 길거리 응원 등 고유의 문화현상들이 지니고 있는 원인 및 특징들을 보면 그 내용이 오늘날 한국 청소년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징들과 연계되어지는 부분이 많음을 알 수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이러한 관계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2002 년 한일 월드컵에서 국민적 역동성이 출현하게 된 것은 이상의 여타 배경적 요인에 부가하여 청소년들이 그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쌓아온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문화가 발현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기성세대들이 월드컵을 통해 수용하고 공유하게 됨으로써 2002 년 한일 월드컵 당시의 긍정적인 국가적 열기가 산출되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역동성은 다시 한국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문화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게 되었는데, 특히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젊은 계층의 역량이 사회 속에서 적절히 발휘되게 하고 그들의 집합된 힘이 소비문화를 주도하게 하였으며, 정치영역에 있어서는 노무현 정부를 탄생하게 하는 등 세대정치의 가능성까지 논의되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다. 2002 년 한일 월드컵과 한국의 청소년문화는 상호 영향력을 교환하면서 문화변동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차원간의 관계구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문화의 보편화 등으로 대표될 수 있는 기존의 문화변동 요인에 따라 성장해온 청소년문화의 잠재적 역량은 2002 한일 월드컵에서의 붉은 악마 응원문화를 통해 새로운 역동성으로 발현되게 되었다. 이러한 문화변동의 새로운 가능성은 기성세대 및 모든 국민들에게 확산되어 월드컵의 한국적 에너지 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길거리 응원 물결이 나타나게 하였다.

둘째, 이후 소비 및 여타 대중적 유행문화의 주도 계층은 청소년 및 젊은 계층이 담당하게 되었으며, 그들의 신문화적 경향성이 기성세대에게로 전이되어지고 있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그동안 비주류 문화 계층으로서 소외되어 온 청소년문화가 사회의 주류 영역 속으로 들어옴에 따라 기성세대의 문화 또한 이들 문화로부터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치 영역에 있어서도 인터넷, 핸드폰 등을 포함한 여타 대중매체를 통해 젊은 계층은 그들만의 정치적 입장을 표현하는 단계로까지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점차 서구 청소년들처럼 그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청구권, 선거권 등 시민적 권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경향도 강하게 나타나기 시작했다.

셋째, 그 결과 기성세대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기존의 비합리적 관행들도 이제는 새롭게 재편되어져야 한다는 논리구조가 힘을 얻어가고 있으며, 점차 기성세대 전반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2002년 대선을 거치면서 386 세대로 지칭될 수 있는 젊은 계층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어 온 부분도 이러한 논리로 설명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인권과 선거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재의 모습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월드컵현상의 사회·문화적 맥락

1. 월드컵 응원의 사회구조적 여건
2. 월드컵 응원의 문화적 여건
3. 월드컵 응원참여의 내면적 동인
4. 청소년 월드컵 참여의 특성과 그 함의

앞의 장에서는 2002 년 한일 월드컵 응원마당의 장에서 분출된 청소년 신문화체험의 특성을 한국사회 전체의 문화변동과 청소년세대의 문화변동의 관점에서, 내재된 청소년세대문화가 월드컵 응원의 장을 매개로 분출된 것이라는 논의를 이론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청소년 월드컵 응원참여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신문화체험적 특성을 구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경험적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1. 월드컵 응원의 사회구조적 여건

우리 청소년들이 월드컵 응원에 대거 참여하게 된 행위의 이면에는 국가 정치권력, 지방정부권력, 경제적 자본권력, 언론매체와 같은 문화권력이 “허용된 축제적 일탈의 장과 행위”의 사회구조적 여건을 미리 조성한 데 있다.

이번 2002 년 월드컵에서는 한국경기가 있는 날이면 경기장은 물론이고, 집, 학교, 음식점, 패스트푸드점, 영화관, 소규모 공공장소, 대규모 거리 등 한국경기를 관람·응원할 수 있는 TV 수상기나 야외전광판이 설치된 곳이 바로 크고작은 응원의 무대가 되었고, 몸짓·구호라든지, 거리행진·차량경적 소리라든지, 평소의 일상적 자기표현의 정도를 넘어서는 인상관리와 상징표출이 암묵적으로 용인되었으며, 때에 따라서는 암묵적인 용인의 수준을 넘어 자랑스러움의 표현으로 장려되기까지 하는 등의 디오니소스적 축제와 같은 일탈의 장과 행위들이 전국 곳곳에서 허용되었다(동아일보, 2002; 조선일보, 2002).

그러면, 평소의 일상적 생활의 시공간에서는 적극적으로 허용되지 않던 “축제적 일탈의 장과 행위”가 왜 월드컵이라는 축구대회의 크고작은 응원마당에서는 “과잉담론과 부추김의 미학”의 측면에서 소극적인 허용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장려되기까지 하였을까?

우선, 월드컵 축구대회는 단일종목의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세계적 관심도는 올림픽의 경우를 능가한다. 월드컵 축구경기를 주관하는 국

제축구연맹(FIFA)에는 전세계 198 개 회원국이 가입하고 있고, 월드컵 축구 대회는 15 일 정도인 올림픽 개최기간보다 약 2 배 오랜 기간 개최되며, 월드컵대회의 텔레비전 시청인구는 전세계적으로 올림픽대회의 경우를 크게 상회한다. 1994 년 미국 월드컵대회 기간 중 텔레비전 시청인구는 연인원 320 억명으로서 1996 년의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대회의 연 196 억명을 크게 상회하였다(노기성, 2002). 따라서, 월드컵 축구대회는 국가, 지방정부, 경제적 자본, 언론의 입장에서 보면, 단순한 축구경기일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Korea(다이나믹 코리아, 허브 오브 아시아, IT 강국 코리아)라는 국가 브랜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본의 수출증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주요한 이미지 확산 통로로서의 역할을 한다(신철호, 2002; 현대경제연구원, 2002a).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경기장의 건설, 이로부터 파급되는 고용유발 효과, 관광수입의 확대 등 수조원의 내부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불러오는 내부 경제활성화의 계기도 동시에 제공한다(김상호, 2002). 월드컵 축구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경기장 및 숙박시설의 증축 또는 추가건설이 필요한데, 이로부터 파급되는 고용 및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각각 22 만명, 3 조 6 천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개막식을 비롯한 32 개 게임을 준비,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추가적 소비지출 4,000 억원뿐만 아니라 대회기간 중 31 만명 정도의 관광객으로부터의 관광수입으로부터도 13 만명의 고용, 1 조 7 천억원의 부가가치가 유발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산업, 관광산업, 서비스 산업, 스포츠 관련산업의 발전이 특히 두드러질 것이며, 또한, 경기가 여러지역에 분산 개최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노기성, 2002).

또한, 월드컵 축구대회는 국민통합의 주요한 계기로도 작용한다. 월드컵 축구대회는 각 나라와 나라간의 대결이라는 스포츠 민족주의를 그 경쟁의 기본원리로 채택함으로써, 경기와 응원의 전 과정에서 각 나라의 민족주의에 기초한 단결과 통합을 유도하는 스포츠외적 역할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특히, 축구는 여타의 다른 스포츠 종목과는 달리, 오늘날 남아 있는 몇 안되는 원시성과 단순성을 갖춘 종목으로서 그 흡인력이 남녀노소에 할 것 없이 가장 강력한 스포츠 종목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월드컵대회는

여러 가지 정치사회적 갈등에 기초한 사회적 분열양상을 일시적이거나 잠재우고, 국민을 대내적으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다.

이처럼, 월드컵은 단순한 축구경기일 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정부, 경제적 자본, 언론 등의 정치, 경제, 문화적인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행사이며, 이들 세력이 서로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월드컵 응원 참여 청소년들의 정신과 육체를 둘러싸고, 개막식 행사, 언론 보도, 광고 담론, 거리응원문화 등 월드컵의 여러가지 제반 문화이미지적인 측면에 대한 통제와 모양지움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시도하는 세력각축의 장(Foucault, 1990; 1991)으로서의 면모를 동시에 지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자생적인 월드컵 응원의 “축제적 일탈의 장과 행위”는, 국가 및 지방정부의 국가브랜드 대외이미지 제고 및 국민통합 제고 전략, 경제적 자본의 월드컵 마케팅 활성화 전략, 이와 연관된 언론의 이해관계 속에서, 의도하지 않은 호재로서 작용하여, 금지 및 통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애국심과 민족주의를 부추기는 과잉담론의 대상 혹은 장려의 대상으로 널리 적극적으로 허용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사회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인 국가 및 지방정치권력, 자본의 경제적 권력, 언론 등의 문화권력이 일치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일시적으로나마 사회구조를 변형시켜 열려진 공간과 틈새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월드컵 응원에 대거 참여하게 된 일차적인 기회구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월드컵이 끝난 직후인 2002년 7월 서울시 남녀 중고등학교 청소년 840명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자료(이경상, 2002)에 따르면, 우리 청소년들이 월드컵 기간 중 한국경기를 관람·응원하지 않은 비율은 스페인전 3.1%-터키전 11.8%에 불과하여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한국경기를 관람하고 응원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1> 월드컵 한국경기 응원장소와 매체

(단위: %)

	폴란드	미 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독 일	터 키
응원한 적 없다	9.5	5.3	4.2	3.9	3.1	4.4	11.8
집에서 TV 로	68.4	63.9	54.0	47.3	48.5	49.7	61.9
학교에서 TV 로	0.7	1.7	1.6	3.3	0.9	2.6	1.0
음식점, 영화관 등에서 TV 로	3.0	4.7	5.2	5.8	6.4	5.3	4.6
소규모 공공장소 에서 TV 로	2.4	3.3	5.6	6.2	5.7	6.3	3.7
거리에서 전광판 으로	14.7	18.8	26.2	31.2	31.9	27.7	14.4
직접 경기장에서	0.2	0.2	1.2	0.2	0.5	1.0	0.2
기 타	1.1	2.0	2.0	2.1	3.1	2.9	2.2

자료: 이경상(2002), “월드컵관련 청소년의식조사 결과”

월드컵 한국경기를 응원한 장소와 매체는 전반적으로 집에서 TV 를 통하여 응원한 경우(이탈리아전 47.3%-폴란드전 68.4%)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규모 거리에서 전광판을 통하여 거리응원을 펼친 경우(터키전 14.4%-스페인전 31.9%)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음식점, 영화관과 같은 대중시설, 소규모 공공장소, 학교, 경기장 등에서 관람, 응원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어,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에서 TV 를 통해 응원을 하거나 거리응원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이 7 경기를 치르는 동안에, 폴란드전, 미국전, 포르투갈전, 이탈리아전, 4 강 결정전인 스페인전까지 집에서 TV 를 통해 응원한 경우의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길거리에서 거리응원을 한 경우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이번 월드컵에서 만개한 거리응원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다. 거리응원의 열기는 4 강전인 독일전을 고비로, 3-4 위 결정전인 터키전에 와서야 많이 잦아진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함께 응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 및 친척과 함께 응원에 참여한 경우(스페인전 41.2%-폴란드전 61.9%)가 가장 많고, 다음이 친

구 및 선후배들과 함께 응원에 참여한 경우(폴란드전 22.8%-스페인전 49.0%)이다. 연인, 혼자, 기타의 비율은 가족이나 친구의 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즉, 이번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주로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월드컵 한국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했음을 알 수 있다. 응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유형도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 및 친척들의 비율은 점점 줄어드는 대신, 친구 및 선후배의 유형의 비율은 점점 늘어나, 거리응원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친구 및 선후배와 함께 거리응원에 참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청소년들은 이번 월드컵에 평균 4-5 명의 사람들과 함께 한국경기를 관람하고 응원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표 II-2> 월드컵 거리응원에 함께 참여한 사람유형
(단위: %)

	폴란드	미 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독 일	터 키
가족(친척)	61.5	45.2	38.5	31.7	29.5	37.9	55.0
친구(선후배)	31.7	47.9	55.2	62.5	63.5	56.3	39.7
연인	1.7	2.0	1.3	2.4	2.8	2.2	2.2
혼자	4.7	4.3	4.5	2.9	2.6	2.0	2.4
기타	0.5	0.7	0.4	0.4	1.5	1.6	0.7

자료: 이경상(2002), “월드컵관련 청소년의식조사 결과”

거리응원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1 번 이상 거리응원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전체의 57.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10 명 중에 5-6 명의 청소년들이 거리응원에 참여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거리응원에 참가한 횟수를 살펴보면, 1-2 번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이 31.4%, 3-4 번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이 14.9%로 나타나고 있으며, 5 번 이상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도 11.3%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거리응원 참가에 대한 관심과 폭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함께 거리응원에 참여한 사람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가족 및 친구와 함께 거리응원에 참여한 경우가 지배적이다. 가족 및 친척과 함께 거리응원에 참여한 경우가 스페인전 29.5%-폴란드전 61.5%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친구

및 선후배들과 함께 거리응원에 참여한 경우가 폴란드전 31.7%-스페인전 63.5%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한국의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 가족 및 친척의 비율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대신, 친구 및 선후배의 비율은 상당히 큰 폭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 한국의 경기가 거듭됨에 따라, 청소년들이 친구 및 선후배와 함께 거리응원에 참여한 비율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연인, 혼자, 기타의 비율은 가족이나 친구의 비율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청소년들은 거리응원에 평균 4.75 명의 사람들과 함께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가 및 지방정부 권력, 경제적 자본 권력, 언론과 같은 문화권력이 청소년들의 월드컵 응원 참여를 금지 및 통제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장려의 대상으로 삼아 적극 허용하고, 열린 기회구조를 제공하였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국가, 지방정부, 경제적 자본, 언론 등 제반 권력의 “축제적 일탈의 장과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허용”을 암묵적인 목적으로 한 사회구조적 여건조성이 청소년 월드컵 응원참여의 기본적인 배경이다.

2. 월드컵 응원의 문화적 여건

한편, 전국의 곳곳에서 수십만의 청소년들이 참여한 응원이 성공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가권력과 경제적 자본권력 및 문화권력이 “축제적 일탈의 장과 행위”를 적극적으로 허용 및 장려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허용되고 장려된 축제적 일탈의 사회구조적 여건조성의 바탕위에 청소년 월드컵 응원 참여자들을 관통하여 문화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자원의 공급이 충분조건의 하나로 충족되어야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청소년들의 월드컵 응원참여를 가능하게 만든 문화적인 여건으로는 온라인상의 자생적 연결망 응원조직인 붉은 악마의 성공적인 응원전략과 매스 미디어 및 인터넷(IT)의 시·공간 응축효과(time and space compression effect)를 통한 응원관련 상징이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공유된 메커니즘을 들 수 있다.

우선, 청소년들의 월드컵 응원참여에 필요한 문화적 자원의 성공적인 공급처 역할을 한 붉은 악마와 붉은 악마의 성공적인 응원전략부터 살펴보자.

붉은 악마는 기본적으로 시민사회 내부로부터 자생적으로 형성된 조직이긴 하지만, 정치·사회적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여타의 다른 시민사회 조직과는 달리 월드컵과 축구를 매개로 애초부터 탈정치적이고 개인주의적 지향을 명확히 하면서, 정보화에 의해 사이버 공간에서 부양되고, 경제성장에 의해 형성된 사회세력이며, 소비주의적 해소(윤상철, 2002)를 위한 커뮤니티형 여가즐거움의 전위조직이다. 붉은 악마는 1995년 PC 통신 하이텔 축구동호회를 중심으로 온라인상의 매니아 중심의 축구 서포터스의 사이버 공동체가 오프라인 상에서 “단관”(단체관람)을 시작하면서 탄생되었고(신동민, 2002), 1997년부터 국가대표 축구단 서포터스로 공식적인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홍상혁, 2002). 따라서, 붉은 악마는 탄생부터 여가지향의 목적을 분명히 한 온-오프라인 놀이공동체의 성격을 띠고 탄생한 조직인 것이다.

이러한 붉은 악마의 여가즐거움을 위한 응원전략의 기본적인 특징은 첫째,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현장의 유기적 결합이며, 둘째, 적절한 상징의 창출 및 공유적 활용이다(김종길, 2002a; 2002b). 붉은 악마의 응원전략은, 온라인상의 조직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을, 게시판 활동, 정팅, 공지활동 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의 정모, 단관 등의 활동으로 이어지게 하며, 느슨하게 연결된 조직특성(loosely coupled organisation)을 갖는 사이버 네트워크형 조직의 정체성과 공동체적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붉은 색” “간결하면서도 따라부르기 쉬운 구호와 노래” “치우천황” “초대형 태극기” “카드섹션 문구” 등의 상징을 오프라인 상에서의 응원도구로 적절히 사용하였다.

한편, 이러한 붉은 악마의 기본적인 여가즐김의 응원전략이 “경기장 내의 붉은 악마서포터스”의 경계를 넘어, “온 경기장 관중의 붉은 악마화”로 이어지고, “거리응원에 나선 사람들의 붉은 악마화”로 확대되고, 궁극적으로는 집에서 TV를 통해 응원에 참여하는 “전 국민의 붉은 악마화” 현상으로 외연이 확장된 것은, IT를 통한 “붉은 악마상징의 시공간적 확산”기제에 힘입은 바 크다.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붉은 악마의 응원전략으로써 표출된 여러가지 상징들은, 한국 경기의 승리와 함께, 매스미디어인 방송 및 신문의 뉴스, 광고, 기타 프로그램, 뉴미디어인 인터넷, 대형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짧은 시간에, 빠른 속도로, 전국적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친숙하게 확산, 공유되었다.

우리의 매스미디어가 월드컵 경기의 열기를 얼마나 강력하게 증폭시켰는가는 일본의 경우와 비교하면 선명하게 드러난다. 일본에서는 월드컵 경기를 모든 방송사가 동시에 중계하지 않았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과도한 흥분을 막기 위해서 대형 스크린을 통한 중계를 막기도 했다. 반면, 우리는 신문이든 TV든 모든 대중매체가 6월 한달을 월드컵 기사로 도배할 정도가 되어버렸던 것이다(김종엽, 2002). 내용의 수준에서도 월드컵이 매스미디어의 보도내용으로 자리잡으면서 그것은 끝없는 상호순환의 과정 속으로 들어갔다. 개별 가정의 TV와 대형 전광판을 통해 월드컵의 스펙터클이 전달되었으며, 이 전달과정 속에서 거리응원 자체가 또 하나의 스펙터클로 만들어져 모든 TV 화면을 채우게 되었다. 도시의 주요한 거점들에서 그런 자리에는 어김없이 월드컵 경기를 중계하는 거대한 전광판이 자리잡

고 있거나 새로 설치되었으며, 사람들은 푸르게 잠겨가는 저녁 하늘을 배경으로 빛나는 전광판 아래 모여 목이 터져라 대표팀을 응원했는데, 그런 군중의 모습이 전광판 속에 다시 투사되었다. 그렇게 해서 군중은 전광판에 반조된 자신들의 모습을 또 하나의 스펙터클로서 감상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런 과정은 가정의 TV 시청자들을 계속해서 거리로 불러내었던 것이다(김종업, 2002).

SK 텔레콤의 경우, 통신업체 1 위 자리를 굳게 지키기 위해, 월드컵이 끝나는 기간까지 수백억을 투여해서 붉은 악마와 한석규가 출연하는 광고 3편을 시간대에 따라 방송과 신문 옥외 광고판에 집중적으로 광고했다. 당초 이 광고는 붉은 악마 응원의 대중적인 확산을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이로 인해 SK 텔레콤이 얻게 된 광고이익은 절대적이다. 대규모 몰량투입으로 광고 한달만에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시민들은 붉은 악마의 응원구호들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되었고, 월드컵이 개막되고, “Be the Reds” 티셔츠와 “대한민국” 구호는 순식간에 퍼져 나갔다(이동연, 2002).

또한, 이에 상응하여, 애초부터, 폐쇄적인 사이버 공동체가 아니라 개방적인 사이버 공동체를 지향하여, 붉은 악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붉은 악마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방화 전략을 취한 붉은 악마의 개방적 성원 충원전략도 간접적으로나마 이에 한 몫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붉은 악마의 경우, 초기에는 가입비 및 복잡한 회원가입 절차가 있었지만, 이후 홈페이지에 아이디를 개설하는 것만으로 가입이 완료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02 년 7 월에는 가입 비마저 폐지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참여와 탈퇴를 더욱 용이하게 했다(김종길, 2002a).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2 년 7 월 서울시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경험적인 자료에 따르면, 우선, 붉은 악마의 경기장내 응원방법 중에, 우리 청소년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카드섹션 문구 응원(35.6%)이며, 그 다음으로, 인상깊은 응원방법이 초대형 태극기 응원(30.6%)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붉은 옷의 통일이 인상깊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23.0%, 따라부르기 쉬운 응원구호와 응원가가 인상깊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5%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가장 인상깊었던 카

드섹션 문구로는 독일전에서 행해진 “꿈★은 이루어진다”인 것으로 과반수가 넘는 55.1%의 청소년이 응답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전의 “AGAIN 1966”이 16.0%, 스페인전의 “PRIDE OF ASIA”가 13.2%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다.

거리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만을 따로 떼어 살펴보면, 카드섹션 문구응원이 36.8%, 초대형 태극기 응원이 31.2%, 붉은 옷의 통일이 22.2%, 따라부르기 쉬운 응원구호와 응원가가 8.2%의 순으로 거리응원 참여 청소년들에게 인상깊었던 붉은 악마의 경기장내 응원방법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붉은 악마가 사용한 전략적인 응원도구인 상징을 치우천황, 태극기, 붉은 색, 따라부르기 쉽고 간결한 응원구호 등으로 나눠,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우선, 붉은 악마의 상징인 치우천왕에 대해 76.9%의 청소년들이 서구적인 악마의 느낌보다는 친근한 전통적인 수호신의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엄숙함의 상징이었던 태극기에 대해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태극기를 엄숙하게 다뤄야 할 상징으로 보고, 옷, 목도리, 망토로 걸쳐서는 안된다는 응답에 88.9%의 청소년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으며, 반대로 태극기는 아름다움의 상징이므로, 페이스페인팅이나 수영복 디자인에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이 76.9%로 나타나, 청소년들에게 매우 친근한 상징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붉은 색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붉은 색은 빨강이를 나타내는 상징이므로 붉은 옷을 입어서는 안된다는 응답에 청소년들의 96.2%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반대로 붉은 색이 정렬적인 축제의 상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비율이 91.2%인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에게 붉은 악마의 붉은 색 상징은 기성세대와 달리 레드 콤플렉스를 나타내는 상징이라기 보다는 친근한 축제의 상징으로 다가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의 의식은 청소년들의 54.9%가 월드컵 기간 중 한국 경기가 없는 날에도 붉은 옷을 입고 다닌 적이 있으며, 35.8%가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붉은 옷을 입고 다닌 적이 있다는 응답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리듬인 다섯박자 대~한민국에도 청소년들의 96.1%가 친근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 붉은 악마가 도입한 전통적

인 응원 상징이 청소년들에게 아주 친근한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치우천황, 태극기, 붉은 색, 따라부르기 쉽고 간결한 응원구호 등, 붉은 악마의 응원전략의 산물인 주요 상징은 대부분의 거리응원 참여 청소년들에게도 아주 친근하게 인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응원 참여 청소년들만을 따로 떼어 살펴보면, 거리응원 참여 청소년들의 77.8%가 붉은 악마의 상징인 치우천황에 대해 서구적인 악마의 느낌보다는 친근한 전통적인 수호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78.4%가 태극기를 엄숙함의 상징이기보다는 아름다움의 상징으로, 페이스페인팅이나 수영복 디자인에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의 90%이상의 압도적인 다수가 붉은 색을 기성세대의 레드 콤플렉스의 상징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정렬적인 축제의 상징으로 여기고 있으며, 전통적인 리듬인 다섯박자 대~한민국 구호에도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붉은 악마의 여가즐김의 확산을 위한 오프라인상에서의 전략적 응원도구인 여러가지 상징들이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 있으며, 또한, IT를 통한 확산기제에 힘입어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 보편적으로 인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대규모 거리응원의 문화자원 공급처로서의 붉은 악마의 응원전략이 상당한 성공을 거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조사시점인 2002년 7월 말 현재, 전체 응답 청소년들의 8.4%가 붉은 악마의 회원인 것으로 응답해, 청소년들의 10명 중 1명 정도가 붉은 악마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미 가입한 붉은 악마청소년들의 회원가입 시점을 보면, 60.0%가 이미 월드컵 이전부터 붉은 악마의 회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38.6%는 월드컵 기간중에 가입한 청소년들임을 알 수 있다. 현재 붉은 악마에 가입해 있지 않은 청소년들에 대한 회원가입 의사를 보면, 향후 가입할 의사가 있는 청소년들이 65.3%에 달해 월드컵 기간 중 붉은 악마가 청소년들에게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거리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만을 따로 떼어 살펴보면, 거리응원 참여자들의 12.4%가 붉은 악마의 회원인데, 이들 중 반수 가량인 47.5%가 월드컵 기간중에 붉은 악마의 회원으로 가입한 청소년들이며, 붉은 악마에 가입해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상당수인 69.5%가 향후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비쳐, 붉은 악마가 거리응원 참여 청소년들에게 차지하는 비중 역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붉은 악마의 응원관련 상징확산 전략과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응원전략인, 붉은 악마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나 붉은 악마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방화 전략을 취한, 개방적 성원권 충원전략이 월드컵 응원참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기의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붉은 악마의 성공적인 응원전략과 IT를 통한 상징의 확산 및 공유”가 청소년 월드컵 응원 참여의 주요한 문화적 여건으로 작동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월드컵 응원참여의 내면적 동인

그러면,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한국의 국가정치권력이나 경제적 자본권력 및 문화권력이, “허용된 축제적 일탈의 장과 행위”를 사회구조적 여건으로 조성하고, 붉은 악마의 응원전략과 응원관련 상징의 확산 및 공유”라는 문화적 여건이 충족된 바탕위에서, 청소년 월드컵 응원 참여자들이 월드컵 응원에 실제로 참여하게 된 미시적인 행위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선, 앞에서 살펴본 사회구조적·문화적 여건의 바탕위에, 우리 청소년들의 청소년 월드컵 응원참여가 대거 이뤄진 배경에는, 월드컵 이후 W 세대, 혹은 R 세대라 불리우게 된 “새로운 세대의 등장”이 자리하고 있다. R 세대 혹은 W 세대는 더 이상 묵묵히 TV 를 시청하거나 PC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는 것에 만족하는 “정주성” 세대(N 세대)가 아니며, 단순히 휴대폰과 모바일로 무장한 채 다른 사람과 교신하는 것에 자족하는 M 세대도 아닌(김종길, 2002a),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새로운 세대이다. N 세대는 인터넷 가상공간에 매몰되면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국가에 대해 무관심하면서 월드컵을 재미있는 놀이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그치지만, R 세대는 인터넷으로 네트워크화되고 최첨단 멀티미디어인 대형전광판을 중심으로 개방된 광장에 모여서 집단적이지만 다양한 개성이 존중되는 공동체 의식을 나타내는 세대(현대경제연구원, 2002b)인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갖는 새로운 세대인 한국의 청소년들이 이번 월드컵 응원에 참여하게 된 기본적인 목적은 한국경기의 승리와 이에 연동된 재미추구(김정운, 2002)이다. 우리 청소년들의 월드컵 응원참여가 대거 이뤄지게 된 기본적인 계기는 심각하고 진지한 애국심과 공동체적 가치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한국 축구경기의 승리에 대한 기원(한국의 승리에 대한 기원만으로는 애국심이라는 개념의 외연과 내포를 다 끌어안을 수 없다)과 응원놀이마당의 단순한 재미추구가 목적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전의 419 세대나 386 세대들이 주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거리시위에 나섰다면, 이번 월드컵 거리응원

참여 청소년들의 목적은 여가지향적인 재미가 목적이 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응원이란 경기장에서 선수들의 투지를 북돋아주기 위해 하는 일이다. 즉,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 선수들의 기를 살려주기 위한 수단인 것이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축구 경기의 승리가 목적이고 응원은 수단일 따름이다. 그러나 거리응원은 사정이 좀 다르다. 도대체 무엇을 응원한단 말인가? 선수들이 응원을 통해 힘을 얻어 축구경기를 이기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응원 그 자체가 목적이다. 응원하면서 즐기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이때 전광판에서 보여지는 축구는 이 재미를 매개해주는 수단일 따름이다. 물론 축구를 이기면 더 재미있을 것이다. 그러나, 꼭 이겨야만 재미있는 것이 아니다. 함께 대~한민국을 외치며 즐길 수 있다면 축구경기는 어찌 되었든 그리 큰 상관이 없었다(김정운, 2002).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2 년 7 월 서울시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경험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주로 한국 경기의 승리에 대한 기원과 재미추구가 목적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들이 응원에 참여한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축구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국의 거둬들인 승리로 인해 애국심이 생겨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1.2%로 제일 많고, 원래 축구를 좋아하였으므로 라고 응답한 사람이 38.8%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축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응원분위기를 틈타 실컷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11.3%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거리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만을 따로 떼어 놓고 살펴봐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거리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응원에 참여한 주된 이유를 살펴보면, 41.9%의 청소년들이 원래 축구를 좋아하였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40.4%의 청소년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국의 거둬들인 승리로 인해 애국심이 생겨서라고 응답하고 있으며, 11.5%의 청소년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응원분위기를 틈타 실컷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월드컵 응원 참여열기 고조의 이면에는 원래

축구에 대한 관심이외에 사상 최초의 월드컵 4 강진화 달성이라는 한국의 거듭된 승리가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기폭제로 작용하였음을 나타내고 있다. 게다가, 이런 응원 참여열기의 축제적 분위기를 틈타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월드컵 축구경기의 응원마당을 자신의 여가즐거움을 위한 기회로 간주, 응원에 동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월드컵 참여의 사회구조적 여건과 문화적 여건의 바탕 위에 “여가즐거움의 재미추구를 목적으로 한 참여”가 청소년 월드컵 응원참여의 기본적인 동인으로 생각된다.

4. 청소년 월드컵 참여의 특성과 그 함의

가. 청소년 월드컵참여와 신문화체험적 특성

한국의 청소년 생활실태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와 학원에서 입시성과를 목적으로 한 경쟁 위주의 학업생활(work)로 보내며, 충분한 여가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다(이종원, 2003). 그리고, 충분하지 못한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주로 TV 시청, 인터넷 게임, 채팅, PC 방 출입, 대중스타 추종 등의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여가(bad leisure)문화소비에 보내고 있다(이종원 외, 2000; 맹영임 외, 2002). 반면, 스포츠 활동, 청소년 수련활동, 자원봉사활동, 건전한 동아리활동에의 참여, 여러가지 창조적 문화행위의 실험 등의 바람직한 여가(good leisure)문화의 창출과 소비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이광호 외, 1996; 김정배 외, 2000).

그런 면에서, 2002년 한일 월드컵 거리응원문화를 통해 나타난 청소년들의 모습은 과도한 학업과 바람직하지 않은 여가로 점철된 기존의 청소년들의 모습에 비해 볼 때 새로운 것으로 한국 청소년들의 생활실태 및 새로운 문화창조에 시사하는 바가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의 청소년들의 모습이 개인적이다 못해 이기적이고, 인터넷 중독이나 휴대전화 중독에 빠져 있고, 대중스타를 쫓아 콘서트 장을 즐겨 찾아가며, 음주·흡연에, 유흥비 마련을 위해 불법아르바이트에도 과감히 나서는 주로 부정적인 모습인데 반해, 이번 월드컵 거리응원을 계기로 나타난 청소년들의 모습은 개인적이기만 한 줄 알았던 청소년들이 태극기를 망토로 휘날리며 애국심을 여지없이 표출하고, 인터넷 채팅, 게임 중독이나 휴대전화 중독에 빠져 있었던 줄로만 알았던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붉은 악마를 자발적으로 조직하고, 콘서트 장에서의 체험을 바탕으로 수준높은 거리응원의 문화를 창출하며, 오프라인 상에서 “대~한민국”의 구호를 주고 받으며 신공동체적 징후들을 마구 쏟아내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잠재되었던 청소년

들의 새로운 생활문화 형성의 가능성이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2002 년 청소년 월드컵 응원참여에 나타난 신문화체험적 특성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자발적 참여

우선, 청소년 월드컵 응원참여의 신문화체험적 특징의 첫 번째로 자발적 참여를 들 수 있다(한상진, 2002). 2002 한일 월드컵의 열기가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선전으로 인하여 고조되기 시작하면서 붉은 악마 응원단을 비롯하여 일반 국민들 모두가 세대, 성별,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각 가정, 학교, 일터, 길거리 등에서 순수하게 자발적인 의지로 한국팀 응원에 동참하였다. 한국팀의 마지막 경기에서는 700 만 이상의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 응원하였다고 하는 추산이 이루어질 정도로 그 자발적 참여 열기는 높았다고 할 수 있다(최원기, 2002).

즉, 과거의 수직적 관계에서의 강제적 동원으로부터 수평적 관계의 자발적 참여로의 전환이 이번 월드컵 청소년 거리응원 참여의 주요한 신문화체험적 특징인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십만의 군중이 모두 똑같은 색의 옷을 입고 똑같은 응원구호를 외치며 뿔어낸 길거리 응원의 어청난 집단적 열기에서 전체주의를 떠올리면서, 자칫 국가주의의 동원수단으로 이용될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그것은 월드컵 길거리 응원의 자발적 특성을 간과한데서 나온 기우이다(이윤희, 2002). 기존의 한국 역사에서 여러가지 대규모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주로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로 동원된 경우가 많았던 반면, 2002 월드컵 거리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강제적인 동원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순수한 자발적인 의지에 기초해서 참여했다는 점이 구분되는 특징으로 나타난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2 년 7 월 서울시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경험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번 청소년 월드컵 거리응원 참여가 대부분 자발적인 성격을 띠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청소년 거리응원 참여자들의 87.7%가 누구의 권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의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응답해, 대부분의 청소년 거리응원 참여가 자

발성에 기초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한국 역사에서 정부주도의 행사에 수동적인 동원의 대상일 뿐이었던 청소년들이 자발적인 참여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하는 새로운 세대체험을 보편적으로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또한, 월드컵 거리응원을 통해 새롭게 발견된 높은 자발적 참여정신은 일종의 충격으로 느껴질만큼 엄청난 사회적 의미를 함축한다. 그동안 한국은 서구사회에 비해 자발적 참여정신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인식되어져 왔다. 자원봉사의 경우, 서구의 자발적 참여율에 비해, 한국의 참여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물론, 이번 월드컵 거리 응원에서 보여진 일시적인 높은 참여도가 곧바로 자원봉사활동이나 시민운동으로 연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인들도 만약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적절한 마당과 계기가 주어진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이 내재해 있음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윤희, 2002).

2) 적극적인 자아표출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신문화체험의 다음 특징으로는 여러가지 자발적인 상징이나 구호의 적극적인 표출(동아일보, 2002; 조선일보, 2002)과 자율적인 통제를 들 수 있다.

과거 정부주도의 대규모 행사에 강제로 동원된 한국의 청소년들이 통제된 상태에서 미리 정해진 방식에 의해 수동적으로 여러가지 상징이나 구호들을 소극적으로 표출한 경험이 지배적이었음에 비해, 2002 월드컵 거리응원에 참여한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율적으로 발생, 유통되고 수용된 응원방식을 따라 여러가지 상징이나 구호들을 적극적으로 표출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 한국의 청소년들이 정부주도의 대규모 행사에 강제로 동원되어 통제된 상태에서 미리 정해진 방식에 의해 자신의 자아연출을 소극적, 수동적으로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오랫동안의 학교내에서의 획일적인 규율과 통제에 의한 일상적인 훈육(Foucault, 1979)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한

국의 학교에서는 오랫동안 청소년들의 몸과 정신을 “학생다움”의 정해진 기준에 맞춰 두발, 복장, 학습태도, 인사태도 등의 모든 행위의 제반 측면에서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두 가지 이분법적 규율에 맞춰 끊임없이 훈육시켜 왔으며, 그 결과 자연스럽게 한국의 청소년들은 자발적으로 상징을 표출하거나 개성을 연출하고, 표출된 상징이나 개성적인 표현을 자율적인 사회적 규제하에 두는 연습이 결여된 상태에서 개성적인 자아표출 능력마저 상실한 상태로 지내온 것이 사실이다. 원칙적으로 한국의 학교에서 청소년의 개성적인 자아표현은 허용되지 않아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획일성을 강제하는 학교의 통제와 교사의 감시망을 벗어나서, 학생은 소극적으로 때로는 적극적으로 개성적인 몸적 자아를 표현하려고 한다. 감옥이 수용자의 개성을 완전히 말살할 수 없듯이, 학교의 규율체계가 청소년의 정체성을 전적으로 억압할 수는 없는 것이다(박선웅, 2002). 학생들은 학교내에서의 “학생다움”의 통제에 저항하여 “표출적인 일탈”(expressive deviance)의 차원에서 교복치마 혹은 바지를 변형한다든지, 머리 길이를 조금 길게 한다든지 등의 행위형태로 규율적인 훈육에 소극적으로 저항하기도 하고, 학교의 훈육이 미치지 않는 시공간의 차원, 즉, 방과후의 학교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는 교복을 벗고, “학생다움”의 몸짓이나 행위와는 거리가 먼 행위를 하는 등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저항하기도 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출적 일탈의 차원에서의 훈육적 훈련에 대한 저항은 자발적이고 개성적이기는 하나 자율적인 규제하의 새로운 민주적인 질서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며, 말 그대로 미성숙한 일탈의 행위 차원에 머물러 버리는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반면, 이번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자아표출은 개성적이고 자발적인 표출이면서도 전체 청소년들의 자율적인 규제하에 놓여진, 지극히 민주적인 상징의 표출이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을 지니고 있다.

이번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붉은 악마로부터 공급받은 여러 가지 상징표출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붉은 T셔츠를 입고, 페이스 페인팅이나 보디 페인팅을 하였으며, 태극기를 옷이나 목도리, 망토 등으로 착용

한 채 한국 경기의 응원에 나섰으며, 한국 경기 승리에 대한 염원을 대~한민국, 오! 필승 꼬레아~등의 구호와 몸짓으로 나타내고, 한국 경기 승리의 때 순간의 기쁨을 옆사람과의 하이파이브, 팔짱이나 어깨동무, 포옹 등의 몸짓으로 나타내었으며, 경기가 끝난 후에도 거리행진이나 차량응원 등의 행위로 한국 경기 승리에 대한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2 년 7 월 서울시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경험적인 자료에 따르면,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전체 청소년들의 79.9%가 붉은 T-셔츠를 입고 응원에 참여했으며, 43.2%가 페이스 페인팅이나 바디 페인팅을 하고 응원에 참여했으며, 태극기를 옷이나, 목도리, 망토 등으로 사용하여 태극기 응원을 펼친 경우가 63.7%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청소년의 64.6%가 거리행진에 참여한 바가 있으며, 차량에 올라타는 등의 차량을 이용한 응원경험의 비율도 27.4%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옆사람과의 하이파이브나, 팔짱, 어깨동무, 포옹 등으로 한국경기의 응원과 기쁨의 순간을 표출한 청소년들도 58.5%에서 7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한민국이나 오! 필승 꼬레아~등의 구호와 몸짓으로 응원한 비율도 89.7%에서 90.1%의 비율로 나타났다.

거리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만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수치가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데, 거리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붉은 T-셔츠를 착용한 적(89.9%)이 있으며, 상당수가 페이스 페인팅이나 바디 페인팅(54.7%)을 한 경험이 있으며, 엄숙한 권위의 상징이었던 태극기를 옷이나 목도리, 망토(79.5%) 등으로 착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거리응원에 참여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보편적으로 한국 경기의 승리와 여가즐김의 재미추구를 위해 옷이나 그림 등을 수단적 도구로 활용하여, 일상적인 인상관리(impression management)를 표출적인 일탈(expressive deviance)의 차원으로까지 적극적으로 확대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나 “오! 필승 꼬레아~”등의 응원 구호와 몸짓을 사용해서 한국 경기의 승리 기원과 여가즐김의 재미를 추구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각각 96.0%, 96.8%로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해당되며, 옆사람과의 하이파이브를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85.2%, 팔짱이나 어깨동무를 해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75.4%, 포옹이 69.6%, 거리행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84.6%의 비율로 나타나 몸짓이나 신체적 행위를 수단으로 삼아, 적극적인 자기표출을 한 경우도 상당수에 달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거리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옷이나 그림, 구호, 몸짓, 신체적 행위 등을 수단으로 삼아, 일상적인 보수적 행위질서로부터 이탈하여, 한국 경기의 응원과 축제적 여가즐거움을 위한 자신의 개성적인 의사표시를 주저없이 적극적으로 하였음을 의미한다. 그러면서도 그러한 여러 가지 개성적인 자아표현과 연출을 미성숙한 이탈의 차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합의된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규제하에 두는 성숙함까지 결들인 자아표현이었다는 점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체험으로 인식될 수 있다.

3) 신공동체주의적 질서의식

청소년 월드컵 응원참여의 세번째 신문화체험적 특징으로는, 이처럼, 2002 월드컵 청소년 거리응원문화가, 과거의 집단주의에 바탕을 둔 강제나 타율보다는,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응원의 의사표시에 기초하고 있으면서도, 오프라인 상에서의 새로운 의사소통양식을 바탕으로 높은 정서적 일체감을 형성하고, 상당히 높은 질서의식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2002 월드컵 청소년 거리응원문화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개성적 자아표출에 바탕을 두면서도, 외국의 홀리건과 같은 폭력적인 장면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호존중, 놀라운 자기통제와 질서의식, 쓰레기 치우기와 같은 신공동체주의적 문화 특징을 나타내었다는 점이 중요한 또 하나의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전성우, 2002).

또한, 그동안 입시교육에 찌들어있던 청소년들, 치열한 취직경쟁에 시달리던 대학생들, 사회적 이슈에는 무관심한 채 연예인들이나 사이버 공간 게임에 열중하던 젊은이들, 가부장제의 남성우월주의가 아직도 건재한 한국 사회에서 자신을 드러낼 기회가 적었던 젊은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느라 외출 한번 번번히 못하던 가정주부들, 사회적 소외감을 어느 계층보다도 절실하게 느끼던 노인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한꺼번에 길거리로

나와 한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치며 환호했던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적 연대감의 진정한 사회적 의미는 그 개방성에 있다. 붉은 티셔츠를 입고 길 거리에 나선 것만으로도 모두 붉은 악마가 되고, 낯선 사람과 스스럼없이 어깨동무를 하고, 외국팀의 활약에도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는 모습이야 말고 기존의 모든 사회적 문화적 장벽을 깨트린 참된 힘이었으며, 참여를 주저하던 사람들까지 거리로 나오게 한 원동력일 것이다(이윤희, 2002).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2 년 7 월 서울시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경험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거리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70.9%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거리낌없이 하이파이브나 어깨동무, 포옹 등의 몸짓을 주고 받은 바가 있으며, 85.8%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하철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대~한민국”의 구호를 주고받은 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 3> 거리응원 참여자들의 타인과의 소통방식의 분포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거리응원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외쳐본 적이 있다	3.4	2.7	21.1	72.7
거리응원장소에서 처음 보는 사람들과 거리낌없이 하이파이브(손뼉 마주치기), 어깨동무, 포옹 등을 한 적이 있다	11.2	18.0	21.4	49.5
집으로 돌아가는 길(지하철, 신호등 등에서)에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대~한민국 등의 응원구호를 외쳐본 적이 있다	4.0	10.1	19.8	66.0
월드컵 응원기간중에 월드컵과 관련하여 인터넷 게시판등에 남이 올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15.5	14.6	29.9	40.0
월드컵 응원기간중에 월드컵과 관련하여 인터넷 게시판등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23.5	31.9	19.7	24.9

자료: 이경상(2002), “월드컵관련 청소년의식조사 결과”

이는 월드컵 거리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상당수가 일시적이거나 오프

라인상에서 낯선 사람과의 일체적 소통감을 형성하는 체험을 경험했음을 의미한다. 한편, 거리응원 참여 청소년들의 69.9%가 인터넷 게시판에 월드컵과 관련하여 남이 올린 글을 읽은 적이 있으며, 44.6%가 인터넷 게시판에 월드컵과 관련하여 글을 올린 적이 있음을 보여주어, 거리응원동안에도 N 세대의 청소년들에게 인터넷은 여전히 중요한 의사소통 매개체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리응원동안의 공동체적 질서의식도 아주 높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십만의 군중이 운집한 가운데서도 청소년 거리응원 경험자의 74.9%가 월드컵 기간 중 안전사고를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78.2%가 옆사람이랑 사소한 말다툼이상의 갈등을 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 거리응원 참여자의 75.0%가 옆사람을 위해 약간이라도 자리를 내어 준 경험이 있으며, 56.2%가 거리응원동안에 가져온 물과 음식을 남들과 나눠 먹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타인에 대한 배려가 거리응원동안에 잘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 거리응원 참여자의 80.5%가 길거리 응원에서 깔고 앉았던 종이, 음료수병, 휴지 등을 청소한 후에 귀가했다고 응답하여, 사회에 대한 배려도 거리응원동안에 잘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I- 4> 거리응원 과정의 청소년 시민 질서의식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월드컵 응원기간중 응원과 관련해서 안전 사고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	45.5	29.4	14.4	10.8
길거리 응원에서 옆사람이랑 사소한 말다툼이상의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54.0	24.2	12.5	9.3
길거리 응원기간 중 옆사람을 위해 약간이라도 자리를 내어준 경험이 있다	8.0	16.9	40.8	34.2
응원기간 중 가져온 물과 음식을 남들과 나눠먹은 적이 있다.	19.2	24.5	30.4	25.8
길거리 응원에서 깔고 앉았던 종이, 음료수병, 휴지 등 청소를 한 후에 귀가했다	6.6	13.9	39.5	41.0

자료: 이경상(2002), “월드컵관련 청소년의식조사 결과”

이처럼, 한국경기의 승리에 대한 기원과 재미를 추구하기 위해, 월드컵 거리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자기표현에 바탕을 두면서도, 높은 정서적 일체감과 수준높은 질서의식 등의 신공동체주의적 문화체험을 삶의 질서로써 내면화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4) 거리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

청소년 월드컵 응원참여의 네 번째 신문화체험적 특징으로는 거리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들 수 있다. 기존의 청소년문화가 게임방, 노래방, 피씨방 등 주로 밀폐된 공간에서 폐쇄적, 단절적으로 이뤄져오던 것인데 반해, 이번 청소년 월드컵 응원에의 참여는 크고 작은 개방된 광장에서 청소년들이 모여 스스로의 문화를 형성, 창출하고 유지, 발전시켜 나갔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의 청소년들이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자주 가는 공간은 카페가 23.9%, 패스트푸드점이 20.9%, 전자오락실 10.3%, 당구장 및 볼링장 5.7%의 순으로 나타났고, 또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자주 가는 공간은 노래방이 24.8%, 전자오락실 10.6%, 호프집 및 소주방이 8.2%, 공연장 및 극장이 5.9%인 것으로 나타나(고성혜 외, 1996). 우리 청소년들은 주로 밀폐된 공간을 중심으로 친구를 만나고, 여가를 보내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순수한 의미에서의 청소년 거리문화는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부분적으로 존재하는 기존의 청소년 거리문화는 주로 기존의 문화단체가 공연을 하거나, 이벤트 회사가 공연을 기획하고, 일반 청소년들은 적극적인 참여자가 아니라 단순히 소극적인 구경꾼의 입장에서 참여하여, 길거리 농구, 노래자랑, 춤경연, 악기연주, 묘기부리기 등과 같이 청소년들이 직접 참가해서 스스로의 문화감수성과 창조력을 키우는 기회는 많이 갖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이용교, 1999).

반면, 이번 월드컵 거리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밀폐된 공간이 아닌, 개방된 대형광장에서 소극적인 구경꾼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직접 참여하여 여러 가지 구호라든지, 상징표출이라든지, 새로운 의사소통의 방식이라든지, 신공동체적 질서의식의 퍼포먼스를 직접 체험하고, 유지하고,

연출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청소년들의 문화체험과는 다른 새로운 체험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2 년 7 월 서울시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경험적인 자료에 따르면, 이번 월드컵 거리응원에의 참여문화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거리응원문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거리응원 참여자들의 87.6%가 노래방, 피씨방보다 길거리 응원에의 참여가 더 좋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92.2%가 서울시청 앞을 시민광장으로 조성하는 데 동의의 뜻을 나타내고 있으며, 92.6%는 이번 월드컵과 같은 계기가 다시 한번 주어진다면, 다시 거리응원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거리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는 월드컵 축구경기의 응원이라는 목적외에 다른 여가즐거움이 목적이 되는 곳에서도, 또한, 여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적, 정치적인 이슈가 목적이 되는 곳에서도 부분적으로 청소년들의 새로운 문화로 전이되어 정착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5) 외국에 대한 개방적 태도

청소년 월드컵 응원참여 경험의 다섯 번째 신문화체험적 특징으로는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신감에 기초한 외국에 대한 개방적 태도를 들 수 있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2 년 7 월 서울시 거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본 연구자가 직접 조사한 경험적인 자료에 따르면, 우선, 우리 청소년들은 90.2%가 월드컵으로 말미암아 한국에서 태어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93.4%가 우리도 노력하면 얼마든지 세계 정상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89.7%의 청소년들이 이번 월드컵 대회 유치로 말미암아 한국의 대외 이미지도 부드러운 문화적인 이미지로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신감을 읽을 수 있다.

한편, 그런 가운데서도, 월드컵 응원 참여 청소년들의 75.0%가 월드컵 기

간 중 한국과의 경기외에 외국선수들끼리만의 경기에도 관심을 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85.4%가 우리를 이긴 다른 외국팀에도 마땅히 승리의 축하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또한 외국사람들에게 배타적으로 대해서도 안된다는 생각을 표명한 청소년들이 전체 청소년의 8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한국에 대한 애국심과 자신감이 수구적인 자만감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외국과의 공존의 질서를 염두에 둔 개방적 태도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월드컵 신문화체험의 청소년 정책적 함의

이번 청소년 월드컵 거리응원 참여의 사회문화적인 맥락은 국가권력과 경제권력과 문화권력이 조성해 놓은 사회구조적 여건과 붉은 악마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문화적 여건의 바탕위에서 N 세대의 한계를 내재적으로 극복해가던 새로운 세대의 청소년들이 한국경기의 승리와 여가즐거움의 재미추구를 위해 월드컵 응원마당에 뛰어든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청소년 월드컵 거리응원 참여자의 신문화체험적인 특징은 자발적 참여, 적극적이고 개성적인 자아표출, 그리고 자발성과 적극성에 기초하면서도 수준높은 질서의식과 공동체 의식들을 보여주는 신공동체주의적 문화적 특징들, 거리문화에 대한 개방적 태도, 한국에 대한 자신감과 외국에 대한 개방적 태도들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청소년 월드컵 거리응원 참여가 이뤄진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신문화체험의 특징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기존의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우리 청소년들이 일으킨 공동체주의적 문화혁명과도 같은 것으로 보는 시각을 그대로 수용해도 좋을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콘서트 문화와 같이 우리 청소년들이 심각한 의미부여없이 그저 즐기기 위한 놀이문화의 외연이 월드컵이라는 축제마당에서 단순히 확대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 시각에 동의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우선, 마치 청소년들이 공동체주의적 문화혁명이라도 일으킨 것처럼 과잉

확대하는 해석의 위험성을 경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월드컵을 통해 우리 청소년들에게 일정부분 체화된 신공동체적 징후들은 그 자체가 행위의 목표가 아니라 수단이므로, 과잉해석논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일정정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즉, 한국 축구경기의 승리라는 목적과 놀이문화의 단순한 재미추구가 아닌, 자원봉사와 같은 공동체적 가치의 실현이 목적이 되는 곳에서도 자발성과 적극성과 같은 이번 월드컵 응원문화에 발현된 수단적 행위들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을 지 의문스럽다. 또한, 공동체적 가치나 공동의 이익실현이 목적이 아니고, 개인적인 이익실현이 목적이어서 서로간의 욕구와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경우에도, 이러한 공존의 질서의식이 나타날 수 있을 지도 미지수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청소년들의 월드컵 신문화체험에 대해 아무 것도 아닌양 과소평가하는 것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개인주의적인 합리성을 바탕으로 파편화되어 있고, 때로는 이기적이라고 여겨졌던 청소년들이 수단으로서나마 신공동체주의적 체험을 경험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체험이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인 이익에만 집착하고 과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하는 기성세대의 천민적 문화속성에 비해 볼 때, 수단적인 차원에서의 자발성에 기초한 질서의식과 공동체적 의식은 상당히 가치있는 문화양식의 세대체험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자발성에 기초한 신공동체적 체험으로 요약되는 자신들의 신문화 세대체험을 우리 청소년들이 소중하게 살려나가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일상적인 여가사회화의 시각과 여가정책적인 측면에서 사회적인 지원도 뒤따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수단으로서 발현된 공동체적 징후나 높은 질서의식을 청소년들이 일상적인 여가문화에서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스포츠, 발표회, 음악회 등 창조적인 문화실험을 자발적으로 열고 즐길 수 있는 청소년 전용광장과 같은 크고 작은 장소들을 마련해주어야 하며, 자발적인 온-오프라인 연계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서 우리 “W 세대”의 청소년들이 축구경기 외에 다른 문화적인 욕구가 목적이 되는 행위에서도 자발성에 기초한 높은 질서의

식 등의 신공동체적 징후를 수단적인 체험으로 계속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전에, 우리 청소년들을 과도한 경쟁위주의 입시체제, 폭력, 유해 환경, 불법아르바이트에 의한 노동착취 등으로부터 해방시키고 보호하는 기존의 고민들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Ⅲ. 청소년의 월드컵경험과 평가

1. 조사의 개요
2. 월드컵 응원참여 경험
3. 월드컵대회의 평가
4. 월드컵의 영향과 효과
5. 응원참여 청소년의 특성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 개관

청소년층이 중심이 된 대규모의 거리·야외응원은 한국팀의 4 강 진출과 더불어 지난 해 월드컵대회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일정한 조직이나 동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대규모의 군중이 열광적이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응원에 참여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였던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주목되는 점은 거리와 광장을 메운 인파의 상당수가 학생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층이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페이스페인팅, 태극기패션 등 자유분방한 모습과 행동으로 젊음의 열기를 분출하면서도 끝까지 질서를 잃지 않았고, 응원이 끝난 뒤 거리정돈에 앞장 서는 등 새로운 응원문화를 주도해 갔다. 그동안 개인주의적·소비지향적 세대로 인식되어 온 청소년들의 새로운 모습을 월드컵을 계기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본 조사는 청소년들이 지난 해 여름 월드컵대회를 어떻게 경험하였고, 그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또한 월드컵대회가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이 무엇인지를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의 대상은 교급과 연령기준을 적용하여 중·고등학생과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연령층에 해당하는 24 세 이하의 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크게 청소년들의 월드컵 응원참여 경험과 월드컵대회에 대한 평가, 월드컵이 우리사회와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과 효과, 월드컵 응원참여 청소년의 특성의 네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월드컵 응원참여 경험에서는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월드컵 응원에 참여하였고, 어떤 방식으로 우리 팀을 응원하였는지를 조사하였다. 월드컵대회의 평가에서는 청소년들이 지난 해 월드컵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대회 성공에 기여한 요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다루었다. 월드컵의 영향과 효과에서는 월드컵대회의 경험이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한 월드컵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느끼고 경험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지난 해 월드컵의 응원참여 여부 및 참여빈도를 기준으로 청소년들을 세가지 그룹으로 유형화한 뒤, 집단간 비교를 통하여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밖에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관련한 배경변인(성, 교급, 연령 등)들이 조사문항에 포함되었다.

나. 표집 및 조사방법

조사의 표본은 조사대상 모집단을 성(남/여), 교급(중학교/인문계고등학교/실업계고등학교/대학교)별로 층화한 뒤, 전국을 행정구역 기준으로 5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 모집단 인구비례에 의거하여 총 2,500 명의 표본을 할당하였다.

조사대상 학교의 선정은 다음의 방식에 의거하였다. 먼저 전국을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5개 권역(서울/경인/충청·강원/전라/경상)으로 구분하고, 각 권역별로 광역시 1개 지역과 시·군부 2개지역을 선정하여 총 13개지역을 조사거점으로 선정하였다. 대학교는 각 권역별로 1-2개교, 중·고등학교는 각 조사거점별로 2-3개교씩 유의선정하여 최종 조사대상이 된 학교는 모두 35개교였다.

조사는 구조화된 조사표에 의거한 자계식(自計式) 방식으로 중·고교생은 학급단위의 집단조사, 대학생은 조사원을 통한 개별조사의 방식으로 2003년 7월에서 8월초까지 약 한달간에 걸쳐서 수행되었다. 총 2,500부의 조사표를 배포하여 자료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대상이 된 조사표는 2,306매였다.

조사결과의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차분석,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의 방식으로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의 유의도 수준은 95%, 99%, 99.9%의 세가지로 구분하였고 모든 통계표에서 각각 $*(p<0.05)$, $** (p<0.01)$, $*** (p<0.001)$ 의 표식을 사용하였다.

다.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분석의 대상이 된 표본(2,306 명)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가 50.3%로서 여자보다 다소 많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41.2%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교생(37.3%), 대학생(21.6%)의 순이었다. 고교생은 계열별 모집단의 인구를 고려하여 인문계와 실업계의 비율을 7:3 이 되도록 조정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9%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부(29.6%), 광역시(26.8%), 군부(11.1%)의 순으로서, 실제 모집단 인구비율에 비해 군부가 과소표집되었다. 이것은 본 조사가 학교·학급단위(중·고등학교)로 수행되었는데, 농촌지역에 학교가 드물고 학급 인원도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과 관련이 있다.

표본의 연령층은 당초 만 24 세까지로 한정하였으나 조사과정에서 25 세 연령층이 일부 포함되어(14 매, 0.6%), 만 11 세에서 25 세까지 분포되어 있고, 전체 평균연령은 16.4 세였다.

<표 III- 1> 표본의 특성

		(단위: 명, %)	
		빈도	비율
계		2,306	100.0
성 별	남 자	1160	50.3
	여 자	1146	49.7
교 급	중학생	950	41.2
	고교생	859	37.3
	- 인문계	(598)	(69.6)
	- 실업계	(261)	(30.4)
	대학생	497	21.6
만연령	(평균)	2,306	16.4
지 역	서 울	724	31.4
	광역시	717	31.1
	시군부	865	37.5
월드컵개최	비개최지역	927	40.7
	개최지역	1348	59.3
	(무응답)	(31)	(1.3)

2. 월드컵 응원참여 경험

여기서는 청소년들의 월드컵 응원참여 경험과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응원행태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응원참여 경험에서는 집 이외의 장소에서 벌어진 야외응원의 참여경험과 유형별 참여빈도를 조사한다. 응원행태에서는 청소년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응원에 참여하였는지 또한 응원방식에 있어서 나타나는 성·교급별 하위집단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석한다.

가. 월드컵 응원참여 경험

지난 해 월드컵대회 기간 중 집 이외의 장소에서의 야외응원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전체의 78.5%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집에서만 관람한 청소년은 1/5 남짓한 수준이었다.

하위집단별로는 여자의 79.3%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자(78.5%)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다. 집밖에서의 응원참여율에서 남녀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응원참여율이 89.1%로서 가장 높았고, 고교생(76.8%)과 중학생(74.4%)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교급별 응원참여율의 차이는 월드컵에 대한 관심의 차이라기 보다는 학교수업 등으로 중·고교생이 대학생보다 상대적으로 참여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III- 2> 월드컵 야외응원 참여 경험

(단위: %)

	없 다	있 다
계	21.5	78.5
남 자	22.3	77.7
여 자	20.7	79.3
중학생	25.6	74.4
고교생	23.2	76.8
대학생	10.9	89.1

통계: 성별 $\chi^2=0.92$, 교급 $\chi^2=43.80^{***}$

지난 해 월드컵 응원의 참여형태는 매우 다양하였다. 집에서 관람한 경우를 제외하고 응원형태를 유형화하면, 1) 경기장에 직접 입장하여 응원하거나, 2) 길거리나 광장 등 야외에서 전광판을 보면서 응원한 경우, 3) 전광판이 설치된 야구장·운동장 등 대형 공공시설에서 관람한 경우, 4) 학교강당, 식당 등 실내공간에서 TV 나 대형 모니터를 보면서 응원한 경우의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야외응원의 네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자신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또한 있다면 몇번이나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길거리/광장 응원 경험자가 전체의 과반수를 상회하여 가장 많았고(56.6%), 다음으로 실내공간(47.7%), 대형 공공시설(38.8%)의 순이었고, 직접 경기장에서 관람한 청소년도 1 할을 상회하였다(10.9%). 길거리/광장 응원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가장 보편화된 야외응원의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응원참여 빈도에서 있어서도 길거리/광장 응원은 두번 이상 참여한 청소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다른 유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3> 야외응원 유형별 참여빈도

(단위: %)

	없다	있 다			
		한번	두번	3-4 번	5 번+
월드컵경기장(직접 입장해서)	89.1	7.6	1.6	1.2	0.5
전광판이 설치된 길거리/광장(시청앞, 광화문 등의 거리응원)	43.3	20.9	17.4	13.7	4.6
전광판이 설치된 대형 공공시설(야구장, 공설운동장 등)	61.2	21.9	8.8	5.9	2.2
TV/대형모니터가 있는 실내공간(강당, 식당, 카페, 영화관 등)	52.5	25.8	11.1	7.2	3.6

집밖에서의 응원참여 경험에 대한 응답결과를 성별로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월드컵 경기장에서 직접 경기를 관람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남자(15.0%)가 여자(6.8%)의 두 배 이상에 달하고, TV/대형모니터가 있는 실내공간에서의 응원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도 남자(50.5%)가 여자(44.5%)보다 훨씬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전광판이 설치된 길거리/광장이나 대형 공공시

설에서의 응원경험자 비율은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표 III- 4> 야외응원 참여경험자 비율: 성별

	“참여/관람 경험 있다”	
	남자	여자
월드컵경기장	15.0	6.8
전광판이 설치된 길거리/광장	58.2	55.3
전광판이 설치된 대형 공공시설	37.9	39.7
TV/대형모니터가 있는 실내공간	50.5	44.5

한편 교급별로 참여경험자의 비율을 비교하면, 네가지 시설/장소 모두 대학생의 참여경험자가 가장 많았고, 특히 TV/대형모니터가 있는 실내공간에서 응원경험이 있는 대학생이 73.4%에 달하여 중·고등학생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중·고교생의 시설/장소별 응원참여 경험자 비율은 월드컵경기장과 전광판이 설치된 대형 공공시설은 중학생이, 전광판이 설치된 길거리/광장과 TV/대형모니터가 있는 실내공간은 고교생이 더 많은 편이었다.

<표 III- 5> 야외응원 참여경험자 비율: 교급별

	“참여/관람 경험 있다”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월드컵경기장	12.1	7.2	14.9
전광판이 설치된 길거리/광장	49.3	60.3	64.4
전광판이 설치된 대형 공공시설	41.6	33.6	42.3
TV/대형모니터가 있는 실내공간	36.8	44.4	73.4

야외응원의 네가지 유형 중에서 특히 길거리/광장응원은 수많은 군중이 참여하여 질서정연하게 응원을 펼침으로써 국내외 매스컴의 주목을 받은 새로운 형태의 응원문화라고 할 수 있다. 폐쇄된 공간에서 제한된 인원의 참여하에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다른 응원과는 길거리/광장응원은 달리 개방된 공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군중들의 비조직적 응원이라는 점에서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

다른 응원과 구분되는 길거리/광장응원의 이와 같은 특성을 고려하여 야외응원 참여유형을 “시설형 응원참여”와 “광장형 응원참여”로 구분하고 하위집단별로 그 참여빈도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각 유형별 참여빈도의 점수는 광장형은 길거리/광장 응원 참여빈도의 응답결과 점수를, 시설형은 나머지 세가지 유형(월드컵경기장, 대형 공공시설, 실내공간)의 응원참여 빈도 점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먼저 시설형 응원참여 빈도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1.60)가 여자(1.50)보다 많았고,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참여빈도가 가장 높았고(1.74), 중학생(1.53)이 중간이었으며, 고교생이 가장 낮았다(1.46). 사후검증(Duncan) 결과 세 집단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시설형 응원참여는 주로 남자,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표 III- 6> 시설형 응원참여 빈도 평균값

	평균	표준편차
계	1.55	0.60
남 자	1.60	0.65
여 자	1.50	0.54
중학생 ^a	1.53	0.64
고교생 ^b	1.46	0.56
대학생 ^c	1.74	0.56

통계: 성별 $F=14.83^{***}$, 교급 $F=12.04^{***}$ (a-b-c)

한편 광장형 응원참여 빈도는 성별로는 시설형과는 달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참여빈도가 가장 높고(2.31), 다음으로 대학생(2.18), 중학생(1.99)의 순이었다. 사후검증(Duncan) 결과 고교생·대학생집단과 중학생의 참여빈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고교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부담도 불구하고 대학생보다 참여빈도가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III- 7> 광장형 응원참여 빈도 평균값

	평균	표준편차
계	2.15	1.24
남 자	2.17	1.24
여 자	2.13	1.24
중학생 ^a	1.99	1.22
고교생 ^b	2.31	1.31
대학생 ^c	2.18	1.12

통계: 성별 F=0.64, 교급 F=22.22*** (a-b/c)

이상의 응답결과 분석을 통해 야외응원 참여에 있어서 길거리/광장응원과 다른 형태의 응원은 하위집단별 분포에 있어서 뚜렷하게 대비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시설형 응원참여는 남자, 대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길거리/광장응원에서는 여자도 남자와 대등한 수준으로 참여하였고, 고교생의 참여빈도가 대학생보다 높은 점이 특징적이다.

나. 월드컵 응원행태

지난 해 월드컵 기간 중에 나타난 청소년들의 응원참여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모두 여섯가지의 응원 응원행태를 예시하고 자신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응원한 경험이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조사항목으로 예시한 여섯가지 응원방식 중에서 “응원 구호를 외치거나 응원가를 따라 불렀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6.3%로서 가장 많았고, “붉은 색의 T-셔츠를 착용하였다”(70.4%), “다른 사람들과 어깨 동무하거나 춤을 추며 응원하였다”(57.7%), “태극기 등 응원도구/소품을 활용하여 응원하였다”(54.9%)의 응답률이 과반수를 상회하였으며, “한국팀을 응원하는 글귀나 그림이 있는 옷을 착용하였다”(36.0%), “얼굴이나 몸에 글이나 그림(페인팅)을 그려넣었다”(35.5%)고 응답한 청소년도 3 할을 상회하였다.

<표 III- 8> 월드컵 응원행태

	(단위: %)	
	없다	있다
붉은 색의 T-셔츠를 착용하였다	29.6	70.4
얼굴이나 몸에 글이나 그림(페인팅)을 그려넣었다	64.5	35.5
한국팀을 응원하는 글귀나 그림이 있는 옷을 착용하였다	64.0	36.0
태극기 등 응원도구/소품을 활용하여 응원하였다	45.1	54.9
응원구호를 외치거나 응원가를 따라 불렀다	13.7	86.3
다른사람들과 어깨동무하거나 춤을 추며 응원하였다	42.3	57.7

응원참여 방식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를 보면, 모든 항목에서 남자보다는 여자의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자가 보다 적극적인 형태로 응원에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붉은 색 T-셔츠 착용과 태극기 소품 활용, 페이스(보디) 페인팅은 월드컵 기간 중 나타난 새로운 형태의 응원방식으로서 매스컴을 통해 이른바 “월드컵패션”으로 지칭되기도 하였다. 월드컵 패션의 경험자 비율은 붉은 색 T-셔츠 착용은 남녀간의 차이가 근소하였으나, 페이스 페인팅, 태극기 등 소품활용은 여자가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월드컵을 계기로 한 새로운 응원문화가 여자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 9> 월드컵 응원행태: 성별

	(단위: %)	
	“경험 있다”	
	남자	여자
붉은 색의 T-셔츠를 착용하였다	68.7	72.2
얼굴이나 몸에 글이나 그림(페인팅)을 그려넣었다	24.1	46.9
한국팀을 응원하는 글귀나 그림이 있는 옷을 착용하였다	34.8	37.2
태극기 등 응원도구/소품을 활용하여 응원하였다	48.3	61.5
응원구호를 외치거나 응원가를 따라 불렀다	81.8	90.9
다른사람들과 어깨동무하거나 춤을 추며 응원하였다	55.4	59.9

응원참여 방식의 교급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붉은 색

T-셔츠 착용과 페이스 페인팅은 중학생이, 태극기 등 소품 활용은 고교생의 경험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그밖의 세가지 형태의 응원참여 방식은 모두 대학생 경험자가 가장 많았다. 이른바 월드컵 패션으로 지칭되는 새로운 응원방식이 대학생보다는 중·고교생들 사이에서 성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 10> 월드컵 응원행태: 교급별

	(단위: %)		
	“경험 있다”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붉은 색의 T-셔츠를 착용하였다	74.0	69.5	65.0
얼굴이나 몸에 글이나 그림(페인팅)을 그려넣었다	37.2	34.6	33.7
한국팀을 응원하는 글귀/그림이 있는 옷을 착용하였다	34.9	35.1	39.6
태극기 등 응원도구/소품을 활용하여 응원하였다	54.8	58.5	48.8
응원구호를 외치거나 응원가를 따라 불렀다	83.9	87.9	88.3
다른사람들과 어깨동무하거나 춤을 추며 응원하였다	43.8	61.6	77.3

3. 월드컵대회의 평가

2002 년 월드컵대회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청소년들은 월드컵대회에서의 우리 팀의 성적을 어떻게 예상하였는지를 조사하고, 월드컵대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각 부문별 평가의 내용을 검토한다. 또한 월드컵대회 성공의 기여요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유형화하여 분석할 것이다.

가. 월드컵 성적 예상

월드컵이 개최되기 이전에 한국팀의 성적을 어떻게 예상하고 있었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16 강 진출을 예상한 청소년이 절반 정도로서 가장 많았고(48.6%), 다음으로 1 승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 청소년이 약 2 할 수준이었다(19.8%). 4 강 진출 이상을 예상한 청소년은 14.2%에 불과하여,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지난 해 월드컵에서의 한국팀의 성적은 예상을 뛰어넘은 기대 이상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II- 11> 한국팀의 예상 성적

	(단위: %)					
	1 승도 어렵다	1 승은 가능	16 강 진출	8 강 진출	4 강 진출	결승전 진출
계	8.6	19.8	48.6	8.9	3.9	10.3
남 자	8.5	19.5	47.2	7.9	3.8	13.0
여 자	8.6	20.1	50.0	9.8	4.0	7.6
중학생	9.9	17.4	41.0	11.6	5.2	14.8
고교생	9.0	20.8	51.5	6.5	3.1	9.2
대학생	5.2	22.7	57.7	7.8	2.8	3.6

통계: 성별 $\chi^2=19.80^{**}$, 교급 $\chi^2=98.20^{***}$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먼저 성별로는 4 강 진출 이상의 성적을 예상한 청소년이 남자가 16.8%로서 여자보다 월등하게 많았다. 교급별

로는 4 강 진출 이상을 예상한 청소년의 비율이 중학생이 20.0%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교생(12.3%), 대학생(6.4%)의 순이었다. 전체적으로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대학생보다는 중학생이 한국팀의 성적을 높게 예상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나. 월드컵 평가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지난 해 월드컵이 성공한 행사였는지 아니면 실패한 행사였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크게 성공한 행사였다가 48.6%, 성공한 행사였다가 41.4%로서 9 할에 달하는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성공한 행사로 평가하였다. 보통 수준의 행사였다는 응답은 7.8%에 머물렀고, 실패한 행사로 평가한 청소년은 극소수였다(2.3%).

하위집단별로 성공한 행사였다는 응답률을 비교하면, 성별로는 여자가 92.2%로서 남자(87.6%)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91.4%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학생(90.0%), 대학생(87.3%)의 순이었다. 남자보다는 여자, 대학생보다는 중·고교생이 월드컵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 12> 월드컵대회의 전체적인 평가

	(단위: %)				
	크게 실패한 행사였다	실패한 행사였다	보통수준의 행사였다	성공한 행사였다	크게 성공한 행사였다
계	1.1	1.2	7.8	41.4	48.6
남 자	1.5	1.4	9.6	40.5	47.1
여 자	0.7	1.1	6.0	42.2	50.0
중학생	1.4	1.4	7.2	36.1	53.9
고교생	0.8	1.3	6.6	38.6	52.8
대학생	1.0	0.8	10.9	56.1	31.2

통계: 성별 $\chi^2=14.88^{**}$, 교급 $\chi^2=83.68^{***}$

구체적으로 월드컵행사의 각 부문별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경기내용 및 시민참여와 관련된 다섯가지의 부문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하여 응답하게 하였다. 각 부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의 응답률(훌륭했다)을 비교하면, “시민들의 응원참여 정도”가 90.9%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관중들의 관전태도/매너”(77.1%), “경기의 전반적인 수준”(70.1%), “시민들의 공중질서의식”(68.9%)의 순이었으며 “경기진행/운영의 측면”이 가장 낮았다(69.8%). 전체적으로 모든 부문에 대하여 과반수 이상이 훌륭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경기의 내용이나 진행의 측면보다는 시민 참여의 측면에 대한 평가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13> 월드컵대회의 부문별 평가

	(단위: %)				
	매우 미흡했다	미흡했다	보통수준	훌륭했다	매우 훌륭했다
경기의 전반적인 수준	2.9	4.9	22.1	50.1	20.0
경기진행/운영의 측면	2.3	6.8	30.1	45.0	15.8
관중들의 관전태도/매너	2.5	4.8	15.7	36.3	40.8
시민들의 응원참여 정도	2.3	1.2	5.6	23.1	67.8
시민들의 공중질서의식	4.1	7.3	19.7	36.3	32.6

청소년들의 각 부문별 월드컵 평가에 대한 응답결과를 유형화하여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표 III- 14> 월드컵대회의 부문평가: 회전된 요인행렬표

	요인	
	I	II
시민들의 공중질서의식	0.854	
관중들의 관전태도/매너	0.818	
시민들의 응원참여 정도	0.712	
경기진행/운영의 측면		0.882
경기의 전반적인 수준		0.861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요인 수 2 지정, 직교회전

요인 I 에는 “시민들의 공중질서의식” “관중들의 관전태도/매너” “시민들의 응원참여”의 세가지 항목이, 요인II에는 “경기 진행/운영의 측면” “경기의 전반적인 수준”의 두가지 항목이 포함되었다. 각 요인의 구성항목의 내용을 고려하여 요인 I 을 월드컵경기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와 태도”로, 요인II를 “경기의 내용 및 수준”으로 명명하고 월드컵 부문별 평가의 척도로 활용하였다. 두 요인의 요인점수 평균값과 척도로서의 신뢰도(Cronbach' α)는 다음과 같다.

<표 III- 15> 월드컵대회 부문별 평가척도

	척도점수 평균	표준편차	척도신뢰도 계수
시민참여와 태도	4.15	0.82	0.79
경기의 내용 및 수준	3.72	0.83	0.81

주: 척도점수는 문항별 응답결과(1-5) 합산 후 문항수로 나눈 값을 사용함

월드컵 부문별 평가척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시민들의 참여와 태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여자(4.23)가 남자(4.08)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급별로는 고교생(4.21)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대학생(4.18)이 중간이었으며, 중학생(4.09)의 평가가 가장 낮았다. 사후검증(Duncan) 결과 중학생과 고교생·대학생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 16> 시민들의 참여와 태도 평균값

	평균	표준편차
계	4.15	0.82
남 자	4.08	0.87
여 자	4.23	0.76
중학생 ^a	4.09	0.90
고교생 ^b	4.21	0.77
대학생 ^c	4.18	0.72

통계: 성별 F=13.24***, 교급 F=3.37**(a-b/c)

경기의 내용과 수준에 대해서도 여자(3.76)가 남자(3.68)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평균값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교급별로는 고교생(3.80)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학생(3.69), 대학생(3.63)의 순이었다. 사후검증 결과, 고교생과 중학생·대학생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 17> 경기의 내용과 수준 평균값

	평균	표준편차
계	3.72	0.83
남 자	3.68	0.89
여 자	3.76	0.77
중학생 ^a	3.69	0.92
고교생 ^b	3.80	0.79
대학생 ^c	3.63	0.71

통계: 성별 F=3.25*, 교급 F=5.36***(b-a/c)

전체적으로 볼 때, 청소년들은 월드컵의 경기내용/수준보다는 시민들의 참여와 태도를 더욱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경기내용/수준과 시민참여/태도의 양 부문 모두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중학생이나 대학생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월드컵성공의 기여요인

앞서의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통해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지난 월드컵대회를 성공적인 행사로 평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는 월드컵대회의 성공에 기여한 요인에 대하여 청소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월드컵대회 성공의 요인으로서 모두 11 가지의 항목을 선정하여 제시하고 그 기여도를 평가하게 하였다. 각 항목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각 항목별 긍정응답률을 비교하면, “선수들의 단결과 조직력”이 95.3%로

서 가장 높았고, “히딩크 감독의 전술/지도력”(95.0%), “붉은 악마 등 서포터즈의 활동”(92.3%)도 9 할 이상의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음으로는 “스타플레이어의 능력”(88.4%), “청소년/청년세대의 관심과 참여”(88.3%), “인터넷의 역할(정보제공, 시민참여 등)”(81.6%)의 긍정응답률이 8 할을 상회하였으며, “TV, 신문 등 매스컴의 역할”(79.0%), “부모세대(성인)들의 관심과 참여”(79.0%), “월드컵 경기장 시설 및 관련설비”(77.3%), “월드컵조직위원회/축구협회의 역할”(72.8%)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청소년이 7 할 이상이었으며,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57.1%)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표 III- 18> 월드컵 성공의 기여요인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히딩크 감독의 전술/지도력	2.1	2.8	49.5	45.5
스타플레이어의 능력	2.1	9.5	60.5	27.9
선수들의 단결과 조직력	1.5	3.1	49.8	45.5
부모세대(성인)들의 관심과 참여	3.5	17.4	53.5	25.5
청소년/청년세대의 관심과 참여	2.3	9.4	45.3	43.0
붉은 악마등 서포터즈의 활동	2.0	5.7	38.2	54.1
인터넷의 역할(정보제공, 시민참여 등)	3.3	15.0	49.4	32.2
TV, 신문 등 매스컴의 역할	3.7	17.3	50.5	28.5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7.7	35.2	43.3	13.8
월드컵조직위원회/축구협회의 역할	5.4	21.7	52.5	20.3
월드컵 경기장 시설 및 관련설비	4.5	18.2	52.4	24.9

이상의 응답결과에서 특징적인 사항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시민들의 참여와 응원도 높이 평가하지만, 직접 경기에 참여한 한국팀의 감독과 선수들의 노력이 월드컵 성공에 보다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한국팀이 월드컵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 배경으로서 몇몇 스타플레이어의 능력보다는 전체 선수들의 단결과 조직력에 보

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셋째, 기성세대보다는 청소년 자신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 높이 평가하고 있고, 넷째, TV·신문과 같은 일반 대중매체보다는 인터넷이 월드컵대회의 성공에 보다 많이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월드컵대회의 운영과 진행을 담당한 공공부문에 대한 평가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III- 19> 월드컵 성공의 기여요인: 회전된 요인행렬표

	요인		
	I	II	III
청소년/청년세대의 관심과 참여	0.783		
붉은 악마등 서포터즈의 활동	0.752		
인터넷의 역할(정보제공, 시민참여 등)	0.739		
TV, 신문 등 매스컴의 역할	0.660		
부모세대(성인)들의 관심과 참여	0.646		
월드컵조직위원회/축구협회의 역할		0.848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0.819	
월드컵 경기장 시설 및 관련설비		0.726	
히딩크 감독의 전술/지도력			0.783
스타플레이어의 능력			0.769
선수들의 단결과 조직력			0.750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고유치 1 이상, 직교회전

월드컵 성공의 기여요인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유형화하여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모두 3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I에는 “청소년/청년세대의 관심과 참여” “붉은 악마등 서포터즈의 활동” “인터넷의 역할” “TV, 신문 등 매스컴의 역할” “부모세대(성인)들의 관심과 참여”의 4 가지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모두 월드컵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반영하는 항목들이라 할 수 있다. 요인 II에는 “월드컵조직위원회/축구협회의 역할”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월드컵 경기장 시설 및 관련설비”의 3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월드컵의 준비 및 운영과 관련

된 공공부문의 역할로 분류될 수 있다. 요인Ⅲ에는 “히딩크 감독의 전술/지도력” “스타플레이어의 능력” “선수들의 단결과 조직력” 등 직접 경기에 참여한 감독·선수들의 능력·역할과 관련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 요인별 구성항목의 내용을 고려하여 각각 “사회적 관심과 참여” “공공부문 역할과 시설” “감독·선수의 능력과 역할”로 명명하고 척도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항목별 점수 평균값 및 신뢰도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척도점수의 평균값을 비교해 보면, 청소년들은 월드컵 성공의 기여요인으로서 “감독·선수의 능력과 역할”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그 다음이며, “공공부문의 역할과 시설”을 가장 낮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 20> 월드컵 성공의 기여요인 척도

	척도점수 평균	표준편차	척도신뢰도 계수
사회적 관심과 참여	3.17	0.58	0.84
공공부문의 역할과 시설	2.82	0.67	0.81
감독·선수의 능력과 역할	3.30	0.53	0.76

주: 척도점수는 최소 1- 최대 5 의 값으로 표준화

성·교급별 하위집단의 각 척도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표 Ⅲ- 21>).

먼저 “사회적 관심과 참여”에 대해서는 성·교급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3.22)가 남자(3.13)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교급별로는 대학생(3.22)의 평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교생(3.21), 중학생의 순이었다. 사후검증 결과 중학생과 고교생·대학생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공공부문의 역할과 시설에서는 성별로는 여자의 평가가 남자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평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교생, 대학생의 순이었다. 사후검증 결과 중학생과 고교생·대학생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 21> 사회적 관심과 참여 평균값

	평균	표준편차
계	3.17	0.58
남 자	3.13	0.63
여 자	3.22	0.53
중학생 ^a	3.11	0.64
고교생 ^b	3.21	0.55
대학생 ^c	3.22	0.50

통계: 성별 $F=4.21^{***}$, 교급 $F=2.91^{***}(a-b/c)$

<표 III- 22> 공공부문의 역할과 시설 평균값

	평균	표준편차
계	2.82	0.67
남 자	2.81	0.73
여 자	2.84	0.61
중학생 ^a	2.86	0.73
고교생 ^b	2.83	0.66
대학생 ^c	2.74	0.59

통계: 성별 $F=0.45$, 교급 $F=2.38^{**}(a-b/c)$

감독·선수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는 성·교급 변인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높게 평가하였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평가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교생, 대학생의 순이었다.

<표 III- 23> 감독·선수의 능력과 역할 평균값

	평균	표준편차
계	3.30	0.53
남 자	3.26	0.56
여 자	3.35	0.48
중학생 ^a	3.36	0.56
고교생 ^b	3.31	0.51
대학생 ^c	3.18	0.47

통계: 성별 $F=4.46^{***}$, 교급 $F=5.07^{***}(a/b-c)$

4. 월드컵의 영향과 효과

2002년 월드컵대회가 미친 영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월드컵대회의 개최경험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월드컵대회 관람을 통해 국가 이미지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월드컵대회의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의식상의 변화를 겪었는지를 유형화하여 분석할 것이다.

가. 월드컵의 영향평가

월드컵대회의 개최경험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사회발전과 관련된 모두 6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응답하게 하였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이 92.4%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들의 시민의식의 발전”(84.3%),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79.7%), “한국의 문화/예술수준의 발전”(78.0%), “국민들의 여가/문화생활의 발전”(74.7%)의 순이었으며, “한국의 정치적인 민주화와 발전”(54.2%)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표 III- 24> 월드컵대회의 영향

	(단위: %)	
	영향이 없을 것이다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의 정치적인 민주화와 발전	45.8	54.2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	20.3	79.7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	7.6	92.4
한국의 문화/예술수준의 발전	22.0	78.0
국민들의 시민의식의 발전	15.7	84.3
국민들의 여가/문화생활의 발전	25.3	74.7

모든 항목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률이 과반수를 상회하여 청소년들이 월드컵대회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과 “시민의식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것은 국제적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어었다는 자신감과 월드컵기간 중 확인된 시민들의 높은 질서의식이 청소년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월드컵대회의 영향에 대한 성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면, “국민들의 여가/문화생활의 발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률이 여자가 남자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가 남자보다 월드컵대회의 의의와 영향력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 25> 월드컵대회의 영향: 성별

	(단위: %)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자	여자
한국의 정치적인 민주화와 발전	51.1	57.2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	78.7	80.8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	90.3	94.5
한국의 문화/예술수준의 발전	74.7	81.3
국민들의 시민의식의 발전	82.1	86.6
국민들의 여가/문화생활의 발전	74.9	74.5

월드컵대회의 영향에 대한 교급별 응답결과는 각 항목별로 상이한 분포를 나타내었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정치발전과 경제성장의 측면에 대해서는 중학생이 가장 높았고, 문화/예술 발전과 시민의식 발전에 대해서는 고교생이,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과 여가/문화생활 발전에 대해서는 대학생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표 III- 26> 월드컵대회의 영향: 교급별

(단위: %)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학생	고교생	대학생
한국의 정치적인 민주화와 발전	60.7	54.0	42.2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	80.5	79.5	78.8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	90.9	93.2	93.9
한국의 문화/예술수준의 발전	76.9	81.8	73.7
국민들의 시민의식의 발전	82.2	86.1	85.3
국민들의 여가/문화생활의 발전	71.4	76.8	77.2

나. 월드컵과 국가선호도 변화

축구가 세계적으로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로 자리잡게 되면서 월드컵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행사의 차원에서 벗어나 국가대표팀간의 경기를 통해 통해 자국의 국제적인 이미지를 형성해 가는 중요한 계기로 인식되고 있다.

지난 해 월드컵대회의 경험은 청소년들의 국가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월드컵대회 관람 후의 국가 이미지의 변화 정도를 질문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국가는 우리와 대진경험이 있는 국가(폴란드, 미국,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터키) 7 개국과 공동개최국인 일본과 중국을 포함한 9 개국이었다.

각 국가별 이미지 변화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응답결과를 먼저 이미지의 변화 유무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다수인 국가가 6 개국(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일본, 중국)이었고, 변화가 있다는 응답이 다수인 국가가 3 개국(미국, 이탈리아, 터키)이었다.

변화의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지가 호전된 국가는 모두 6 개국으로서 좋아졌다(훨씬 좋아졌다 포함)는 응답률이 터키가 51.7%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폴란드(34.1%), 포르투갈(25.9%), 일본(22.1%), 독일(21.2%), 스페인(21.1%)의 순이었다. 터키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이미지가 호전되었다고 응답한 것은 월드컵기간 중 한국전쟁 참전국으로서 우리의 혈맹

이라는 인식이 크게 부각된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미지가 악화된 국가는 3 개국인데, 나빠졌다(훨씬 나빠졌다 포함)는 응답률이 이탈리아가 54.3%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미국(49.1%), 중국(19.7%)의 순이었다. 이탈리아는 경기 후의 판정논란이 이미지 악화의 주된 요인이라 할 수 있고, 미국은 경기 자체보다는 월드컵 기간 중에 발생한 미군장갑차 사건과 그 이후의 SOFA 개정을 둘러싼 반미 여론이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된다.

<표 III- 27> 월드컵대회와 국가 이미지 변화

	(단위: %)				
	훨씬 나빠졌다	나빠졌다	변화가 없다	좋아졌다	훨씬 좋아졌다
폴 란 드	2.3	4.4	59.2	27.9	6.2
미 국	20.6	28.5	41.3	8.1	1.5
포르투갈	5.1	12.9	56.2	20.9	5.0
이탈리아	26.9	27.4	34.3	8.8	2.6
스 페 인	4.4	9.5	64.9	16.9	4.2
독 일	7.3	12.7	58.8	15.9	5.3
터 키	3.1	4.8	40.3	31.8	19.9
일 본	8.7	10.0	59.2	17.5	4.6
중 국	8.9	10.8	68.0	9.6	2.6

국가별 이미지 변화에 대한 응답결과를 유형화하여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I 에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폴란드가 요인 II 에는 일본, 중국, 독일이 요인 III 에는 이탈리아, 터키, 미국이 각각 포함되었다. 각국별 이미지 변화에 대한 응답결과를 고려하면, 요인 I 은 월드컵을 계기로 이미지가 호전된 국가, 요인 II 는 이미지의 변화가 거의 없는 국가, 요인 III 은 이미지가 큰 폭으로 변화한 국가들로 유형화할 수 있다.

요인 I 에 포함된 국가들은 모두 월드컵에서 우리팀에 패전한 경험이 있고 경기 이후에 심각한 판정논란이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요인 II 로 분류

된 일본과 중국은 우리와 대전경험이 없는 국가들이고, 독일은 우리팀이 패전하였지만 승부 자체가 국가 이미지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요인Ⅲ으로 분류된 국가들은 모두 우리팀과 대전경험이 있는데, 이탈리아는 경기 후의 판정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미지가 크게 악화된 반면, 터키와 미국은 경기외적 요인들로 이미지가 크게 변한 것으로 추측된다.

<표 Ⅲ- 28> 월드컵대회와 국가 이미지 변화: 회전된 요인행렬표

	요 인		
	I	Ⅱ	Ⅲ
포르투갈	0.789		
스 페 인	0.760		
폴 란 드	0.710		
일 본		0.809	
중 국		0.692	
독 일		0.524	
이탈리아			0.755
터 키			-0.591
미 국			0.511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고유치 1 이상, 직교회전

성·교급별 하위집단의 국가 이미지 변화의 차이점을 파악하기 위해 요인Ⅲ으로 분류된 3개국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미국의 경우 월드컵을 계기로 이미지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성별로는 여자가 52.9%로서 남자(45.1%)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55.3%로서, 대학생(45.6%), 중학생(45.1%)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팀과 한국팀의 경기가 무승부로 끝났고 경기 후 판정에 대한 논란도 없었음을 감안하면, 미국의 이미지가 이처럼 크게 악화된 것은 경기 자체의 요인이라기 보다는 월드컵 기간 중 발생한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 사건이 그 결정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들이 월드컵을 단순한 축구경기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역학관계의 측면에서 관망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II- 29> 국가 이미지 변화: 미국

	(단위: %)				
	훨씬 나빠졌다	나빠졌다	변화가 없다	좋아졌다	훨씬 좋아졌다
남 자	19.1	26.0	42.2	10.9	1.8
여 자	22.0	30.9	40.4	5.3	1.3
중학생	21.1	24.0	42.7	10.1	2.0
고교생	25.0	30.3	35.7	7.8	1.3
대학생	11.9	33.7	48.5	4.8	1.0

통계: 성별 $\chi^2=30.45^{***}$, 교급 $\chi^2=65.51^{***}$

이탈리아의 경우, 남자의 56.6%가 이미지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하여 여자(52.0%)보다 많았으며,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은 여자(38.8%)가 남자(29.9%)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이미지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대학생이 60.0%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교생(55.3%), 중학생(50.4%)의 순이었다.

<표 III- 30> 국가 이미지 변화: 이탈리아

	(단위: %)				
	훨씬 나빠졌다	나빠졌다	변화가 없다	좋아졌다	훨씬 좋아졌다
남 자	28.7	27.9	29.9	10.0	3.5
여 자	25.0	27.0	38.8	7.6	1.7
중학생	28.3	22.1	36.6	9.5	3.6
고교생	27.7	27.6	33.0	9.1	2.6
대학생	22.8	37.2	32.3	6.9	0.8

통계: 성별 $\chi^2=27.31^{***}$, 교급 $\chi^2=45.02^{***}$

월드컵을 계기로 이미지가 크게 호전된 터키의 경우, 남자의 56.7%가 이미지가 좋아졌다고 응답하여 여자의 응답률(46.8%)을 크게 상회하였다. 교급별로는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응답률이 대학생이 59.2%로서 가장 높고, 고교생(52.2%)이 중간이었으며, 중학생(47.4%)이 가장 낮았다.

<표 III- 31> 국가 이미지 변화: 터키

	훨씬 나빠졌다	나빠졌다	변화가 없다	좋아졌다	훨씬 좋아졌다
남 자	4.0	4.2	35.0	33.4	23.3
여 자	2.2	5.4	45.6	30.3	16.5
중학생	5.4	6.7	40.5	25.5	21.9
고교생	2.4	5.0	40.5	31.8	20.4
대학생	0.2	1.0	39.6	43.8	15.4

통계: 성별 $\chi^2=38.24^{***}$, 교급 $\chi^2=93.51^{***}$

다. 월드컵과 생활·의식 변화

한국에서 개최된 국제행사 중에서 지난 해 월드컵대회만큼 일반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회가 진행된 한달여의 기간 동안 월드컵은 가정과 직장,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로 부각되었고, 응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인원이 수백만에 달하는 새로운 기록을 남기도 하였다.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인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월드컵경험은 그들의 생활·의식에 큰 영향을 미쳤으리라 짐작된다.

지난 해 월드컵대회가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을 생활·의식의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이를 위하여 월드컵대회와 관련된 생활·의식 체험을 설명하는 모두 19 가지의 항목을 제시하고 그 경험 여부와 정도를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전체 항목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긍정응답률의 순위별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가 87.7%로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월드컵기간 중 경기장과 거리에서 전개된 질서정연한 응원이 청소년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서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86.2%),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86.2%)는 청소년이 8 할 이상에 달하여, 국제적인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신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83.3%), “응원을 하면서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81.6%),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81.5%), “규칙과 룰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81.1%), “타고난 능력 못지않게 훈련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80.4%)는 응답이 8 할을 상회하여, 월드컵을 통해 축구경기 자체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스포츠에 내재된 사회적 원칙을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 32> 월드컵대회와 생활·의식의 변화

	(단위: %)
	긍정응답률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83.3
스포츠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65.0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	86.2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85.6
국가/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53.0
앞으로 국가적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느꼈다	66.6
규칙과 룰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81.1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87.7
우리사회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76.7
응원을 하면서 부모세대와의 유대감을 느꼈다	62.8
응원을 하면서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81.6
외국문화/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51.2
우리가 지구촌사회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77.2
외국인을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느꼈다	53.9
평소에는 모르던 사람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45.2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81.5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흥분과 자극을 느낄 수 있었다	72.3
타고난 능력 못지않게 훈련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80.4
공부 이외에도 무언가 특기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77.1

주: 4 점척도의 응답항목 중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결과만을 합산하였음

이밖에 “우리가 지구촌사회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였다”(77.2%), “공부 이외에도 무언가 특기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77.1%), “우리사회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76.7%),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흥분과 자극을 느낄 수 있었다”(72.3%)고 응답한 청소년이 7 할을 상회하였고, “앞으로 국가적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느꼈다”(66.6%), “스포츠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65.0%), “응원을 하면서 부모세대와의 유대감을 느꼈다”(62.8%)는 응답이 6 할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을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느꼈다”(53.9%), “국가/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53.0%), “외국문화/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51.2%)의 긍정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지만,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행사를 통해 과반수 이상의 청소년이 국제교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월드컵대회의 경험이 청소년들의 생활·의식에 미친 영향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위의 응답결과에 대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분석으로 요인을 추출하였고, 요인회전은 직교회전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네가지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Ⅰ에는 모두 6 가지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축구라는 스포츠에 내재된 규범적 원칙들에 대한 인식을 통해 공중도덕, 노력의 중요성과 같은 사회적 원칙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요인Ⅱ에 포함된 5 가지 항목의 내용은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스포츠에 대한 관심 증대와 더불어 국가적 자부심과 자신감을 얻게 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요인Ⅲ에 포함된 5 가지 항목은 월드컵이라는 국제적인 행사를 계기로 지구촌 시민으로서의 자기인식을 갖게 되고 국제적인 차원의 인적·문화적 교류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Ⅳ에는 3 가지 항목이 포함되었는데, 월드컵대회의 관람과 응원참여를 통해 흥분과 자극을 경험하고 평소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 33> 월드컵대회와 생활·의식 변화: 회전된 요인행렬표

	요 인			
	I	II	III	IV
공중도덕/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0.805			
규칙과 물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0.757			
우리사회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0.622			
타고난 능력 못지않게 훈련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0.545			
공부 이외에도 무언가 특기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0.456			
앞으로 국가적인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고 느꼈다	0.451			
스포츠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0.789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0.763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		0.584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0.559		
국가/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0.553		
외국인을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느꼈다			0.767	
외국문화/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0.735	
평소에는 모르던 사람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0.679	
우리가 지구촌사회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0.531	
응원을 하면서 부모세대와의 유대감을 느꼈다			0.421	
지금까지 체험 못했던 흥분과 자극을 느낄 수 있었다				0.767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0.758
응원을 하면서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0.532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요인수 4 지정. 직교회전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이상의 4 가지 요인을 척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각각 “사회적 원칙의 확인”(요인 I), “국가적 자부심/자신감”(요인 II), “국제적 관심/유대감”(요인 III), “스트레스 해소”(요인 IV)로 명명하고 척도점수와 척도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4 요인 모두 Cronbach 의 α 값이 0.7 이상으

로서 척도로서의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II- 34> 생활·의식 변화 척도 평균값

	척도점수 평균값	표준편차	척도신뢰도 계수
사회적 원칙의 확인	2.98	0.57	0.83
국가적 자부심/자신감	2.96	0.60	0.83
국제적 관심/유대감	2.65	0.62	0.78
스트레스 해소	3.02	0.70	0.79

주: 척도점수는 최소 1- 최대 5 의 값으로 표준화

월드컵이 청소년 생활·의식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네가지 척도의 성·교급별 하위집단의 점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원칙의 확인” 척도에서는 성·교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2.94)보다는 여자(3.01)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고교생(3.02)이 중학생(2.96), 대학생(2.93)보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는데, 사후검증(Duncan) 결과, 고교생과 대학생 집단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II- 35> 사회적 원칙의 확인 평균값

	평균	표준편차
계	2.98	0.57
남 자	2.94	0.60
여 자	3.01	0.53
중학생 ^a	2.96	0.61
고교생 ^b	3.02	0.56
대학생 ^c	2.93	0.49

통계: 성별 F=2.82**, 교급 F=1.39*(c/a-a/b)

“국가적 자부심/자신감”에 대한 응답결과는, 먼저 성별로는 남자(2.97)가 여자(2.96)보다 척도점수가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급별로는 고교생(3.00)의 점수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

학생(2.95), 대학생(2.91)의 순이었다. 사후검증 결과, 고교생과 대학생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 36> 국가적 자부심/자신감 평균값

	평균	표준편차
계	2.96	0.60
남 자	2.97	0.64
여 자	2.96	0.55
중학생 ^a	2.95	0.65
고교생 ^b	3.00	0.57
대학생 ^c	2.91	0.54

통계: 성별 F=0.03, 교급 F=1.50*(c/a-a/b)

“국제적 관심/유대감” 척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교급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고교생의 척도점수가 가장 높고(2.69), 대학생 고교생과 비슷한 수준인 반면, 중학생의 척도점수는 두 집단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었다. 사후검증 결과 중학생과 대학생·고교생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여자(2.67)가 남자(2.62)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 37> 국제적 관심/유대감 평균값

	평균	표준편차
계	2.65	0.62
남 자	2.62	0.66
여 자	2.67	0.58
중학생 ^a	2.59	0.67
고교생 ^b	2.69	0.60
대학생 ^c	2.68	0.56

통계: 성별 F=1.32, 교급 F=7.20**(a-b/c)

“스트레스 해소” 척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성별로는 여자(3.05)가 남자

(2.99)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급별로는 대학생(3.11)이 가장 높고, 이어서 고교생(3.09), 중학생(2.91)의 순이었다. 사후검증 결과 중학생과 고교생·대학생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 38> 스트레스 해소 평균값

	평균	표준편차
계	3.02	0.70
남 자	2.99	0.72
여 자	3.05	0.67
중학생 ^a	2.91	0.74
고교생 ^b	3.09	0.68
대학생 ^c	3.11	0.60

통계: 성별 F=1.85, 교급 F=21.35*** (a-b/c)

이상의 네가지 척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월드컵효과의 성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월드컵을 통해 사회적 원칙을 확인하게 되었다는 응답률이 여자가 남자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다른 세가지 척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중학생이나 대학생에 비해 월드컵을 통해 많은 생활·의식의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생은 “사회적 원칙의 확인” “국가적 자부심/자신감” “국제적 관심/유대감”의 세가지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반면, 대학생은 “스트레스 해소” 척도에서만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중학생은 모든 척도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5. 응원참여 청소년의 특성

여기서는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특징을 설문조사 결과의 분석을 통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앞서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월드컵 응원에 참여경험이 있지만,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도 2 할 수준에 달한다(<표 III-2> 참조, p. 85). 또한 참여정도에 있어서 청소년들 사이에 많은 편차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월드컵응원에 참여한 집단과 비참여집단, 적극적인 참여집단과 소극적인 참여집단간의 비교를 통해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가. 변인구성과 일반특성

월드컵 응원참여 정도별 하위집단은 본 조사의 응원참여 여부, 참여빈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절차에 따라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먼저, 응원참여 여부의 구분은 집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응원한 경험을 기준으로 하였다(<표 III-3> 참조, p. 86). 이에 따라 집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TV 를 시청하면서 응원한 경우는 “비참여집단”으로, 집 이외의 시설/공간(경기장, 거리, 광장, 공공시설 등)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응원한 경우는 “참여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다음으로, 응원참여 빈도를 기준으로 참여집단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청소년들의 유형별 야외응원 참여빈도의 평균값을 산출한 뒤, 평균 이하의 참여 그룹을 “일반적(소극적) 참여집단”으로, 평균보다 많이 참여한 그룹을 “적극적 참여집단”으로 명명하였다(이하 각각 “일반참여 집단” “적극참여 집단으로 표기함).

마지막으로 월드컵경기가 개최되지 않은 지역의 청소년들은 하위집단 구분에서 제외하였다. 지난 해 월드컵 응원이 주로 개최도시의 거리/광장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비개최지역의 청소년들은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상의 절차에 따라 월드컵 응원참여 정도에 따른 하위집단이 다음과 같

이 설정되었다. 월드컵이 개최된 지역의 청소년 1,379 명 중에서 비참여집단이 17.2%, 일반참여 집단이 46.3%, 적극참여 집단이 36.5%로서 일반참여 집단에 속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표 III- 39> 응원참여 정도별 집단분포

(단위: 명, %)		
	빈도	비율
계	1,379	100.0
비참여	237	17.2
일반참여	638	46.3
적극참여	504	36.5

각 집단별 청소년의 신분적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여자의 83.4%가 응원 참여집단에 속하여 남자(82.3%)보다 다소 많았지만, 적극참여 집단은 남자가 더 많았다. 교급별로는 참여집단의 비율이 대학생(89.4%)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교생(83.8%), 중학생(77.2%)의 순이었다. 성·교급별 하위집단의 분포를 비교하면, 대학생 남자의 응원참여율이 90.7%로서 가장 많았고, 중학생 남자가 72.1%로 가장 적었다. 대학생과 고교생은 남자의 참여율이 여자보다 높은 수준인 반면, 중학생은 여자가 남자보다 응원에 참여한 비율이 더 높았다.

<표 III- 40> 응원참여 정도별 집단분포: 성·교급별

(단위: %)				
비참여 집단		참여집단		
		계	일반참여	적극참여
남 자	17.7	82.3	43.1	39.2
여 자	16.6	83.4	49.9	33.5
중학생	22.9	77.2	47.7	29.5
고교생	16.2	83.8	46.6	37.2
대학생	10.6	89.4	43.9	45.5

통계: 성별 $\chi^2=6.85^*$, 교급 $\chi^2=34.80^{***}$

월드컵 응원참여 하위집단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지역별로는 시군부 청소년의 비참여집단의 비율이 가장 많았지만, 적극참여 집단의 청소년도 시군부가 가장 많은 것이 특징적이다. 세 집단의 지역별 분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밖에 부친의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에 있어서도 세 집단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중·고교생만을 대상으로 한 학업성적별 분포에서도 어떤 특징적인 경향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표 III- 41> 응원참여 정도별 집단분포: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

		비참여	일반참여	적극참여
거주지역 ¹⁾	서울	16.3	47.3	36.4
	광역시	17.4	46.6	36.1
	시군부	20.8	39.2	40.0
부친학력 ²⁾	중학교 졸업 이하	21.9	46.1	32.0
	고등학교 졸업	17.0	46.7	36.3
	전문대학 졸업	19.0	38.1	42.9
	대학교 졸업	15.2	48.9	35.8
	대학원 졸업	17.0	37.7	45.3
경제수준 ³⁾	매우 못사는 편	15.2	36.4	48.5
	중간보다 못사는 편	17.7	46.3	36.0
	중간수준	18.1	46.9	34.9
	중간보다 잘사는 편	13.6	45.7	40.7
	매우 잘사는 편	19.2	34.6	46.2
학교성적 ⁴⁾	매우 못하는 편	26.2	41.5	32.3
	중간보다 못하는 편	18.5	44.0	37.5
	중간수준	20.6	49.2	30.2
	중간보다 잘하는 편	17.5	49.8	32.7
	매우 잘하는 편	20.8	40.3	39.0

통계: 1) $\chi^2=3.13$, 2) $\chi^2=9.66$, 3) $\chi^2=7.80$, 4) $\chi^2=7.89$

주: 4) 학교성적은 중·고교생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임

월드컵 응원참여 정도별 하위집단의 신분적·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세 집단간에 어떤 뚜렷한 차이점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여자의 참여율이 남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적극적 참여집단의 비율은 오히려 남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고교생이 대학생보다 참여율이 낮은 편이지만, 이것은 응원에 대한 관심의 차이보다는 학교수업 등으로 인한 행동상의 제약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타 다른 변인들, 즉, 거주지역이나 부친의 학력, 가정의 경제수준, 학교 성적에 있어서는 세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분석을 통해 지난 해 월드컵대회의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특정 성이나 지역, 계층, 학교성적에 편중되지 않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일반 청소년들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 월드컵경험과 평가

월드컵 응원의 참여 경험에 있는가의 여부는 월드컵대회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수많은 인파가 운집한 길거리/광장 등 야외에서 단체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군중 속에서 느끼는 정서적·심리적 상승효과와 공동체적 유대감의 체험을 통해 월드컵대회가 갖는 의의와 그 영향에 대해 집에서 TV로만 관람한 청소년들과는 다른 인식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먼저 월드컵대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응원참여 하위집단별 응답결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월드컵이 성공한 행사였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을 보면, 비참여 집단이 83.5%인 반면, 참여집단은 두 집단 모두 9 할을 상회하여 응원참여 경험 유무에 따라서 월드컵에 대한 평가가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 42> 월드컵대회의 전체적인 평가: 응원참여 정도별

(단위: %)

	크게 실패한 행사였다	실패한 행사였다	보통수준의 행사였다	성공한 행사였다	크게 성공한 행사였다
계	1.1	1.2	7.8	41.4	48.6
비 참여	2.1	2.5	11.9	43.2	40.3
일반참여	0.0	1.4	8.0	41.4	49.2
적극참여	1.2	0.4	6.8	41.5	50.1

통계: $\chi^2=26.04^{**}$

월드컵의 각 부문별 평가에 있어서는 먼저, 시민들의 참여와 태도의 측면에서 일반참여 집단의 척도점수가 가장 높고(4.22), 비참여집단의 점수가 가장 낮았다. 경기의 내용과 수준의 측면에서도 참여집단의 척도점수가 모두 3.7 을 상회하는 반면, 비참여 집단은 3.57 로서 낮은 수준이었다. 사후 검증(Duncan) 결과, 시민참여와 태도 변인에서는 비참여 집단과 참여집단간의 차이가, 경기 내용/수준 변인에서는 세 집단간의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 43> 월드컵대회의 부문별 평가: 응원참여 정도별

		평균	표준편차
시민참여와 태도 ¹⁾	계	4.15	0.82
	비 참여 ^a	4.03	0.87
	일반참여 ^b	4.22	0.68
	적극참여 ^c	4.19	0.79
경기의 내용/수준 ²⁾	계	3.72	0.83
	비 참여 ^a	3.57	0.81
	일반참여 ^b	3.77	0.74
	적극참여 ^c	3.79	0.84

통계: 1) $F=5.49^{**}(a-b/c)$, 2) $F=6.96^{**}(a-b-c)$

주: 각 척도의 하위변인 구성은 <표 III-14>(p. 94) 참조

월드컵 성공의 기여요인에 대한 응원참여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하

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관심과 참여” “공공부문의 역할과 시설” “감독·선수의 능력과 역할”이라는 세가지 변인(척도)을 구성하여 그것이 월드컵 성공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는지를 측정하였다.

먼저 사회적 관심과 참여에 대한 척도점수 평균값은 적극참여 집단(3.24)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참여 집단(3.19), 비참여 집단(3.04)의 순이었다. 사후검증 결과 비참여집단과 참여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공공부문의 역할과 시설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극참여 집단(2.83)과 일반참여 집단(2.81)이 비슷한 수준이고, 비참여 집단(2.71)이 가장 낮았다. 비참여 집단과 적극참여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감독·선수의 능력과 역할에서는 일반참여 집단의 척도점수가 가장 높고(3.32), 다음으로 적극참여 집단(3.28), 비참여 집단(3.22)의 순이었다. 사후검증 결과 비참여 집단과 일반참여 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표 III- 44> 월드컵 성공의 기여요인: 응원참여 정도별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관심과 참여 ¹⁾	계	3.17	0.58
	비참여 ^a	3.04	0.60
	일반참여 ^b	3.19	0.53
	적극참여 ^c	3.24	0.57
공공부문의 역할과 시설 ²⁾	계	2.82	0.67
	비참여 ^a	2.71	0.69
	일반참여 ^b	2.81	0.63
	적극참여 ^c	2.83	0.67
감독·선수의 능력과 역할 ³⁾	계	3.30	0.53
	비참여 ^a	3.22	0.51
	일반참여 ^b	3.32	0.47
	적극참여 ^c	3.28	0.57

통계: 1) $F=10.81^{***}(a-b/c)$, 2) $F=2.48(a/b-b/c)$, 3) $F=3.48^*(a/c-c/b)$

월드컵 성공의 기여요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참여집단과 비참여집단간의 차이가 세 변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월드컵에 대한 일반 국민/매스컴의 관심과 참여, 월드컵조직위원회 등 공공부문의 역할과 시설, 감독·선수의 능력과 역할이 월드컵대회 성공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드컵 경험을 통해 청소년들이 체험한 생활·의식의 변화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II- 45> 월드컵을 통한 생활·의식 변화: 응원참여 정도별

		평균	표준편차
사회적 원칙의 확인 ¹⁾	계	2.98	0.57
	비참여 ^a	2.86	0.58
	일반참여 ^b	2.96	0.54
	적극참여 ^c	3.07	0.56
국가적 자부심/자신감 ²⁾	계	2.96	0.60
	비참여 ^a	2.79	0.60
	일반참여 ^b	2.96	0.56
	적극참여 ^c	3.12	0.60
국제적 관심/유대감 ³⁾	계	2.65	0.62
	비참여 ^a	2.49	0.60
	일반참여 ^b	2.61	0.58
	적극참여 ^c	2.82	0.61
스트레스 해소 ⁴⁾	계	3.02	0.70
	비참여 ^a	2.74	0.75
	일반참여 ^b	3.02	0.65
	적극참여 ^c	3.26	0.62

통계: 1) F=11.99***(a-b-c), 2) F=25.90***(a-b-c), 3) F=29.30***(a-b-c),

4) F=52.43***(a-b-c)

“사회적 원칙의 확인” “국가적 자부심/자신감” “국제적 관심/유대감” “스

트레스 해소”의 네가지 변인(척도)에 대한 청소년들의 응답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월드컵 응원참여 정도별 하위집단간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네 변인 모두에서 적극참여 집단의 척도점수 평균값이 가장 높았고, 일반참여 집단이 중간이었으며, 비참여 집단이 가장 낮았다. 사후검증 결과 모든 변인에서 세 집단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일반 참여집단보다 월드컵을 계기로 사회적 원칙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되었고, 한국인 자부심과 긍지, 국제적인 관심과 유대감이 증진되었고, 일상생활의 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해소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월드컵대회가 우리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응원참여 집단과 비참여 집단간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월드컵의 개최경험이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과 시민의식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률은 일반참여 집단이 가장 높았고, 정치적인 민주화와 발전,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 문화/예술 수준의 발전, 여가/문화생활의 발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적극참여 집단이 가장 높았다.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가 우리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 46> 월드컵대회의 영향: 응원참여 정도별

	(단위: %)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계	비참여	일반참여	적극참여
한국의 정치적인 민주화와 발전	54.2	49.4	50.6	59.2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	79.7	75.3	79.8	83.1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	92.4	89.8	94.1	93.8
한국의 문화/예술수준의 발전	78.0	68.1	78.7	81.3
국민들의 시민의식의 발전	84.3	78.3	86.9	86.3
국민들의 여가/문화생활의 발전	74.7	62.1	75.5	80.3

다. 컴퓨터/인터넷 이용

지난 해 월드컵대회에서 나타난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정보통신 매체로서의 인터넷의 역할과 비중이 크게 증대되었다는 점이다. 청소년들은 인터넷의 각종 포털 사이트의 게시판을 중심으로 월드컵관련 각종 정보를 올리고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월드컵 열기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이에 따라 인터넷과 청소년들의 월드컵 응원참여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응원참여 하위집단의 인터넷에 대한 태도와 이용행태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하였다.

먼저, 현재 자신의 집에 컴퓨터가 있는지, 있다면 주로 사용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집에 컴퓨터가 없다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여(3.3%) 청소년을 자녀로 둔 거의 모든 가정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로 자신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70.2%로서 가정 많았고, 주로 다른 가족이 사용한다는 응답이 19.2%, 자기 혼자서만 사용한다는 응답은 7.3%였다.

월드컵 응원참여 하위집단의 응답결과를 보면, 컴퓨터를 주로 자신이 사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비참여집단의 경우 64.8%에 머문 반면, 일반참여 집단은 69.1%, 적극참여 집단은 73.0%에 달하였고, 주로 자기 혼자만 사용한다는 응답률도 참여집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가정에서의 컴퓨터 점유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III- 47> 컴퓨터 유무와 점유도: 응원참여 정도별

(단위: %)

	컴퓨터가 없다	있 다		
		주로 다른 가족이 사용	주로 내가 사용	주로 나혼 자만 사용
계	3.3	19.2	70.2	7.3
비 참 여	1.3	28.4	64.8	5.5
일반참여	3.0	21.8	69.1	6.2
적극참여	4.0	13.1	73.0	9.9

통계: $\chi^2=33.80^{***}$

먼저, 청소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인터넷/PC 통신”이 69.0%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텔레비전/라디오”(18.5%), “가족/친구/이웃”(8.9%)의 순이었으며 “신문/잡지”(3.5%)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전통적인 인쇄·영상매체의 영향력이 급격하게 약화되어 가는 한편,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드컵 응원참여 하위집단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인터넷의 응답률이 적극참여 집단이 72.4%로서 비참여 집단 10% 이상 높은 반면, TV/라디오의 응답률은 응원에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참여한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표 III- 48> 주된 정보입수 경로: 응원참여 정도별

	(단위: %)			
	TV/라디오	인터넷	신문/잡지	가족/친구/이웃
계	18.5	69.0	3.5	8.9
비 참여	23.3	62.3	3.4	11.0
일반참여	19.6	65.7	4.1	10.6
적극참여	15.9	72.4	4.6	7.1

통계: $\chi^2=12.95^*$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에서 “거의 매일”에 이르는 6 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거의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이 69.8%로서 다수를 점하였고, 다음으로 “일주일에 3-4 일”(16.7%), “일주일에 1-2 일”(8.3%)의 순이었으며, 한 달에 한두번 또는 그보다 적게 이용하는 청소년은 5% 수준에 머물렀다.

인터넷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률을 응원참여 하위집단별로 비교하면, 적극참여 집단이 73.6%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일반참여 집단(67.3%), 비참여 집단(61.9%)의 순이었다.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인터넷 이용빈도가 높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 49> 인터넷 이용빈도: 응원참여 정도별

(단위: %)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두세달 한번	한달 한 두번	일주일 1-2 일	일주일 3-4 일	거의 매일
계	2.3	1.1	1.7	8.3	16.7	69.8
비 참여	2.1	2.1	2.5	12.3	19.1	61.9
일반참여	2.0	0.9	1.3	9.9	18.5	67.3
적극참여	1.6	1.2	1.8	6.5	15.3	73.6

통계: $\chi^2=16.48$

청소년들의 인터넷이용시간대를 알아보기 위해 하루 중 가장 자주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간을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밤 10-12 시”가 26.4%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밤 8-10 시”(23.4%), “저녁 6-8 시”(21.1%), “저녁 6 시 이전”(18.8%)의 순이었으며, 밤 12 시 이후 새벽 시간대에 접속하는 청소년도 10.3%에 달하였다.

월드컵 응원참여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주로 밤 10 시 이후에 접속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적극참여 집단이 46.9%로서 가장 많았고, 일반참여 집단은 37.3%였으며, 비참여 집단은 28.5%로서 가장 적었다. 밤 12 시 이후 새벽에 접속하는 청소년의 비율도 적극참여 집단은 15.3%에 달하여 비참여집단(9.8%)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 50> 인터넷 이용시간대: 응원참여 정도별

(단위: %)

	저녁 6 시 이전	저녁 6- 8 시	밤 8-10 시	밤 10- 12 시	밤 12 시-새벽
계	18.8	21.1	23.4	26.4	10.3
비 참여	24.7	25.1	21.7	18.7	9.8
일반참여	20.6	20.8	21.4	27.4	9.9
적극참여	13.9	17.1	22.1	31.6	15.3

통계: $\chi^2=34.76^{***}$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다면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

예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매우 불편할 것이다”가 42.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약간 불편할 것이다”(42.0%),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11.6%)의 순이었으며,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4.1%)는 응답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전체적으로 8 할 이상이 불편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인터넷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불가결한 요소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월드컵 응원참여 하위집단별로는 불편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참여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고, 특히 적극참여 집단의 청소년은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49.7%에 달하여 39.6%에 머문 비참여집단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표 III- 51> “인터넷이 없다면...”: 응원참여 정도별

	(단위: %)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약간 불편할 것이다	매우 불편할 것이다
계	4.1	11.6	42.0	42.3
비 참여	4.7	14.0	41.7	39.6
일반참여	3.4	10.9	45.9	39.9
적극참여	3.4	10.3	36.6	49.7

통계: $\chi^2=15.75^*$

인터넷 이용과 관련된 이상의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상생활에서의 인터넷 활용도·의존도는 월드컵 응원참여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또한 참여집단 내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보다 컴퓨터 점유도와 인터넷 이용빈도, 정보매체로서의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 생활만족도 · 세대관

청소년들이 현재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자신의 각 생활영역에 대하여 “매우 불만”에서 “매우 만족”에 이르는 4 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여 그 평균값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가정생활, 학교생활, 여가생활의 영역에서는 세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자기동네와 친구관계의 두 영역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현재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와 자신의 친구관계에 대하여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또한 참여집단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이 일반참여 집단보다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표 III- 52> 생활영역별 만족도: 응원참여 정도별

		평균	표준편차
가정생활 ¹⁾	비 참여	2.84	0.76
	일반참여	2.86	0.72
	적극참여	2.85	0.75
학교생활 ²⁾	비 참여	2.62	0.74
	일반참여	2.71	0.71
	적극참여	2.71	0.72
자기동네 ³⁾	비 참여	2.63	0.82
	일반참여	2.72	0.68
	적극참여	2.78	0.73
친구관계 ⁴⁾	비 참여	3.08	0.68
	일반참여	3.13	0.66
	적극참여	3.21	0.66
여가생활 ⁵⁾	비 참여	2.85	0.80
	일반참여	2.83	0.72
	적극참여	2.94	0.75

통계: 1) F=0.02, 2) F=1.54, 3) F=3.65*, 4) F=3.66*, 5) F=2.93

주: 평균값(최소 1- 최대 4)이 클수록 만족도가 높은 수준임

청소년들이 자기세대를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모두 9 가지의 성격·행동 특성을 제시하고 기성세대와 비교하여 스스로 평가하게 하였다. 먼저 전체 응답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이 된 9 가지 성격·행동특성 중에서 긍정응답률이 과반수를 상회하는 것은 “개성적이다”(89.6%)와 “개성적이다”(89.0%)의 두 항목에 불과하였다. 나머지 항목들의 긍정응답률은 “합리적이다”(41.9%), “계획적이다”(38.0%), “정직하다”(23.6%), “예의바르다”(20.0%), “부지런하다”(16.1%), “인내심이 있다”(15.8%)의 순이었고, “검소하다”(13.6%)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표 III- 53> 청소년세대의 자기평가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개방적이다	3.0	8.1	53.0	36.0
부지런하다	15.8	68.1	13.6	2.5
인내심이 있다	20.3	63.9	13.3	2.5
정직하다	17.3	59.1	20.4	3.2
개성적이다	2.7	7.8	45.8	43.8
예의바르다	15.2	64.8	17.6	2.4
계획적이다	12.5	49.5	32.0	6.0
검소하다	24.9	61.5	11.1	2.5
합리적이다	14.9	43.1	35.2	6.7

월드컵 응원참여 정도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긍정응답률만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 걸쳐 적극참여 집단의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내심이 있다” “예의바르다” “검소하다”의 세 항목에 대해서만 비참여 집단의 응답률이 일반참여 집단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일 뿐 나머지 6 항목에서는 모두 일반참여 집단의 긍정응답률이 비참여 집단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

보다, 또한 적극적으로 참여한 청소년들일수록 자기세대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 54> 청소년세대의 자기평가: 응원참여 정도별
(단위: %)

	긍정응답률			
	계	비참여	일반참여	적극참여
개방적이다	89.0	86.4	89.4	91.6
부지런하다	15.0	12.7	15.0	16.0
인내심이 있다	15.8	16.7	13.4	17.2
정직하다	23.6	19.1	21.6	29.2
개성적이다	89.6	86.0	90.1	92.8
예의바르다	20.0	17.9	17.6	22.2
계획적이다	38.0	28.2	37.3	45.0
검소하다	13.6	13.2	12.0	14.8
합리적이다	41.9	40.0	42.1	50.3

마. 사회참여 관련

월드컵 응원참여 청소년들의 사회참여에 대한 태도를 알아 보기 위해 지난 해 연말에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여중생 사망사건의 촛불시위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또한 투표권이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 해 월드컵 기간 중에 실시된 지방선거(6.13)와 연말의 제 16 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였는지를 질문하였다.

먼저 촛불시위의 참여경험을 보면, 전체 청소년의 16.7%가 참여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응원참여 하위집단별로는 적극참여 집단이 23.6%, 일반참여 집단이 15.0%로서 두 집단 모두 비참여 청소년(6.8%)에 비해 2 배 이상의 참여율을 나타내었다.

월드컵 응원과 촛불시위는 각각 스포츠행사와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대응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집단에 있어서 높은 동질성이 발견된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만한 사실이라 할 수 있다. 월드컵 응

원 참여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국가적 행사에 동참하기 위한 공동체의식에서 기인한 것일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표 III- 55> 촛불시위 참여경험: 응원참여 정도별

	(단위: %)	
	없다	있다
계	83.3	16.7
비 참여	93.2	6.8
일반참여	85.0	15.0
적극참여	76.4	23.6

통계: $\chi^2=34.93^{***}$

한편 조사표본 중에서 투표권이 있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지난 해 지방선거(6.13)와 제 16 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였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지방선거에서는 비참여집단의 투표 참여율이 58.6%로서 참여집단 보다 높았고, 대통령선거에는 유사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연령층에 걸쳐 사회적 관심도가 워낙 낮은 수준이고 월드컵 기간과 중복되었기 때문에 참여집단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에, 대통령선거에서는 세 집단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과 쟁점에 대해서는 세 집단의 참여율이 동등한 수준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표 III- 56> 대학생의 선거투표율: 응원참여 정도별

	(단위: %)	
	투표 참여자의 비율	
	지방선거(6.13) ¹⁾	대통령선거(16 대) ²⁾
계	44.5	69.5
비 참여	58.6	73.3
일반참여	44.3	69.0
적극참여	42.3	72.2

통계: 1) $\chi^2=2.47$, 2) $\chi^2=0.36$

선거 참여의 측면에서는 월드컵 응원참여 하위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촛불시위의 참여율은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사회참여라는 포괄적인 주제에 대하여 제한된 자료로 접근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지만,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V. 청소년의 생활·의식 특성과 그 변화

1. 조사의 개요
2. 가족의식·가족관
3. 교육현실 인식
4. 사회·국가관
5. 생활 일반·정보화

1. 조사의 개요

가. 조사 개관

지난 해 월드컵대회를 통하여 우리는 과거에는 인식하지 못하였던 청소년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동안 가정과 학교 영역에만 머물러 있던 청소년들이 거리와 광장으로 진출하여 열광적인 응원을 통해 젊음의 열기를 분출하면서도 시종일관 질서를 잃지 않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기성세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이와 같은 새로운 사회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R 세대” “W 세대”라는 신세대 논의가 활성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매스컴을 중심으로 전개된 신세대 논의는 청소년들의 변화된 생활·의식의 단면을 흥미 위주로 기술하는 차원에 머물러 본격적인 세대논의로 연결되지는 못하였다. 월드컵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들의 새로운 행동·의식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생활·의식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작업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는 우리사회 청소년들의 생활·의식의 특성과 그 변화양상을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파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청소년들이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어떤 태도와 의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조사표는 생활·의식의 변화양상을 시계열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2000년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실시한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이종원 외, 2000)의 주요내용을 발췌하여 사용하였으며, 조사의 내용은 가족관, 교육관, 사회·국가관 및 일상생활 전반에 관한 네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표집 및 조사방법

본 조사는 앞서의 “청소년의 월드컵 경험과 평가” 조사와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여 2000년 7월에서 8월초까지 약 한달간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전국의 중·고교생 및 24세 이하의 대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총

2,500 명의 표본을 선정하였고, 중·고교생은 학급단위의 집단조사, 대학생은 조사원을 통한 개별조사의 방식으로 조사를 수행하였다(표집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Ⅲ장 1 절을 참조할 것). 자료선별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조사표는 2,306 매였다.

한편, 본 조사의 결과와 비교대상이 되는 2000 년의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는 전국의 만 10 세 이상 20 세 이하의 청소년 5,500 명을 대상으로 2000 년 9 월말에서 10 월초에 걸쳐서 실시되었다. 학생청소년(초·중·고·대학생)뿐만 아니라 취업청소년, 무직청소년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었는데, 본 조사와의 비교를 위하여 중·고교생 및 대학생 표본 중 일정 인원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의 통계처리는 윈도우용 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차분석, 일원변량분석, 상관관계분석, 요인분석의 방식으로 응답결과를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의 유의도 수준은 95%, 99%, 99.9%의 세가지로 구분하였고 모든 통계표에서 각각 $*(p<0.05)$, $** (p<0.01)$, $*** (p<0.001)$ 의 표식을 사용하였다.

다. 표본의 특성

본 연구에서 최종분석의 대상이 된 표본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 조사의 표본은 총 2,306 명으로서,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다소 많은 편이며, 교급별로는 중학생이 41.2%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교생(37.3%), 대학생(21.6%)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1.9%, 광역시가 26.8%로서 실제 모집단 인구에 비해 시군부(37.5%)의 인원이 과소표집되었다.

한편, 2000 년 조사에서의 중·고교생 및 대학생 표본은 모두 3,545 명이었으나(중학생 1,358 명, 고교생 1,597 명, 대학생 590 명), 올해 조사 표본의 성별·교급별 인원비율에 따라 무작위로 총 2,730 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시계열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정하였다. 따라서 표본의 성별·교급별 분포는 올해 조사와 유사한 비율을 유지하였으나, 지역별 분포에서 있어서 서울이 다소 적은 반면, 광역시·시군부의 표본이 더 많은 것이 차이점이다. 표

본의 평균 연령은 2000 년 조사의 16.2 세에서 올해에는 16.4 세로 증가하였다.

<표 IV- 1> 표본의 특성: 청소년 생활·의식 조사

(단위: 명, %)

		2003 년		2000 년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계		2,306	100.0	2,730	100.0
성 별	남 자	1,160	50.3	1,434	52.5
	여 자	1,146	49.7	1,294	47.4
교 급	중학생	950	41.2	1,094	40.1
	고교생	859	37.3	1,046	38.3
	- 인문계	(598)	(69.6)	(653)	(62.4)
	- 실업계	(261)	(30.4)	(393)	(37.6)
	대학생	497	21.6	590	21.6
만연령	(평균)	2,306	16.4	2,703	16.2
지 역	서 울	724	31.4	631	23.1
	광역시	717	31.1	966	35.4
	시군부	865	37.5	1,133	41.5

주: 각 변인별 결측치는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2. 가족의식 · 가족관

전통적인 가족의식 · 가족윤리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였다. 조사문항은 연로한 부모님 부양의사와 결혼관, 세대관, 성역할관에 대한 태도의 두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부모부양 의사

연로한 부모님을 어떻게 모실 것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적극적 부양형(“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돌봐 드리겠다”)이 과반수를 상회하였으며(62.8%), 소극적 부양형이 3 할 수준이었고(33.6%),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겠다는 응답은 소수에 머물렀다.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적극적 부양형이 근소하게 증가하였고, 소극적 부양형은 감소하였다. 부모님을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2> 부모님 부양의사

	(단위: %)	
	2003 년	2000 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돌봐 드리겠다	62.8	56.6
경제적으로 힘이 닿는 한도 내에서 부모님을 돌봐 드리겠다	33.6	39.0
되도록이면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2.9	3.4
전적으로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0.7	1.0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적극적 부양형이 많은 한편 소극적 부양형은 적은 편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급별로는 적극적 부양형의 응답률이 중학생이 가장 높고 (66.8%), 다음으로 고교생(61.7%), 대학생의 순이었다. 반면에 소극적 부양형에 속하는 청소년은 대학생이 가장 많고 중학생이 가장 적었다.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부모님에 대한 부양의사가 점차 약화되어 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IV- 3> 부모님 부양의사: 성 · 교급별

	(단위: %)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돌봐 드리겠다	경제적으로 힘이 달는 한도 내에서	되도록이면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	전적으로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
남 자	64.7	31.6	3.0	0.7
여 자	60.9	35.7	2.7	0.7
중학생	66.8	29.8	2.6	0.8
고교생	61.7	35.1	2.3	1.0
대학생	57.3	38.3	4.3	0.2

통계: 성별 $\chi^2=4.38$, 교급 $\chi^2=19.48^{**}$

나. 가족의식

전통적인 가족의식 · 가족윤리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결혼관, 세대관, 성역할관과 관련된 모두 9 가지의 서술형 항목을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먼저 결혼관 관련 항목의 응답결과를 보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의 긍정응답률이 55.5%,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이혼할 수 있다”의 긍정응답률이 75.1%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과반수이 이상이 전통적인 결혼 · 이혼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관과 관련된 항목의 긍정응답률은 “자녀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다”가 28.3%, “부모님 의견에는 순종해야 한다”가 43.0%,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가 50.5%로 나타났다.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반대하지만, 전통적인 3

세대 기능에 대해서는 과반수 이상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남녀간의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대해서 찬성한 청소년의 비율은,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가 22.0%,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가 21.2%, “남자·여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가 38.2%,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가 12.3%로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표 IV- 4> 가족의식·윤리관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16.5	28.0	45.2	10.3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	5.7	19.2	61.4	13.7
자녀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다	23.0	48.7	23.0	5.3
부모님의 의견에는 순종해야 한다	11.4	45.6	37.4	5.6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	9.3	40.2	43.2	7.3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30.7	47.3	18.5	3.5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23.7	55.1	16.9	4.3
남자·여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	23.4	38.4	31.6	6.6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43.5	44.3	9.4	2.9

같은 조사문항에 대한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여 청소년들의 가족관의 변화양상을 파악해 보기로 한다. 다음의 표는 각 조사항목에 대하여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긍정응답률을 비교한 것이다.

먼저 결혼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에 찬성한 청소년이 2000 년의 45.5%에서 올해에는 55.5%로,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의 긍정응답률은 2000 년의 65.7%에서 올해에는 75.1%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이 보다 서구적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세대관에 대한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자녀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다”의 긍정응답률은 2000 년의 37.8%에서 올해에는 28.3%로 크게 감소하였고, “부모님의 의견에는 순종해야 한다”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의 긍정응답률도 소폭이기는 하지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대해서는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와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2000 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남자·여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에 찬성한 청소년의 비율은 2000 년의 32.3%에서 올해에는 38.2%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각 조사항목별로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들의 가족의식·가족윤리관이 점차 서구적인 형태로 변화해 가는 추세를 엿볼 수 있다. 특히, 결혼·이혼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변화가 다른 부문에 비해 매우 현저한 것이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표 IV- 5> 가족의식·윤리관: 2000 년과의 비교

	(단위: %)	
	긍정응답률	
	2003 년	2000 년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55.5	45.5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	75.1	65.7
자녀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다	28.3	37.8
부모님의 의견에는 순종해야 한다	43.0	44.4
할아버지, 할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	50.5	52.0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22.0	28.1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21.2	19.1
남녀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	38.2	32.3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12.3	13.6

다음으로는 각 조사문항에 대한 성·교급별 응답결과를 비교해 보기로 한다.

먼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성·교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70.6%가 찬성하여 남자의 긍정응답률(40.5%)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준이었다. 교급별로는 찬성한 청소년의 비율이 고교생(59.4%)과 대학생(58.4%)이 6 할 수준인 반면, 중학생은 절반 수준(50.5%)에 머물렀다. 결혼의 당위성에 대해 남자보다는 여자, 중학생보다는 고교생·대학생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6> “반드시 결혼할 필요는 없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24.7	34.8	33.4	7.1
여 자	8.2	21.2	57.0	13.6
중학생	18.6	30.9	41.1	9.4
고교생	15.1	25.5	48.8	10.6
대학생	14.9	26.7	46.7	11.7

통계: 성별 $\chi^2=226.92^{***}$, 교급 $\chi^2=17.29^{**}$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이혼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성·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표 IV- 7>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이혼할 수 있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8.8	22.0	58.5	10.6
여 자	2.6	16.4	64.2	16.9
중학생	8.3	21.2	57.8	12.7
고교생	3.3	16.8	64.8	15.1
대학생	4.8	19.6	62.2	13.3

통계: 성별 $\chi^2=68.57^{***}$, 교급 $\chi^2=30.68^{***}$

성별로는 남자의 69.1%가 찬성한 반면, 여자는 81.1%에 달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이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긍정응답률이 79.9%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대학생(75.5%), 중학생(70.5%)의 순이었다. 이혼에 대하여 고교생이 대학생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이 주목되는 점이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다”에 대한 성·교급별 응답결과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긍정응답률이 33.0%로서 여자(23.6%)보다 1 할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고교생(30.3%)과 대학생(29.1%)의 긍정응답률이 중학생(26.1%)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다. 모든 하위집단에 걸쳐 부정적인 응답률이 긍정응답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가정에는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전통적인 세대관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8> “자녀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19.9	47.2	25.0	8.0
여 자	26.2	50.2	21.0	2.6
중학생	25.8	48.1	21.1	5.0
고교생	23.1	46.6	24.5	5.8
대학생	17.6	53.3	24.0	5.1

통계: 성별 $\chi^2=45.33^{***}$, 교급 $\chi^2=15.60^*$

“부모님의 의견에는 순종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성·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48.8%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여자의 긍정응답률(37.0%)을 크게 상회하였으며,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았고(50.2%), 중학생이 중간이었고(43.7%), 고교생(37.9%)이 가장 낮았다. 고교생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낮은 것은 이 시기가 성장단계상 부모세대와의 갈등과 마찰이 가장 잦은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표 IV- 9> “부모님의 의견에는 순종해야 한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9.9	41.2	41.2	7.6
여 자	13.0	50.0	33.5	3.5
중학생	13.9	42.3	36.4	7.3
고교생	12.4	49.8	34.0	3.9
대학생	5.1	44.7	44.9	5.3

통계: 성별 $\chi^2=40.61^{***}$, 교급 $\chi^2=48.52^{***}$

조부모의 동거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성·교급별 하위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조부모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하여 남자는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반면(55.6%), 여자의 긍정응답률은 4 할대에 머물렀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긍정응답률(57.6%)이 중학생(49.3%), 고교생(47.7%)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여자보다는 남자, 연령층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전통적인 3 세대 가정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10> “할아버지·할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8.5	35.9	46.8	8.8
여 자	10.1	44.5	39.5	5.9
중학생	11.8	38.9	40.0	9.3
고교생	9.8	42.6	41.9	5.8
대학생	3.8	38.6	51.3	6.3

통계: 성별 $\chi^2=25.25^{***}$, 교급 $\chi^2=42.77^{***}$

“가정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성·교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30.7%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여자의 긍정응답률(13.1%)의 두 배 이상에 달하였다. 교급

별 긍정응답률은 대학생(23.0%), 고교생(22.5%), 중학생(20.9%)의 순이었으나 세 집단간의 차이가 현격한 수준은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하위집단의 긍정응답률이 3 할 또는 그 이하의 수준으로서 청소년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남아선호사상이 많이 약화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11>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20.0	49.2	25.4	5.3
여 자	41.5	45.4	11.4	1.7
중학생	33.8	45.3	17.4	3.5
고교생	31.2	46.4	18.7	3.8
대학생	24.2	52.7	20.0	3.0

통계: 성별 $\chi^2=169.88^{***}$, 교급 $\chi^2=15.36^*$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에 대한 성·교급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에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IV- 12>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15.7	51.4	25.5	7.5
여 자	31.8	58.9	8.3	1.1
중학생	24.9	49.7	19.3	6.1
고교생	24.9	57.2	14.9	3.1
대학생	19.4	61.6	16.0	3.0

통계: 성별 $\chi^2=222.52^{***}$, 교급 $\chi^2=31.73^{***}$

성별로는 그렇다고 응답한 여자가 1 할에 못미치는 반면, 남자는 3 할대에 달하였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긍정응답률이 25.4%로서 대학생(19.0%), 중학생(18.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장남이 부모를 모시는 전통적인

부양방식에 대하여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여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성·교급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뚜렷하였다.

성별로는 남자의 45.7%가 찬성하여 여자보다 많았지만, 여자의 긍정응답률도 3 할대에 달하는 점이 주목된다. 성에 대한 전통적인 고정관념이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교급별로는 대학생과 고교생의 긍정응답률이 4 할 수준인 반면, 중학생은 32.9%에 머물렀다.

<표 IV- 13> “남자·여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16.3	37.9	35.6	10.1
여 자	30.5	38.8	27.7	3.1
중학생	27.1	39.9	26.3	6.6
고교생	24.0	35.6	33.6	6.7
대학생	15.4	40.0	38.2	6.5

통계: 성별 $\chi^2=102.88^{***}$, 교급 $\chi^2=37.95^{***}$

남녀의 전통적인 역할관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성·교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19.5%가 찬성한 반면, 그렇다고 응답한 여자는 소수에 머물렀다(4.9%). 교급별로는 중학생과 대학생에 비해 고교생의 긍정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이 특징적이다(각각 13.8%, 13.5%, 9.7%). 하위집단별로 다소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2 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14>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28.2	52.3	14.6	4.9
여 자	58.9	36.1	4.1	0.8
중학생	45.9	40.3	10.2	3.6
고교생	45.9	44.4	7.6	2.1
대학생	34.9	51.6	10.9	2.6

통계: 성별 $\chi^2=257.31^{***}$, 교급 $\chi^2=28.57^{***}$

3. 교육현실 인식

우리사회의 교육 현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과 의견을 조사하여 2000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현행 학교교육에 대한 태도,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한 평가의 두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교육현실 인식

우리사회의 교육현실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행 학교교육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관련된 모두 5 가지의 서술형 조사항목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응답하게 하였다.

<표 IV- 15> 교육현실에 대한 인식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과외를 안해도 학교수업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14.7	36.4	37.9	11.0
잘사는 집 아이가 못사는 집 아이보다 공부도 더 잘한다	18.7	40.1	30.4	10.9
공부를 잘 할려면 부모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7.0	25.8	52.0	15.2
사회에서 졸업장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	14.8	45.7	27.1	12.3
우리사회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할 수 있다	13.3	28.3	31.7	26.6

응답결과를 보면, “과외를 안해도 학교수업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에 찬성한 청소년이 48.9%로서 과반수 이상이 과외가 대학 진학을 위해 불가결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잘사는 집 아

이가 못사는 집 아이보다 공부도 더 잘한다”의 긍정응답률은 41.3%였고, “공부를 잘 할려면 부모의 뒷받침이 중요하다”에 찬성한 청소년은 67.2%에 달하여, 가정의 경제적 배경과 부모의 관심이 개인의 노력 못지 않게 학업 성적에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에서 졸업장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9.4%였고, “우리사회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청소년이 58.3%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같은 조사문항에 대한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IV- 16> 교육현실에 대한 인식: 2000 년과의 비교

(단위: %)

	긍정응답률	
	2003 년	2000 년
과외를 안해도 학교수업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48.9	58.7
잘사는 집 아이가 못사는 집 아이보다 공부도 더 잘한다	41.3	30.8
공부를 잘 할려면 부모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67.2	66.5
사회에서 졸업장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	39.4	36.9
우리사회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할 수 있다	58.3	61.1

“과외를 안해도 학교수업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의 긍정응답률은 2000 년의 58.7%에서 48.9%로 크게 감소하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 사이에서 과외의 중요성은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잘사는 집 아이가 못사는 집 아이보다 공부도 더 잘한다”의 긍정응답률은 2000 년의 30.8%에서 41.3%로 크게 증가하였고, “공부를 잘 할려면 부모의 뒷받침이 중요하다”의 긍정응답률도 소폭으로 상승하였다. 교육현장에서 가정의 경제적 배경의 영향력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에서 졸업장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36.9%에서 39.4%로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우리사회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할

수 있다”의 긍정응답율은 2000 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과반수를 훨씬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었다.

우리사회의 교육현실에 대한 성·교급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과외를 안해도 학교수업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성·교급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53.3%가 찬성한 반면, 여자는 44.5%에 머물렀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대학진학을 위해 과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긍정응답률이 54.3%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교생(47.0%), 대학생(42.1%)의 순이었다. 현재 대학생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중·고교생보다 과외의 중요성을 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표 IV- 17> “과외를 안해도 학교수업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14.0	32.7	39.3	14.0
여 자	15.5	40.0	36.6	7.9
중학생	12.9	32.8	40.3	14.0
고교생	16.1	36.9	38.0	9.0
대학생	15.7	42.3	33.4	8.7

통계: 성별 $\chi^2=29.63^{***}$, 교급 $\chi^2=29.05^{***}$

“잘사는 집 아이가 못사는 집 아이보다 공부도 더 잘한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교급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의 긍정응답률이 유사한 수준인 반면(각각 41.6%, 40.9%),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65.6%가 그렇다고 응답한 데 비해, 고교생의 긍정응답률은 42.2%, 중학생은 27.5%에 머물러 세 하위집단간에 현격한 격차를 나타내었다.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학업성적에 대한 계층적 배경의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18> “잘사는 집 아이가 못사는 집 아이보다 공부도 더 잘한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18.0	40.5	29.4	12.2
여 자	19.4	39.7	31.3	9.6
중학생	26.1	46.4	20.0	7.5
고교생	17.6	40.3	29.8	12.4
대학생	6.6	27.8	50.9	14.7

통계: 성별 $\chi^2=4.91$, 교급 $\chi^2=216.25^{***}$

“공부를 잘 할려면 부모의 뒷받침이 중요하다”에 대한 응답결과의 차이는 성·교급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긍정응답률이 여자가 72.3%로서 남자(62.1%)보다 1 할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 별로는 대다수의 대학생이 그렇다고 응답하여(83.3%), 고교생(68.2%), 중학생(57.9%)의 긍정응답률을 크게 상회하였다. 앞서 문항의 응답결과와 마찬가지로 연령층이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학업성적에 있어서 가정의 배경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19> “공부를 잘 할려면 부모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9.2	28.7	46.6	15.5
여 자	4.8	22.8	57.4	14.9
중학생	11.1	31.0	46.2	11.7
고교생	5.7	26.2	52.5	15.7
대학생	1.6	15.1	62.1	21.2

통계: 성별 $\chi^2=35.76^{***}$, 교급 $\chi^2=112.43^{***}$

“사회에서 졸업장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성·교급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자의 긍정응답률(40.4%)이 여자(38.4%)보다 다소 높은 편이었

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고(47.2%), 다음으로 대학생(43.8%), 중학생(30.1%)의 순이었다.

<표 IV- 20> “사회에서 졸업장을 중시하지 않는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16.0	43.5	26.3	14.1
여 자	13.6	47.9	27.9	10.5
중학생	21.5	48.4	20.7	9.4
고교생	10.8	42.0	30.7	16.5
대학생	9.1	47.1	33.1	10.7

통계: 성별 $\chi^2=10.97^*$, 교급 $\chi^2=97.21^{***}$

“우리사회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할 수 있다”에 대한 응답결과의 차이는 교급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여자(59.6%)가 남자보다 다소 많았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고(67.4%), 다음으로 대학생(65.8%), 중학생(46.1%)의 순이었다. 대학 진학을 앞둔 고교생들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7 할 수준에 달하여 많은 고교생들이 입시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표 IV- 21> “우리사회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할 수 있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12.8	30.2	30.0	27.0
여 자	13.9	26.5	33.4	26.2
중학생	20.9	33.0	24.1	22.0
고교생	10.3	22.3	30.6	36.8
대학생	4.4	29.8	48.1	17.7

통계: 성별 $\chi^2=5.51$, 교급 $\chi^2=208.78^{***}$

현재 자신이 같은 학급(대학생은 학과)의 친구들에 대하여 경쟁의식을 느

끼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느끼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44.9%에 달하여 전체 청소년의 4 할 이상이 학급친구를 경쟁상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다는 응답률이 근소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22> 학급(학과) 친구와의 경쟁의식

	(단위: %)	
	2003 년	2000 년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16.8	13.6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38.3	38.3
약간 느끼고 있다	38.2	38.9
많이 느끼고 있다	6.7	9.2

학급(학과) 친구에 대한 경쟁의식의 성·교급별 응답결과의 차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경쟁의식을 느낀다는 응답률이 여자(42.4%)보다는 남자(47.4%)가 높은 수준이었고,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과반수가 경쟁의식을 느낀다고 응답하여 가장 많았고(50.9%), 다음으로 고교생(44.0%), 중학생(42.6%)의 순이었다. 여자보다는 남자, 그리고 연령층이 증가할수록 학급(학과) 친구와의 경쟁의식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표 IV- 23> 학급(학과) 친구와의 경쟁의식: 성·교급별

	(단위: %)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약간 느끼고 있다	많이 느끼고 있다
남 자	16.6	36.0	38.7	8.7
여 자	17.1	40.5	37.7	4.7
중학생	16.7	40.8	36.0	6.6
고교생	18.4	37.6	36.9	7.1
대학생	14.5	34.6	44.5	6.4

통계: 성별 $\chi^2=16.58^{**}$, 교급 $\chi^2=13.21^{*}$

나. 학과공부에 대한 인식

현재 자신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자신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5 가지 측면에서 응답하게 하였다(대학생은 중·고교생 시절을 기준을 응답하게 함).

응답결과를 보면,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다”가 64.8%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우리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56.1%),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52.3%),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50.0%)의 순이었으며, “자신의 적성/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46.9%).

청소년들이 현재 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이 주로 상급학교 진학에 대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성/소질 계발의 측면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24> 학과공부에 대한 인식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다	8.8	26.4	57.7	7.1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11.8	35.9	46.4	5.9
자신의 적성/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15.4	37.7	40.4	6.5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12.6	37.4	44.0	6.0
우리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13.9	30.0	47.1	9.0

같은 조사문항에 대한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항목에 걸쳐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사회의 교육현실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이 매우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한 신뢰도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V- 25> 학과공부에 대한 인식: 2000 년과의 비교

(단위: %)

	긍정응답률	
	2003 년	2000 년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다	64.8	55.6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52.3	38.8
자신의 적성/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46.9	30.3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50.0	38.1
우리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56.1	44.1

4. 사회 · 국가관

청소년들이 사회 · 국가 현실에 대하여 어떤 생각과 의견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에 대한 인식, 영역별 국가 발전수준에 대한 평가, 사회현실 전반에 대한 만족도,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등 네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사회현실 인식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모두 10 가지 항목의 사회문제 유형을 서술형 문장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응답하게 하였다.

<표 IV- 26> 사회현실 인식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5.0	24.2	56.2	14.6
잘살고 못사는 사람간의 격차가 심하다	2.4	8.8	45.9	42.9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4.8	28.8	48.1	18.3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2.6	7.9	49.0	40.5
사람들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	2.9	22.0	56.7	18.4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2.3	13.7	56.0	28.0
집안이나 뒷 배경이 중시된다	2.6	10.6	49.6	37.1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2.5	13.0	58.4	26.1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	5.2	30.9	43.2	20.7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8.2	47.9	32.2	11.7

각 항목별 긍정응답률을 비교하면, 조사대상이 된 10 가지 사회문제 항목 중에서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9.5%로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잘살고 못사는 사람간의 격차가 심하다”(88.8%),

“집안이나 뒷 배경이 중시된다”(86.7%),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84.5%),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84.0%)의 긍정응답률도 8 할을 상회하였고, 이어서 “사람들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75.1%),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70.8%),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66.4%),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63.9%),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43.9%)의 순이었다. 조사대상이 된 사회문제 항목 중 하나의 항목을 제외하고 모두 과반수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조사문항에 대한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긍정응답률의 변화추이를 보면, 조사대상이 된 10 가지 항목 중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와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의 두 항목의 응답률만 다소 감소하였을 뿐 나머지 8 항목은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사회전반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증가경향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27> 사회현실 인식: 2000 년과의 비교

	(단위: %)	
	긍정응답률	
	2003 년	2000 년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70.8	70.9
잘살고 못사는 사람간의 격차가 심하다	88.8	85.7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66.4	63.0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89.5	85.7
사람들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	75.1	71.9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84.0	82.1
집안이나 뒷 배경이 중시된다	86.7	83.5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84.5	81.6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63.9	61.9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43.9	46.9

청소년들의 사회현실 인식에 대한 성·교급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를 비

교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교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81.0%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남자의 긍정응답률은 60.7%에 머물렀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긍정응답률이 76.6%로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고교생(70.2%), 중학생(68.3%)의 순이었다. 남자보다는 여자, 또한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 심화되어 갔다.

<표 IV- 28>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8.1	31.2	48.6	12.1
여 자	1.8	17.1	63.9	17.1
중학생	7.7	24.0	53.2	15.1
고교생	4.0	25.9	54.8	15.4
대학생	1.6	21.8	64.3	12.3

통계: 성별 $\chi^2=125.38^{***}$, 교급 $\chi^2=38.75^{***}$

우리사회의 빈부격차에 대한 인식에서도 성·교급별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의 긍정응답률이 92.3%로서 남자(85.3%)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긍정응답률이 96.2%로서 가장 높았고, 고교생(91.1%)이 중간이었으며, 중학생이 가장 낮았다(82.7%).

전체적으로 모든 하위집단에서 8 할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부격차가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29> “잘살고 못하는 사람간의 격차가 심하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3.5	11.2	43.9	41.4
여 자	1.3	6.4	48.0	44.3
중학생	4.5	12.8	46.5	36.2
고교생	1.4	7.4	41.6	49.5
대학생	0.2	3.6	52.2	44.0

통계: 성별 $\chi^2=28.85^{***}$, 교급 $\chi^2=90.72^{***}$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의 심각성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성·교급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의 긍정응답률이 68.0%로서 남자(64.8%)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지만,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남자가 더 많았다. 교급별로는 대학생과 고교생의 긍정응답률이 7 할을 상회하는 반면, 중학생은 5 할 수준에 머물러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IV- 30>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6.0	29.2	44.8	20.0
여 자	3.5	28.5	51.5	16.5
중학생	8.2	34.4	40.2	17.2
고교생	3.2	26.4	49.2	21.3
대학생	1.0	22.6	61.3	15.1

통계: 성별 $\chi^2=16.59^{**}$, 교급 $\chi^2=99.13^{***}$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에 대한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성·교급별 하위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성별로는 여자의 긍정응답률이 92.7%로서 남자(86.2%)보다 높았고, 교급별로는 대학생과 고교생의 긍정응답률이 유사한 수준이었고(각각 92.9%, 92.2%), 중학생이 가장 낮았다

(85.1%). 학력차별의 긍정응답률은 조사대상이 된 조사대상이 된 10 가지 항목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이 학력차별을 우리사회의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31>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3.8	10.0	47.7	38.5
여 자	1.4	5.9	50.2	42.5
중학생	4.7	10.1	45.9	39.2
고교생	1.4	6.4	45.3	46.9
대학생	0.6	6.5	60.9	32.0

통계: 성별 $\chi^2=27.31^{***}$, 교급 $\chi^2=73.97^{***}$

“사람들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에 대한 응답결과는 성·교급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75.4%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남자보다 다소 많았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고(78.0%), 다음으로 대학생(75.4%), 중학생(72.2%)의 순이었다.

<표 IV- 32> “사람들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4.2	21.0	55.0	19.8
여 자	1.6	23.0	58.4	17.0
중학생	5.4	22.3	51.8	20.4
고교생	1.3	20.7	58.5	19.5
대학생	0.8	23.8	62.7	12.7

통계: 성별 $\chi^2=18.12^{***}$, 교급 $\chi^2=56.55^{***}$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에 대한 성·교급별 하위집단의 응답 결과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자의 긍정응

답률이 85.9%로서 남자(82.2%)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고(87.7%), 다음으로 대학생(84.5%), 중학생(80.5%)의 순이었다.

<표 IV- 33>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3.2	14.6	53.9	28.3
여 자	1.4	12.7	58.1	27.8
중학생	4.1	15.5	51.8	28.7
고교생	1.4	10.9	57.1	30.6
대학생	0.6	14.9	62.1	22.4

통계: 성별 $\chi^2=11.39^*$, 교급 $\chi^2=43.19^{***}$

“집안이나 뒷 배경이 중시된다”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성·교급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여자의 긍정응답률이 91.1%로서 남자(82.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고, 교급별로는 고교생과 대학생의 긍정응답률이 모두 9 할을 상회하는 반면(각각 91.9%, 91.6%), 중학생은 79.5%에 머물렀다.

<표 IV- 34> “집안이나 뒷배경이 중시된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4.0	13.6	47.9	34.5
여 자	1.2	7.6	51.3	39.8
중학생	5.3	15.2	46.3	33.2
고교생	0.7	7.4	47.8	44.1
대학생	0.8	7.7	58.9	32.7

통계: 성별 $\chi^2=41.75^{***}$, 교급 $\chi^2=103.72^{***}$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성·교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여자의 긍정응답

률이 86.4%로서 남자(82.6%)보다 다소 높았으며, 교급별로는 고교생(87.5%)과 대학생(87.3%)과 비교하여 중학생의 긍정응답률(80.3%)이 낮은 수준이었다.

<표 IV- 35>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3.3	14.1	55.4	27.2
여 자	1.7	11.9	61.5	24.9
중학생	4.1	15.6	53.5	26.8
고교생	1.5	11.0	59.2	28.3
대학생	1.2	11.5	66.4	20.9

통계: 성별 $\chi^2=12.97^{**}$, 교급 $\chi^2=40.22^{***}$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성·교급별로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남자가 65.0%로서 여자(62.8%)보다 다소 많았으며, 교급별로는 고교생(65.9%)과 중학생(64.5%)의 긍정응답률이 유사한 수준이었고, 대학생이 가장 낮았다(59.3%).

<표 IV- 36>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6.0	29.0	42.1	22.9
여 자	4.4	32.8	44.2	18.6
중학생	7.7	27.8	41.4	23.1
고교생	3.9	30.2	43.2	22.7
대학생	2.8	37.9	46.4	12.9

통계: 성별 $\chi^2=11.51^{**}$, 교급 $\chi^2=50.98^{***}$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성·교

급별로 모두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긍정응답률이 46.2%로서 여자(41.6%)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높고(46.2%), 다음으로 중학생(43.2%), 대학생(41.3%)의 순이었다.

<표 IV- 37>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남 자	9.0	44.8	32.3	13.9
여 자	7.5	50.9	32.1	9.5
중학생	11.8	45.0	29.1	14.1
고교생	6.4	47.5	33.8	12.4
대학생	4.8	53.8	35.3	6.0

통계: 성별 $\chi^2=15.58^{**}$, 교급 $\chi^2=53.44^{***}$

나. 국가 발전수준 평가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각 부분별 발전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모두 7 가지의 평가항목을 제시하고 자신의 생각을 응답하게 하였다.

각 항목별 긍정응답률을 비교하면, “국민들의 문화·예술수준이 높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37.5%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23.6%),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고 있다”(19.3%), “경제적으로 풍요롭다”(17.5%), “범죄가 적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16.0%),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15.8%)의 순이었으며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9.6%).

모든 항목에 대하여 긍정응답률이 과반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우리나라 전반의 발전수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정치적인 안정성에 대한 긍정응답률은 1 할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우리나라의 정치현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38> 국가 발전수준 평가

	(단위: %)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19.4	63.0	16.7	0.8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36.6	53.7	8.8	0.8
국민들의 문화·예술수준이 높다	13.5	49.0	35.3	2.2
범죄가 적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28.9	55.1	14.6	1.4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27.8	56.4	14.4	1.4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고 있다	24.1	56.6	18.2	1.1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	25.3	51.2	20.8	2.8

같은 조사문항에 대한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항목에 걸쳐서 긍정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국가 전반의 발전수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은 변함이 없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부문에 걸쳐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하였음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IV- 39> 국가 발전수준 평가: 2000 년과의 비교

	(단위: %)	
	긍정응답률	
	2003 년	2000 년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17.5	14.4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9.6	8.5
국민들의 문화·예술수준이 높다	37.5	28.2
범죄가 적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16.0	15.8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15.8	15.2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고 있다	19.3	11.1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	23.6	17.3

특히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고 있다”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2000 년의 11.1%에서 19.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월드컵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높은 질서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다. 사회현실 · 국가 만족도

우리사회 현실 전반에 대하여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불만이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62.6%로서 과반수를 상회하였고, 다음으로 “매우 불만이다”가 19.4%였으며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2 할에도 못 미쳤다.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불만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이 85.8%에서 82.0%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8 할 이상이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지만, 2000 년과 비교하면 만족도가 소폭으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40> 사회현실 만족도

	(단위: %)	
	2003 년	2000 년
매우 불만이다	19.4	25.2
불만이다	62.6	60.6
만족한다	15.7	11.9
매우 만족한다	2.3	2.2

성 · 교급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의 20.5%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여, 여자(15.5%)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다. 교급별로 만족 응답률을 비교하면 중학생이 22.5%로서 가장 높고, 대학생이 중간이었으며(17.9%), 고교생이 가장 낮았다(13.1%). 성별로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교급별로는 고교생이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가장 많이 불만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41> 사회현실 만족도: 성·교급별

	(단위: %)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남 자	20.9	58.6	17.6	2.9
여 자	18.0	66.5	13.8	1.7
중학생	20.6	56.8	19.5	3.0
고교생	22.8	64.1	10.9	2.2
대학생	11.3	70.8	16.7	1.2

통계: 성별 $\chi^2=16.48^{**}$, 교급 $\chi^2=57.59^{***}$

다음으로는 자신이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만족한다”가 60.4%로서 가장 다수였고, “매우 만족한다”가 11.4%로서, 전체 청소년의 7 할 이상이 한국인으로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대다수가 우리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 불만을 느끼고 있지만,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만족 응답률이 65.9%에서 71.8%로 소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42>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단위: %)	
	2003 년	2000 년
매우 불만이다	5.0	6.7
불만이다	23.3	27.5
만족한다	60.4	55.7
매우 만족한다	11.4	10.2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먼저 성별로는 만족응답률이 남자가 72.0%로서 여자(71.5%)와 유사한 수준이었는데,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남자가 13.6%로서 여자(9.1%)보다 많았다. 교급별로는 고교생의 만족응답률(70.7%)이 중학생(72.5%)과 대학생(72.0%)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표 IV- 43> 한국인으로서의 만족도: 성·교급별

	(단위: %)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남 자	6.6	21.4	58.4	13.6
여 자	3.3	25.2	62.4	9.1
중학생	6.9	20.5	55.5	17.0
고교생	4.2	25.1	62.3	8.4
대학생	2.6	25.4	66.2	5.8

통계: 성별 $\chi^2=27.63^{***}$, 교급 $\chi^2=71.94^{***}$

5. 생활 일반 · 정보화

일상적인 생활영역 전반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 · 행동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의 내용은 가정 · 학교생활 등 청소년들의 생활영역별 만족도, 주변 사람들의 자기 이해도, 주된 고민 · 걱정거리의 내용과 상담상대, 일상생활에서의 컴퓨터 · 인터넷 이용실태의 네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가. 생활전반 만족도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동네), 친구관계, 취미/여가생활의 다섯가지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친구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7.9%에 달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생활(71.4%)과 취미/여가생활(71.2%)의 만족응답률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학교생활(66.9%)과 자기 동네(66.7%)의 만족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표 IV- 44〉 생활영역별 만족도

	(단위: %)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자신의 가정생활	5.6	23.1	55.6	15.8
자신의 학교생활	7.5	25.6	58.8	8.1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7.4	26.0	57.2	9.5
자신의 친구관계	2.5	9.6	59.1	28.8
자신의 취미/여가생활	4.7	24.1	53.7	17.5

같은 조사문항에 대한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모든 생활영역에 걸쳐 만족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취미/여가생활과 학교생활의 증가 폭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었는데,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취미/여가생활은 41.7%에서 71.2%로, 학교생활은 45.3%에서 66.9%로 증

가하였다.

<표 IV- 45> 생활영역별 만족도: 2000 년과의 비교

	(단위: %)	
	만족응답률	
	2003 년	2000 년
자신의 가정생활	71.4	66.8
자신의 학교생활	66.9	45.3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66.7	64.1
자신의 친구관계	87.9	79.3
자신의 취미/여가생활	71.2	41.7

각 생활영역별 만족도에 대한 성·교급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정생활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성별로는 남자의 만족응답률이 73.4%로서 여자(69.4%)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만족응답률이 78.7%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학생(71.2%), 고교생(67.3%)의 순이었다.

<표 IV- 46> 가정생활 만족도: 성·교급별

	(단위: %)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남 자	4.9	21.8	57.8	15.6
여 자	6.3	24.4	53.4	16.0
중학생	7.2	21.7	51.9	19.3
고교생	5.7	27.0	54.2	13.1
대학생	2.4	18.9	65.0	13.7

통계: 성별 $\chi^2=5.78$, 교급 $\chi^2=46.64^{***}$

학교생활 만족도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남자(68.4%)가 여자보(65.3%)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만족응답률이 72.4%로서 가

장 높고, 중학생이 중간이었으며(66.5%), 고교생이 가장 낮았다(64.1%). 고교생의 학교생활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은 입시준비에 따른 상대적으로 높은 학업부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IV- 47> 학교생활 만족도: 성·교급별

	(단위: %)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남 자	6.9	24.7	59.6	8.8
여 자	8.1	26.6	57.9	7.4
중학생	9.9	23.7	56.4	10.1
고교생	7.4	28.5	57.3	6.8
대학생	3.2	24.3	65.8	6.6

통계: 성별 $\chi^2=3.63$, 교급 $\chi^2=36.59^{***}$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한 만족도는 성·교급 두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만족응답률(70.5%)이 여자(62.7%)보다 훨씬 높았고,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만족응답률이 가장 높았고(71.4%), 고교생(65.8%)과 중학생(64.9%)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표 IV- 48> 지역사회 만족도: 성·교급별

	(단위: %)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남 자	6.9	22.6	59.2	11.3
여 자	7.9	29.3	55.0	7.7
중학생	8.9	26.2	53.9	11.0
고교생	8.0	26.3	56.5	9.3
대학생	3.6	24.9	64.4	7.0

통계: 성별 $\chi^2=19.99^{***}$, 교급 $\chi^2=24.78^{***}$

자신의 친구관계 만족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교급 변인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와 여자의 만족응답률이 모두 87% 수준으로서 유사하였다. 교급별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대학생은 92.0%에 달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고교생(87.4%), 중학생(86.0%)의 순이었다.

<표 IV- 49> 친구관계 만족도: 성 · 교급별

	(단위: %)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남 자	2.4	9.7	58.1	29.8
여 자	2.7	9.6	60.1	27.7
중학생	4.0	9.9	53.0	33.0
고교생	1.5	11.1	59.6	27.8
대학생	1.6	6.5	69.6	22.4

통계: 성별 $\chi^2=1.62$, 교급 $\chi^2=48.16^{***}$

자신의 취미/여가생활에 대한 응답결과는 성 · 교급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로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남자가 76.3%로서 여자보다 1 할 이상 많았고, 교급별로는 중학생의 만족응답률이 가장 높았고(76.6%), 다음으로 고교생(68.2%), 대학생(66.4%)의 순이었다.

<표 IV- 50> 취미/여가생활 만족도: 성 · 교급별

	(단위: %)			
	매우 불만이다	불만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남 자	4.3	19.4	56.1	20.2
여 자	5.1	28.9	51.3	14.7
중학생	4.7	18.7	54.2	22.4
고교생	5.9	26.0	52.8	15.4
대학생	2.6	31.0	54.5	11.9

통계: 성별 $\chi^2=35.02^{***}$, 교급 $\chi^2=53.51^{***}$

나. 주변사람의 자기이해도

청소년들의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모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해정도에 따른 단계별 4 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친구가 81.5%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어머니(73.7%), 아버지(57.5%), 학교선생님(38.8%)의 순이었다. 부모보다 친구들이 자신을 더 많이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결과에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또래집단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 51> 주변사람들의 자기 이해도

	(단위: %)			
	거의 이해 못함	별로 이해 못함	어느 정도 이해함	많이 이해함
아버지	12.1	30.4	44.1	13.4
어머니	6.4	19.9	50.7	23.0
학교선생님	20.1	41.1	33.4	5.4
친구들	4.6	13.9	47.9	33.6

같은 조사문항에 대한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아버지의 경우 2000 년의 47.7%에서 57.5%로, 어머니는 63.8%에서 73.7%로, 친구들은 73.3%에서 81.5%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선생님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46.2%에서 38.8%로 감소하였다.

<표 IV- 52> 주변사람들의 자기 이해도: 2000 년과의 비교

(단위: %)

	“이해하고 있다”	
	2003 년	2000 년
아버지	57.5	47.7
어머니	73.7	63.8
학교선생님(학과교수님)	38.8	46.2
친구들	81.5	73.3

주변사람의 자기 이해도에 대한 각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버지의 자기이해도는 성·교급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성별로는 남자가 62.4%로서 여자(52.6%)보다 1 할 정도 높게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중학생과 대학생의 6 할 가량이 아버지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각각 61.0%, 60.2%) 고교생은 52.2%에 머물렀다. 여자보다는 남자, 고교생보다는 중학생·대학생이 부친과 보다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53> 부친의 자기 이해도: 성·교급별

(단위: %)

	거의 이해 못함	별로 이해 못함	어느 정도 이해함	많이 이해함
남 자	10.3	27.2	46.5	15.9
여 자	13.8	33.5	41.8	10.8
중학생	12.7	26.3	43.3	17.7
고교생	13.9	33.9	41.3	10.9
대학생	7.7	32.1	50.6	9.6

통계: 성별 $\chi^2=26.26^{***}$, 교급 $\chi^2=46.65^{***}$

어머니의 자기이해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는 성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급별로는 어머니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

소년이 대학생이 76.9%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중학생(73.9%), 고교생(71.8%)의 순이었다. 앞서 부친의 이해도에 대한 응답결과와 종합하면, 교급별 세 하위집단 중에서 고교생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가장 원만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표 IV- 54> 모친의 자기 이해도: 성·교급별

	(단위: %)			
	거의 이해 못함	별로 이해 못함	어느 정도 이해함	많이 이해함
남 자	6.2	20.3	51.1	22.4
여 자	6.7	19.4	50.3	23.6
중학생	8.5	17.9	47.9	25.8
고교생	6.3	21.9	49.6	22.2
대학생	2.8	20.2	57.7	19.2

통계: 성별 $\chi^2=0.85$, 교급 $\chi^2=32.14^{***}$

학교선생님(대학생은 학과교수님)의 자기이해도에 대한 응답결과는 성·교급 변인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성별로는 남자의 41.3%가 학교선생님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여자(36.1%)보다 많았다. 교급별로는 중학생과 고교생의 4 할 정도가 학교선생님이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대학생의 응답률은 26.5%에 머물렀다.

<표 IV- 55> 학교선생님의 자기 이해도: 성·교급별

	(단위: %)			
	거의 이해 못함	별로 이해 못함	어느 정도 이해함	많이 이해함
남 자	19.4	39.2	34.5	6.8
여 자	20.9	43.0	32.2	3.9
중학생	17.9	38.8	35.5	7.7
고교생	17.9	41.2	36.5	4.4
대학생	28.2	45.3	23.9	2.6

통계: 성별 $\chi^2=12.72^{**}$, 교급 $\chi^2=58.90^{***}$

친구들의 자기이해도에 대한 응답결과에서도 성·교급별 하위집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친구가 자신을 이해하고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성별로는 여자가 85.1%로서 남자(78.0%)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고, 교급별로는 대학생이 85.9%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교생(83.4%), 중학생(77.4%)의 순이었다.

<표 IV- 56> 친구들의 자기 이해도: 성·교급별

	(단위: %)			
	거의 이해 못함	별로 이해 못함	어느 정도 이해함	많이 이해함
남 자	5.9	16.2	45.9	32.1
여 자	3.3	11.5	49.9	35.2
중학생	7.1	15.5	40.6	36.8
고교생	3.8	12.9	49.8	33.6
대학생	1.4	12.7	58.1	27.8

통계: 성별 $\chi^2=20.46^{***}$, 교급 $\chi^2=57.14^{***}$

다. 고민거리·상담상대

현재 자신이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갖고 있는지, 있다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두 10 가지의 선택지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7%에 불과하였다. 구체적인 고민·걱정거리로서는 “진로문제”를 선택한 청소년이 39.3%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부/학업문제”(25.6%), “금전/경제적인 문제”(10.6%), “이성문제”(7.1%)의 순이었으며, 나머지 항목들은 모두 5% 미만의 낮은 응답률을 나타내었다.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진로문제”의 응답률이 35.2%에서 39.3%로 증가한 반면, “금전/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는 청소년은 15.8%에서 10.6%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부/학업문제”와 “이성문제”의 응답률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표 IV- 57> 고민/걱정거리

	(단위: %)	
	2003 년	2000 년
금전/경제적인 문제	10.6	15.8
진로문제	39.3	35.2
공부/학업문제	25.6	25.5
이성문제	7.1	7.7
자신의 성격	3.0	3.1
친구와의 관계	3.3	2.3
건강문제	1.3	1.1
자신의 외모/체격	3.6	2.4
종교/인생관 문제	0.9	0.9
가정문제	1.6	2.0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다	3.7	4.0

응답률이 높은 4 가지 항목에 대한 성 · 교급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성별로는 공부/학업문제의 응답률은 여자가 높은 반면, 이성문제의 응답률은 남자가 다소 높은 점이 두드러질 뿐 남녀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급별로는 진로문제로 고민하는 대학생이 55.7%에 달하여 중 · 고교생보다 훨씬 많았지만, 공부/학업문제의 응답률은 중 · 고교생이 대학생보다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58> 고민/걱정거리: 성 · 교급별

	(단위: %)				
	금전/경제 적인 문제	진로문제	공부/학업 문제	이성문제	걱정거리 가 없다
남 자	10.6	39.3	24.0	8.6	4.1
여 자	10.5	39.2	27.2	5.6	3.3
중학생	7.7	27.1	29.7	9.5	5.4
고교생	11.2	43.1	28.9	5.1	2.5
대학생	15.0	55.7	12.1	6.1	2.6

통계: 성별 $\chi^2=27.38^{**}$, 교급 $\chi^2=236.77^{***}$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주로 누구와 상의하지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전체 청소년의 절반 가량이 친구나 선·후배라고 응답하였고(49.0%), 다음으로 어머니(18.2%), 형제/자매(6.0%), 아버지(4.1%)의 순이었으며, 학교선생님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1.3%).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거리를 부모님이나 학교선생님과 상의하기 보다는 주로 또래집단내에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6.9%에 달하였다.

성별로는 남자는 아버지, 여자는 어머니와 상의한다는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친구/선후배와 상의하는 비율은 여자가 더 높은 반면,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은 남자가 훨씬 높은 편이었다. 교급별로는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어머니와 상의하는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친구/선후배와 상의하는 청소년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연령층이 어릴수록 다른 사람과 상의하지 않는다는 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 59> 고민/걱정거리 상담상대

(단위: %)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학교 선생님	친구/ 선후배	이중에는 없다	상의하지 않는다
계	4.1	18.2	6.0	1.3	49.0	4.4	16.9
남 자	5.4	16.7	5.5	1.7	45.4	5.0	20.3
여 자	2.7	19.8	6.6	0.9	52.7	3.9	13.5
중학생	4.8	20.7	6.1	2.0	41.4	4.7	20.3
고교생	2.9	18.3	6.1	1.1	51.5	3.9	16.2
대학생	4.6	13.5	5.8	0.4	59.2	4.8	11.7

통계: 성별 $\chi^2=41.01^{***}$, 교급 $\chi^2=59.13^{***}$

라. 컴퓨터/인터넷 이용

청소년들이 집에 컴퓨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주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집에 컴퓨터가 없는 청소년은 3.3%에 불과하여 학생을 자녀로 둔 대부분의 가정이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컴퓨터가 있는 가정의 경우 그 주된 사용자가 다른 가족인 경우는 2 할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가정에서 컴퓨터의 주된 이용자는 주로 청소년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컴퓨터가 없는 가정이 14.8%에서 3.3%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컴퓨터를 주로 자신이 사용한다는 응답률도 2000 년의 51.9%에서 77.5%로 크게 증가하여 청소년들의 컴퓨터 점유도가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 IV- 60> 컴퓨터 유무와 점유도

	(단위: %)	
	2003 년	2000 년
없 다	3.3	14.8
컴퓨터가 있고, 주로 다른 가족이 사용	19.2	33.3 ¹⁾
컴퓨터가 있고, 주로 내가 사용	70.2	51.9 ²⁾
컴퓨터가 있고, 나 혼자만 사용	7.3	

주: 1) 2000 년은 “주로 부모님이 사용한다”와 “주로 형제·자매가 사용한다”의 응답률을 합산한 것임

2) 2000 년에는 “주로 내가 사용한다”의 응답률임

위의 조사문항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률을 비교하면, 먼저 성별로는 컴퓨터 보유율에 있어서는 남녀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나 컴퓨터를 주로 자신이 사용한다는 응답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별로는 가정의 컴퓨터 보유율은 대학생에 비해 중·고교생이 높은 편이지만 컴퓨터의 점유율에 있어서는 세 집단간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 61> 컴퓨터 유무와 점유도: 성·교급별

(단위: %)

	없다	주로 다른 가족이 사용	주로 내가 사용	나혼자만 사용
남 자	3.9	14.7	72.4	9.0
여 자	2.7	23.7	68.1	5.5
중학생	2.5	18.8	73.1	5.6
고교생	2.7	21.3	69.5	6.5
대학생	5.9	16.4	66.1	11.7

통계: 성별 $\chi^2=37.85^{***}$, 교급 $\chi^2=36.71^{***}$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를 단계별 6 점 척도를 제시하고 응답하게 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거의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이 7 할 수준에 달하였고(69.8%), 94.8%가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이상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이 청소년 생활의 불가결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인터넷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은 12.6%에서 2.3%로 감소한 반면, “거의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은 46.9%에서 69.8%로 2 할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3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인터넷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62> 인터넷 이용빈도

(단위: %)

	2003 년	2000 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	2.3	12.6
두세달에 한번	1.1	- 1)
한달에 한두번	1.7	6.8
일주일에 1-2 일	8.3	14.7
일주일에 3-4 일	16.7	19.0
거의 매일	69.8	46.9

주: 1) 2000 년에는 “두세달에 한번” 응답항목이 없었음

인터넷 이용빈도에 대한 성·교급별 하위집단의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하위집단별로 일주일에 하루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는 청소년이 9 할 이상에 달하여 이용빈도상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거의 매일” 이용한다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은 성별로는 남자(74.0%)가 여자(65.7%)보다 많았고, 교급별로는 대학생(77.3%), 중학생(71.1%), 고교생(64.1%)의 순이었다.

<표 IV- 63> 인터넷 이용빈도: 성·교급별

(단위: %)

	거의 이용안함	두세달에 한번	한달에 한두번	일주일에 1-2 일	일주일에 3-4 일	거의 매일
남 자	2.0	1.0	1.3	7.7	14.0	74.0
여 자	2.6	1.2	2.1	8.9	19.5	65.7
중학생	2.6	0.9	1.7	6.2	17.4	71.1
고교생	2.3	1.3	2.3	11.9	18.0	64.1
대학생	1.6	1.2	0.6	6.0	13.3	77.3

통계: 성별 $\chi^2=20.25^{**}$, 교급 $\chi^2=41.97^{***}$

컴퓨터/인터넷이 없다면 자신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전체 청소년의 8 할 이상이 불편할 것이라고 응답하여,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률(15.7%)을 크게 상회하였다.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불편할 것이라는 응답률이 76.2%에서 84.3%로 증가하였다. 일상생활에서 청소년들의 컴퓨터/인터넷의 의존도가 점차 높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 64> “컴퓨터/인터넷이 없다면...”

(단위: %)

	2003 년	2000 년
거의 변화가 없을 것이다	4.1	7.8
별로 변화가 없을 것이다	11.6	15.9
약간 불편할 것이다	42.0	37.1
매우 불편할 것이다	42.3	39.1

같은 문항에 대한 하위집단별 응답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불편할 것이라는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여자(85.0%)가 남자보다 다소 많은 편이었지만, “매우 불편할 것”이라는 응답률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교급별로는 “매우 불편할 것”이라고 응답한 청소년의 비율이 대학생이 가장 높고(44.9%), 다음으로 중학생(42.6%), 고교생(40.5%)의 순이었으나 전체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 65> “컴퓨터/인터넷이 없다면...”: 성·교급별

	(단위: %)			
	거의 변화가 없을 것	별로 변화가 없을 것	약간 불편할 것	매우 불편할 것
남 자	4.6	11.8	38.9	44.8
여 자	3.6	11.4	45.2	39.8
중학생	4.2	12.1	41.2	42.6
고교생	4.4	11.0	44.1	40.5
대학생	3.3	11.7	40.1	44.9

통계: 성별 $\chi^2=10.26^*$, 교급 $\chi^2=4.21$

V. 월드컵현상과 신세대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1. 월드컵과 세대
2. R 세대 부상의 사회문화적 맥락
3.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산과 N 세대
4. 세대 패러다임의 전환: N 세대에서 R 세대로
5. 2002 년 신세대의 부상이 주는 교훈
6. 패러독스 시대, 패러독스 세대

1. 월드컵과 세대

본격적인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세대”가 사회적 담론의 새로운 소재로 떠올랐다. 언론과 학계가 젊은이들의 의식과 태도, 문화적 취향을 담아내기 위해 ~세대, ~족과 같은 신조어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최근의 현실이 이를 방증한다. 일본의 “신인류” 개념에 뿌리를 둔 신세대, 미국에서 회자되던 용어를 그대로 수입한 X 세대를 거쳐 오렌지족, 엄지족, 디지털노마드족, 코쿤족, 1318 세대, N 세대, M 세대, R 세대, 2030 세대에 이르기까지 오늘의 젊은이들을 지칭하는 용어는 이루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그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오늘의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와도, 또 이전의 젊은 세대와도 확연히 구분된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지식정보사회로 표현되는 오늘의 사회에서 젊은 세대는 연장자 세대들에 의해 축적된 문화·지식의 단순한 전수자가 아니며, 오히려 많은 측면에서 새로운 것의 창출자와 전달자의 위치를 점유해 가고 있다. 특히 2002년 “월드컵 참여” 붉은 악마 “촛불시위”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젊은 세대의 자화상은 지난 일백년 동안 일제강점과 미군주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등을 겪으면서 누적된 “외세피해의식”과 “개방콤플렉스”를 뛰어넘는 것이었다. 일련의 사건과 초유의 집단 체험, 자발성과 적극성, 파격성에 기초한 새로운 방식의 현실 참여 및 개입 행동을 통해 오늘의 젊은 세대들은 청소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담론 방향을 일거에 N 세대에서 R 세대, R 세대에서 2030 세대로 바꾸어 놓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문화매체가 확장되고 휴대폰과 인터넷이 일반화되며 자발적 동호회가 급성장하면서 세대간 차이와 갈등도 극명해지고 있다. 어느 시대이건 신세대와 기성세대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또 어느 시대의 신세대건 구세대와 갈등을 빚지 않은 적도 없다. 그런데도 유독 오늘날의 신세대가 사회적 이슈로 특별히 부각되는 까닭은 이들이 구세대와 비교해 보이는 차이가 과거 신세대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우리 사회의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떠오른 청소년세대의 성장 동인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이를 근거로 청소년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도출하며, 더 나아가 청소년세대의 잠재력과 활력을 성숙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하는 방안을 탐색한다.

먼저 새로운 세대, 특히 “R 세대”가 급부상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본다.

2. R 세대 부상의 사회문화적 맥락

네트워크 기술과 멀티미디어 기술의 결합으로 가능해진 정보통신혁명은 인간의 생활과 가치관에 있어서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산업사회의 대량생산-대량소비 체제에 조율된 평균적이고 정형화된 물적 상품 위주의 단순 소비 욕구는 상대적으로 쇠퇴하는 반면에, 자신만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Rojek, 1985; Fiske, 1989).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확산에는 이 같은 기술의 고도 발전과 사회문화변동이라는 거시 사회적 지표가 자리하고 있다.

가. 반복적 일상과 축제의 재발견

현대사회를 특징짓는 소비와 노동의 반복적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일상의 지리함, 갑갑함, 압박감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를 더욱 더 강렬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욕구는 오늘날 하나의 문화적 정향으로 자리를 잡았으며, 대다수 사람들의 문화욕구 구조 속에 내면화되기에 이르렀다.

통상적으로 일상 내지 일상적인 삶과 대립 항을 구성하는 것은 축제이다. 축제는 일상을 벗어나려는 사람들의 욕구가 가장 쉽게 표출되는 통로이다. 그런 만큼 축제공간에서는 상하, 선악, 귀천, 왕과 거지, 현자와 바보와 같은 일상의 이항대립 코드가 역전되기 일쑤이다(이어령, 2002).

전통적인 의미의 축제가 사라져 버린 오늘날, 새로운 형식의 의사 축제가 “이벤트”라는 외피를 입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젊은이들은 전통적인 축제, 국가 주도형의 축제에서 탈피하여 자신이 스스로 구성하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벤트를 양산해 내고 있다. 월드컵 개막과 함께 한국전이 있는 날이면 예외 없이 펼쳐졌던 대규모 길거리 응원과 화끈한 뒤풀이도 젊은이들에게 이러한 의미의 축제요 잔치였다.

다른 한편으로 집합주의 또는 사회 중심적 가치관이 약화되고 개인 중심적 가치관이 중요해지면서 인생의 목표를 “집단이나 사회에 기여하는 것”

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즐겁고 보람 있게 사는 것”에서 찾는 청소년들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선호하는 삶의 전형은 한마디로 “행복한 가정생활”이나 “자신의 취미에 맞는 생활”이다(최윤진, 1999: 231-232). 이처럼 일보다는 여가와 재미가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고 있는 현상은 월드컵 거리응원의 동기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경희대 사회정보연구소가 월드컵 직후 행한 조사에 의하면, “거리응원 참가이유”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색다른 경험”(34.2%), “응원이 재미있어서”(24.9%)라고 답해 축구경기 자체보다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대규모 응원을 즐기기 위해 길거리응원에 나섰음을 알 수 있다(경희대학교 사회정보연구소, 2002).

나. 복합세대의 등장

각종 영상매체, 인터넷, 멀티미디어의 발전은 이에 부합하는 새로운 세대의 출현을 가속화시켰다. 청각 미디어에 의존하여 정보를 얻어왔던 이전의 세대에 비해 새로운 세대는 더 많은 자극과 감각을 필요로 하는 영상 세대이다. 영상 세대는 오디오(audio)와 비주얼(visual)이 함께 제공되어야만 만족하는 복합 세대이자 그래픽, 소리, 동영상 등 시청각적 이미지를 통해 즉각적으로 정보를 파악하는 감각 세대이다(한상진, 2002; 백옥인, 1994). 따라서 이들은 심각하거나 따분한 것을 싫어하며, 재미있고 즉각적인 것을 선호한다¹. 그렇다고 이들이 단순히 TV 나 PC 앞에 앉아 시청하는 것에 만족하는 정주성 세대는 아니다. 이들은 대형 전광판 주위에 둘러앉아 함께 소리를 지르면서 또는 다른 사람과 직접 부대끼면서 축제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이번 월드컵에서 카드섹션과 구호, 강렬한 붉은 색의 물결, 높은 대중성을 지닌 응원가 등이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¹ 이 점은 풍자적이고 유머러스한 10 대들의 은어와 축약형 언어들, 패스트푸드점을 선호하는 청소년들의 음식 취향, 과거에 비해 가볍게 이루어지는 이성교제의 양상 등에서 엿볼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시각적 이미지에 익숙해지면서 “볼거리”가 중요해질 뿐 아니라 볼거리의 내용과 형식 또한 더욱 자극적으로 변해간다. 그리하여 이제 볼거리는 단지 정보 전달의 기능을 넘어 욕망의 해결사 역할을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쇼”라는 말이 청각과 시각이 결합한 다채로운 행사를 의미하는 것처럼 젊은이들은 본다는 것을 보고 즐긴다는 것, 좀 더 다양한 자극에 자신을 맡긴다는 것과 동의어로 간주하고 있다(김성철·최우영, 1998; 김준수, 2002).

기존의 비디오와 오디오에 더하여 컴퓨터도 멀티미디어화되고 네트워크화되어 영상 세대를 위한 다양한 시각적 자료의 출처를 제공하고 있다. 텔레비전이 일방적인 볼거리만을 제공해 주었던 데 비해 새로운 매체인 인터넷은 원하는 볼거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청소년들의 대표적인 활동 공간으로 부상했다. 월드컵과 길거리응원 역시 한편으로는 자신이 “직접 하는” 축제의 장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본질은 “보는 것”이었다. 축구경기를 보면서 신명나는 응원축제를 벌인 것이다.

볼거리와 함께 자신이 그럴 듯 하게 보이기를 원하는 젊은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는 최근의 대표적인 유행어가 코디네이션(coordination)이다. 처음에 패션분야의 전문용어로 사용되었던 이 단어는 의복에서 외모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이 전반적으로 하나의 그럴듯한 볼거리가 되기를 바라는 젊은이들의 최근 기호와 취향을 반영하면서 “삶의 코디네이션”(life coordination)이라는 용어로까지 그 의미가 확대되었다. 월드컵 축제기간 중 등장한 태극기 패션과 붉은 색 문신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의 일단을 엿볼 수 있었다.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거리에는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신체에 태극기 문신을 하고 태극기로 두건, 치마, 망토를 해 입은 인파가 넘쳤다(<표 III-8> 참조, p. 90)

볼거리 욕구와 더불어 자아 표현의 욕구도 증가하고 있다. 자아 표현의 욕구란 개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자신의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확인 및 표출하고자 하는 욕구, 타인으로부터 폭넓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말한다. 고래(古來)의 결핍 동기에 의한 가치 지향, 즉 타인에 비해 내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획득하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추구되는 가치 지향은 약화되는 반

면에, 차별화 동기에 의한 가치 지향, 즉 개별적 취향과 개성에 따라 욕구가 다양화되는 경향은 강화되고 있다. 선호하는 직업의 유형이 사회적 평판에 관계없이 다양해지고 있고, 직업 선택에 있어 남녀구분이 적어지고 있으며, 파격적 의상이나 헤어스타일 등을 통해 개성적인 외모를 연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월드컵 기간 중에는 이것이 현란한 몸치장과 개성적인 자기 주장뿐만 아니라 한국 축구의 선전 및 대규모 길거리 응원에 대한 외신과 외국의 평가에 대한 민감한 반응으로 표출되기도 했다.

다. 여가 패러다임의 등장과 개별 여가의 커뮤니티화

최근 노동시간이 감소하고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재진입하면서 여가 활동 및 여가 관련 서비스가 각광을 받고 있다. “삶의 질”이 중요시되는 후기산업사회에서 여가는 인간의 기본권으로 인식되며,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기회 또한 다양화되기 때문이다(김문겸, 1993; 김광득, 1997; Rojek, 1985).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말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여가 환경의 일시적인 위축이 있긴 했지만, 격주 휴무제, 주5일 근무제의 실시와 함께 본격적인 대중 여가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여가활동은 개인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 없이 혼자서 해 나갈 수도 있지만, 클럽이나 동호회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차별화된 여가를 추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개별적인 방식의 여가 이외에 자발적인 여가 커뮤니티를 형성해 활동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들이 여가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자신의 취미나 특기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을 만드는 것이다(김재갑 외, 1998).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와 같은 커뮤니티화 트렌드는 개인주의의 진전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근대화와 산업화의 부산물인 집단 분절화에 대한 보상적 대응 행위로서 자발적 커뮤니티를 형성해 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여가문화에는 구성원들 간의 정서적 동질감을 중요시하는 “집단신명” 혹은 “신바람”이라

는 독특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다(김준수, 2002). 비록 합리주의와 개인주의가 현대 한국 사회의 공적인 생활 원리로 권장되고 있다고는 하나, 한국인의 의식 저변에는 여전히 “공동체적 생활정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최근에는 여가활동의 학습화가 일어나면서 여가는 단순히 취미이기보다는 특기 혹은 전문 활동의 하나로 간주되는 추세에 있다. 특히 매니아들을 위한 정보교류의 장으로서 사이버공간의 활용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리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관심영역 혹은 개성의 표출을 위해 PC 통신 동호회나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공동체에 가입하고 있다. 붉은 악마의 모태인 하이텔통신 축구 동호회도 이 같은 여가 패러다임의 등장과 사이버공동체의 활성화, 사이버문화의 등장과 확산이라는 우리나라 사회문화 변동의 큰 흐름 속에서 출현했다. 붉은 악마는 회원들이 사이버공간에 모여 축구를 논하면서 자연스럽게 커뮤니티화되었고, 축구국가대표팀을 응원하면서 오프라인화했으며, 월드컵이 다가오고 축구에 대한 사회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폭발성장”하기에 이르렀다.

라. 게임 메타포의 확산

육체의 상대적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는 게임 수요, 특히 디지털 게임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세로 나타났다. 사회경쟁이 날로 격화되어 가는 오늘날,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려는 게임의 논리와 게임마인드의 적용이 군사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은 물론이요 일반 사회 행위에까지 확산되어가고 있다. 게임에 대한 이 같은 수요는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문화 영역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게임은 단지 컴퓨터와 디지털 기술 발전의 산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와 산업의 주요 영역으로서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분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게임원리는 도구적 행위의 차원을 넘어 생활세계의 다방면으로 외연이 확대되었으며, “인생은 게임이다”라는 게임 메타포(metaphor)가 현대인의 의식 깊숙이 각인되기에 이르렀다(김문조, 2001).

특히 청소년들의 게임 욕구와 수요는 폭발적이다. 선진국에 비해 다양한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이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한 한국사회에서 개별 가정이나 PC 방 등을 근거지로 한 디지털 게임은 최근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에 있다². 국내에는 1 만 명 이상이 동시에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하나의 게임을 벌이는 “리지니”같은 온라인 게임이 압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리지니” 이외에도 “한게임” “포트리스 2 블루” “넷마블” 등이 동시 접속자 10 만 명을 넘는 거대 온라인 게임으로 성장했다(게임종합지원센터, 2001; 한겨레 21, 2000. 2. 20). 수많은 청소년들이 월드컵에 빠져들고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의 승리에 열광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처럼 게임 욕구로 충만한, 그리고 게임의 사유와 논리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월드컵 경기를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게임의 하나로 인식한 사실이 자리하고 있다. 이들에게 게임은 더 이상 “농땡이 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취향에 따라서 즐기는 것, 즉 재미있는 놀이의 하나였던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축구경기장과 시청 앞 광장은 일상생활로부터의 신체적, 정신적 탈출을 시도하고 비일상적 체험을 하며 게임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자 최적의 매력적인 대안이었다. 축구 경기장 또는 시청 앞 광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행위 자체가 이들에게 일상생활로부터의 탈출이자 게임에의 동참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² 한국정보문화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PC 방에서 주로 하는 일은 게임, 정보검색, E-mail, 채팅의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은 게임 47.1%, 정보검색 21.0%, E-mail 14.6%, 채팅 11.4%, 문서작성 3.6%, 증권매매 0.7%, 성인사이트 접속 0.6%, 상품구매 0.1%, 기타 10.8%이었다(한국정보문화센터, 2000).

3. 사이버스페이스의 확산과 N 세대

얼마 전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실시한 한국, 미국, 일본, 프랑스 청소년 대상의 국제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청소년의 정보화 수준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컴퓨터 이용률이 프랑스 63.9%, 미국 41.8%, 일본 41.95%인데 비해 한국은 93.3%이었으며, 일주일에 10 시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시간 이용자의 비율도 프랑스 24.2%, 미국 15.1%, 일본 8.4%인데 비해 한국이 25.8%로 가장 높았다(전효관, 2000: 156; 윤철경, 2000: 11). 또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집에 컴퓨터가 있고 주로 내가 사용”한다는 응답이 2000 년 51.9%에서 2003 년 9 월 현재 70.2%로 높아졌으며, 인터넷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청소년의 비율도 2000 년 46.9%에서 2003 년 69.8%로 크게 증가했다(<표 IV-62> 참조, p. 176).

이와 함께 한국의 청소년문화는 집단적이고 획일적인 산업사회의 문화로부터 매니아 중심, 자기표현, 참여 및 퍼포먼스를 특징으로 하는 지식정보사회형 문화로 바뀌었다. 그리하여 오늘의 젊은이들은 지루하고 답답하며 틀에 박힌 생활에서 탈출하고자 사이버공간에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를 매개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며, 오프라인 세계에까지 그 관계를 확장한다. N 세대, M 세대를 넘어 W 세대, R 세대로 불리는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이버공간의 가상현실 경험을 오프라인 현장으로 옮겨오기도 하고, 오프라인 경험을 사이버공간으로 가져와 새로운 체험의 기반으로 삼기도 한다(뉴스메이커, 2002; 현대경제연구원, 2002a; 김종길, 2000). 더 나아가 사이버공간은 청소년들이 학교와 가정이라는 소통 부재의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친밀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리적인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이 보장하는 익명성·개방성·평등성은 사이버 커뮤니케이션의 참여자들이 깊은 자기노출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면적 상호작용에 서는 느끼기 어려운 정도의 높은 친밀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Reid, 1991; Rheingold, 1993a, 1993b; Sachs, 1995).

2002년 R 세대 또는 W 세대로 불린 새로운 세대의 출현은 이처럼 자발적인 인터넷 공동체의 형성과 발전, N 세대의 등장과 성장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사이버공간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는 N 세대의 등장과 성장은 R 세대와 2030 세대를 가능하게 한 토대이자 전제 조건이었다. N 세대는 새로운 나만의 것을 추구하고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세대였다. 또 이들은 일방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는 데 만족하지 않고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며, 높은 독립심과 자율성을 가진 세대였다(한상진, 2002). 일찍이 N 세대의 부상을 예고한 탭스콧(Tapscott, 1998)은 “어릴 적부터 디지털 문명에 익숙해져 컴퓨터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본격적인 사이버 세대로 아날로그 매체인 책, 신문보다 디지털매체인 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모든 문화를 수용한다”고 N 세대의 특징을 집약한 바 있다.

이제 청소년들은 매체의 특성에 부합하며 구체적인 관심사를 반영하는 자신들만의 새로운 공동체를 실험해가고 있다. 이렇게 깊이가 더해진 관심의 결과는 특정 문제에 대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매니아문화”라는 질적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청소년 자신에게 또 다른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있다. 나아가 쌍방향성, 개방성, 비동시성이라는 인터넷의 독특한 커뮤니케이션 구조는 청소년기의 특징인 독립성과 자율성, 적극적인 자기표현력, 다양성, 강한 개성문화 등과 친화력을 지니기 때문에 기존 청소년문화의 활성화나 새로운 형태의 청소년문화 실험이 시도되고 있다. 청소년 중에서 매니아 집단과 잠재적 매니아 집단이 정보를 수집하는 경로 중 PC 통신(15.6%, 16.3%)과 인터넷(14.4%, 17.6%)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매체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1999).

한일 공동 월드컵은 인터넷의 이 같은 위력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였다. 월드컵에 대한 한국민의 관심과 열기는 인터넷에서 먼저 달구어졌다. 월드컵 기간 동안 각 포털사이트 게시판에는 한국의 승리를 기원하고 선전을 바라는 네티즌들의 염원을 담은 글이 넘쳤다. “심장이 터질 듯하다” “결승까지 가자” “한국이 자랑스럽다”며 흥분한 네티즌들의 함성으로 거의 모든 웹사이트가 후끈 달아올랐다(뉴스메이커, 2002. 6. 17; 전자신문, 2002. 7. 2). 커뮤니티 사이트 “다음”이 운영하는 카페 서비스엔 하루 평균

30여 개의 월드컵 관련 카페가 생기는 등 총 5,000여 개의 카페가 사이버 공간에서 생겨나 한국팀의 승리를 기원했다. “프리챌”도 웹사이트를 통해 이틀 만에 붉은 악마 티셔츠 5,000장을 판매할 정도로 월드컵의 열기로 가득 찼다. 붉은 악마 티셔츠와 수건, 태극기 등을 아바타 아이템으로 제작하여 회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한 행사는 며칠 사이 수만 명이 참여하는 대성황을 이루었다. 네티즌들이 찾는 인터넷상 인기 검색어와 이미지, MP3 사운드, 동영상 등도 모두 “월드컵” “축구” “한국팀 응원가” 붉은 악마등 월드컵 일색이었다. 주요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은 이미 한 달여 전부터 한국의 월드컵 16강 진출을 기원할 수 있도록 특별 게시판이나 카페 사이트 등을 마련했고, 일부 인터넷 사이트는 “사이버 고사장”까지 만들어 한국의 승리에 대한 네티즌들의 희망과 소원을 한데 모았다.

4. 세대 패러다임의 전환: N 세대에서 R 세대로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N 세대의 개성과 참여의 열정 뒤에는 지나친 개인주의화, 인터넷 중독증과 불건전정보의 범람, 정체성 혼란, 익명성에 따른 인간성 상실 등의 어두운 그늘이 도사리고 있게 마련이다. 이와 함께 사이버공간의 네트워킹에서 채워지지 않는 정신적 공허감을 스킨십과 인간적 접촉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청소년들 역시 증가했다. 월드컵은 이들이 더 이상 자신의 활동 반경을 사이버공간에만 국한하지 않고 오프라인 광장으로 뛰쳐나오는 호기를 제공했다(김종길, 2002).

하지만 이 같은 변화의 단초는 이미 3 년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른바 “학교붕괴”가 절정에 이르던 2000 년 여름, 청소년들은 인터넷에서 “온라인 모임”을 만들고, 이를 활용하여 여름부터 가을까지 “두발자유화” 운동을 전개했다. 당시 10 대 중·고등학생들의 두발자유화 문제는 공중과 방송의 공개토론 프로그램에 올려질 정도로 관심과 논란의 대상이었고, 어느 정도 결실도 거두었다. 거리를 활보하는 오늘의 여중·고생을 유심히 살펴보면 예전에 “귀를 내놓는” 정도로 짧은 머리를 강요받던 시기는 이미 흘러간 옛 얘기임을 알 수 있다. 웬만한 학교의 여학생들은 긴 머리를 하고 다니며, 파마, 젤, 염색을 한 경우도 심심찮게 목도된다(이순철, 2002). 2002 년 6 월 거리 응원에 대거 참여했던 청소년들은 바로 이들, 즉 인터넷을 매개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자신들이 바라는 바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새로운 세대였던 것이다.

특히 이번 월드컵 길거리 응원에서 분출된 여자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자기표현 행태는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에서의 조사 결과, “월드컵 기간 중 한국팀을 응원하기 위하여 길거리나 경기장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의 모든 하위 항목에서 남자 청소년보다 여자 청소년의 참여 비율이 높았다(<표 III-9> 참조, p. 90).

R 세대로 불린 새로운 세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리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여겨온 “개발연대 세대”와 달랐으며, 강한 민족적 성향과 집단

의식을 강조하지만 민주화 투쟁을 경험하면서 지나치게 엄숙하고 형식적인 태도를 보인 “386 세대”와도 구분되었다(현대경제연구원, 2002). 그렇다고 이들이 단순히 N 세대인 것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N 세대는 사이버공간에 매몰된 채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며, 국가에 대해서도 무관심한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R 세대는 인터넷으로 네트워크화되어 있으면서도 최첨단 멀티미디어인 대형 전광판과 개방된 광장을 중심으로 모여서 대규모의 단체 응원을 펼친 세대였다. 청소년들의 56.7%(대학생 포함)가 월드컵 기간 중 최소한 한 번 이상 시청 앞 또는 광화문 등과 같이 전광판이 설치된 길거리나 광장에서 거리응원을 한 경험이 있으며, 38.8%의 청소년들은 야구장, 공설운동장과 같이 전광판이 설치된 대형 공공시설에서, 또 47.5%의 청소년들은 TV 나 대형모니터가 있는 실내공간에서 응원을 한 경험이 있었다(<표 III-3> 참조, p. 86).

이들은 응원과정에서 다양한 개성, 집단적인 공동체 의식, 개방된 애국주의를 동시에 보였으며, 월드컵을 일과 놀이가 결합된 축제로 승화시켰다. 지금까지 등장했던 세대군 내지 사회문화적 존재군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과는 달리 이들은 월드컵이라는 단 한 번의 이벤트를 통해 일거에 관심 세대로 부상했다. 월드컵 진행 과정에서 이들이 보여준 폭발적인 응집력과 잠재력은 한국 사회의 건강한 미래를 담보하는 양질의 통합적 에너지로 평가되고 있다.

가. 붉은 악마에 투영된 청소년세대

붉은 악마의 성장을 주도한 세력은 바로 이들이었다. 2002 년 월드컵 직후 한국청소년개발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또 다른 설문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 청소년들의 8.4%, 즉 우리나라 청소년 10 명 중 한 명이 붉은 악마의 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의 60.0%가 “월드컵 이전”, 38.6%는 “월드컵 기간 중”에 붉은 악마에 가입했다고 응답해 이미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부터 청소년이 붉은 악마의 중심 세력으로 활동했음을 알 수

있다(이경상, 2002).

월드컵 기간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응원방법을 묻은 질문에 청소년들은 “카드섹션 문구 응원” 35.6%, “초대형 태극기 응원” 30.6%, “붉은 옷의 통일” 23.0%의 반응을 보여, 이들이 “불거리”와 “보여주기”를 즐기는 감각 세대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붉은 색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과 관련, 청소년들의 96.2%가 “붉은 색은 빨갱이를 나타내는 상징이므로 붉은 옷을 입어서는 안 된다”는 문항에 부정적이었던 반면에, “붉은 색은 정열적인 축제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91.2%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에게 붉은 색이 기성세대의 경우처럼 레드 콤플렉스를 나타내는 부정적 상징이 아니라 친근한 축제의 표식으로 다가와 있음을 보여준다.

이 같은 세대간 인식차이는 태극기에 대한 청소년들의 태도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났다. 태극기를 엄숙하게 다뤄야 할 상징으로 보고, “옷, 목도리, 망토로 걸쳐서는 안 된다”는 문항에 88.9%의 청소년들이 거부감을 나타낸 반면, “태극기는 아름다움의 상징이므로, 페이스페인팅이나 수영복 디자인에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의 비율은 76.9%이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거리응원에서 태극기 패션, 붉은 색의 옷, 바디 페인팅이 대거 등장한 것이, 일차적으로는 이것들이 응원단을 결속시키는 데 가장 유효한 구심체 역할을 한 것에 그 원인이 있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감성으로 통하고 몸으로 표현하는 R 세대의 변화된 의식과 문화가 투영된 결과임을 보여준다³. R 세대는 문화적 취향과 스타일에서 기성세대와 분명한 구

³ 일각에서는 월드컵 대회 기간에 보여준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뜨거운 “태극기 사랑”을 잠재된 애국심의 발로로 보거나 “상처받은 민족주의”의 한 표현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1990년대 이후 전개된 한국 자본주의의 변화상, 즉 문화자본주의의 도래라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해석으로 보기 어렵다. 문화자본주의의 시대에 청소년의 몸은 그저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락의 대상이자 관심의 집중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엄기호, 2000: 55). 월드컵 기간중에 젊은이들이 바디 페인팅을 하고 몸에 태극기를 두르며 “대~한민국” 구호에 몸을 실은 행위는 몸이야말로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기호가 되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해석은 월드컵 이후의 첫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은 7월 17일 서

별짓기를 하고 있었으며, 그것이 길거리 응원의 활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다(현대경제연구원, 2002; 이동연, 2002).

청소년들이 응원에 참여한 주된 이유와 관련, “축구에 대한 관심”보다는 “한국의 거둬들인 승리로 인해 애국심이 생겨서”라고 답변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41.2%로 가장 많았으며, “원래 축구를 좋아하였으므로”라고 응답한 사람은 38.8%이었다. 축구에 대한 관심보다는 “응원분위기를 틈타 실컷 즐기며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도 11.3%이었다. 이를 통해 보건대, 청소년들의 월드컵 응원 참여열기의 고조와 “붉은 악마화”는 축구에 대한 기본적 관심 이외에 사상 최초의 월드컵 4강 신화 달성이라는 한국의 예기치 못한 성공과 이에 따른 즉발적 애국심의 확산, 길거리 응원의 축제적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 축구 경기장은 일상생활로부터의 신체적, 정신적 탈출을 시도하고 비일상적 체험을 하며, 놀이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자 최적의 매력적인 대안이었다. 축구 경기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행위 자체가 이들에게 일상생활로부터의 탈출이자 놀이에의 동참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수많은 인파가 운집한 시청 앞 광장과 젊은이들의 손끝에 따라 움직이는 사이버공간은 볼거리, 자기표현, 참여와 퍼포먼스의 기회를 찾아 헤매는 퓨전 세대를 위한 “기능적 등가”(functional equivalents)의 활동공간이자 최적의 기회공간이었다. 전국민의 “붉은 악마화” 역시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기 시작한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에너지의 발산이 기성세대에게까지 전이된 결과로 볼 수 있다⁴.

울 시내의 태극기 게양률이 상당히 저조했다는 사실에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연합, 2002. 7. 17).

⁴ 초기에 사이버공동체 붉은 악마를 구성한 연령집단은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의 축구 애호가들이었다. 하지만 붉은 악마의 사회적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세력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의 청소년층이었다. 이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길거리응원이 30-40대의 아줌마세대를 거쳐 통세대적으로 확산되었던 것이다. 세대간 존재하는 사고방식이나 생활양식의 차이를 “세대격차”(generation gap)라고 부르는데, 월드컵 기간중에 보여준 청소년세대의 행태와 특성은 단순한 세대차를

나. “촛불시위”에 투영된 청소년세대

월드컵이 한창이던 2002년 6월 13일, 미군 퀘도차량이 우리나라의 두 여중생을 짓밟게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20일에는 주한 미 8군 군사법원 배심원단이 이들 여중생 사망 사고와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퀘도차량 관제병에 대해 무죄평결을 내렸다. 두 여중생의 죽음이 이처럼 “피해자만 있고 피의자가 없는 사건”으로 종결되자 시민단체와 함께 젊은 세대는 우리 정부에 불평등 논란이 이는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의 개정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다.

“역사적 날”로 기억될 2002년 11월 30일 토요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네거리에 2,000여명이 운집한 가운데 최초의 촛불시위가 이루어졌다. 다음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또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SOFA 무효”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일주일 뒤인 12월 7일엔 5만개의 촛불이 켜졌고, 다시 일주일 뒤인 14일엔 10만 여명의 사람들이 광화문을 “반딧불 바다”로 만들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네티즌들이 주축이 되어 불과 사흘 만에 만들어낸 대규모 촛불시위 역시 온라인공간과 오프라인 현장을 넘나들며 활동하는 청소년들의 적극적 참여 없이는 생각하기 어려웠다는 사실이다. 수평적 관계에 익숙한 청소년들에게 불평등이란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놀 때는 모든 것을 잊고 즐기지만 우리 민족과 우리 사회, 한국인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사태는 결코 방관할 수 없다는 의식이 이들에게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급조된 여러 관련 사이트 게시판에 집회 일정 논의에 대한 글이 뜨면 대학생, 회사원, 주부는 물론이요 10대까지 폭넓게 참여하는 열기가 일었다.

이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또 다른 측면은 월드컵 길거리 응원 참여 경험인 촛불시위 참여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월드컵 기간 중 집밖에서의 응원 참여 경험이 없었

넘어 청소년세대가 기성세대를 추월하고 압도하는 “세대 뒤통”(generation lap)의 양상을 보였다. 세대 뒤통 개념에 대해서는 Tapscott(1999) 참조.

던 이른바 “비참여” 청소년집단이나 월드컵 집박 응원참여 빈도가 평균 이하인 “일반 참여” 청소년집단보다 월드컵 집박 응원참여 빈도가 평균 이상인 “적극 참여” 청소년집단에서 촛불시위 참여경험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표 III-55> 참조, p. 129). 이는 월드컵 기간 중 이루어진 길거리 응원 참여의 성공 체험이 청소년들에게 “집단 학습”되어 대규모의 촛불시위 동참으로 이어졌다는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다. 2002 년 대통령선거에 투영된 청소년세대

정보통신기술로 무장한 젊은 세대는 2002 년 12 월 대통령선거에서 또 다시 사회의 전면에 등장했다. 이들은 선거기간 내내 인터넷과 이동전화를 통해 선거관세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으며 긴밀하게 움직였다. 매스미디어가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제한된 정보를 거부하고, 원하는 정보를 스스로 찾고, 또 적극적으로 알렸다. 당초 예상과 달리 인터넷과 휴대전화는 조직과 돈, 이념공세와 지역기반 등 기성세대의 정치자산을 늘렸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이 젊은 세대 주도의 정치혁명을 낳은 것이다.

2002 년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율이 사상 최저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후보가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이처럼 그를 지지하는 비율이 크게 높았던 20-30 대가 결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온라인 거점이었던 노사모 홈페이지는 하루 평균 100 만회 접속을 기록했다. 북핵과 반미시위, 행정수도 이전 등 이슈가 터질 때마다 각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언론사, 시민단체, 정당 등의 인터넷 게시판과 토론방에는 시간당 1000 건이 넘는 토론 글이 쇄도했고 다른 주장에 의견을 덧붙이는 답 글이 꼬리를 물었다. 특히 대선 후보 TV 토론이 있는 날이면 2-3 일 전부터 “인터넷 인스턴트 메신저”를 이용하여 수만 명이 같은 방에서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투표 참여에 미온적이던 20 대 초반의 젊은이들이 대거 동참한 데는 개인전화와 인터넷 등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었던 것에 더해, 붉은 악마와 촛불시위에서처럼 젊은 세

대 주도의 집단행동이 가져온 놀라운 성과를 스스로 체득했기 때문이었다.

기성세대와는 달리 다양한 교육을 받은 이들 세대는 대학에서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키웠고,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 수집력으로 보수 언론의 냉전수구 이데올로기에 저항하는 논리를 키웠다. 개성과 자기주장을 강조하고, 기존의 권위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신세대 문화가 마침내 정치문화 현장에도 반영된 것이다. 그런 면에서 2002년 대통령 선거는 세대 사이의 가치관 차이를 극명하게 확인시켜 준 세대전이자 젊은 세대가 정치 권력의 향방을 결정한 최초의 선거였다. 유권자의 절반에 가까운 20대와 30대의 절대적인 지지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고, 50대 이후에서 많은 지지를 얻은 후보가 패배했기 때문이다.

“붉은 악마-반미촛불시위-선거운동”의 대변화로 이어지는 젊은 네티즌의 물결은 이제 현실을 바꾸는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부상했다. 이처럼 이들이 기성세대가 지탱하고 누려왔던 가치관 속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목소리를 거리낌 없이 낼 수 있게 되고 기존 사회의 틀을 깰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시대의 도래, 사이버공간의 확장이 결정적인 동력이었다. 결국 시대적 흐름 속에서 권위적이고 보편화된 가치관과 질서를 거부한 젊은 세대는 이 같은 사이버 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기성의 문화를 흡수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내면서 사회의 전면에 등장해 세대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낸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온라인 공간에 안주하던 네티즌들이 오프라인 현장에 집결하는 초유의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들의 이 같은 “오프라인 현장 결집 현상”은 온라인 공간에서 가졌던 수동적 주체의식이 오프라인 현장의 능동적 주체 의식으로 전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네티즌 스스로 능동적 참여 형태를 찾아낸 것이다. 수동적인 주체로만 남아 있기에는 기존의 오프라인 권력이 이들 세대에게는 너무나 권위적이고 위압적으로 비쳤을 법하다. 이들에게 오프라인 공간은 기존의 사회질서로 무장된 견고한 권력의 세계였다. 그리하여 사이버공간을 주요 활동 무대로 하는 새로운 세대에게 자신을 억누르는 이런 기존의 힘에 대한 강한 반발이 형성되어 갔으며, 이를 표출할 수 있는 특정 계기가 주어지자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한 것이다.

5. 2002 년 신세대의 부상이 주는 교훈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양식, 사고방식, 심미적 취향, 말투, 의상 등을 통틀어 청소년문화라고 부르는데, 그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상존한다(김신일, 1993: 9-11; 최윤진, 1999: 226).

첫째, 가장 일반적인 시각으로 청소년문화를 미숙한 문화로 보는 입장이 다. 부모와 같은 입장에 서 있는 어른들의 눈에 청소년들은 언제나 모자라고 미숙하게만 생각된다. 청소년들에게 문화라고 이름 붙일 만한 것도 없지만, 문화라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은 아직 미숙하고 모자라는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둘째, 청소년문화를 비행 문화로 보는 입장이 있다. 청소년들이란 공부나 일보다는 놀기를 좋아하고, 어른 몰래 나쁜 짓 하기를 즐긴다는 식이다. 의식적으로 사회적 규범을 깨뜨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고, 사회의 일반 규범을 따르지 않는 것이 이들 사이에서는 오히려 영웅시된다. 성인 만화, 음란 비디오, 퇴폐적 노래, 술, 담배, 심지어 성적 문란과 환각제에 이르기까지 청소년들은 비행문화를 만든다. 이 같은 입장에서는 청소년들을 항상 부모나 교사 또는 성인들의 감독 하에 두어야 한다고 믿으며, 청소년들끼리 놔두면 언제나 문제를 일으킨다고 본다.

셋째, 청소년문화를 일종의 하위문화(subculture)로 보는 입장이다. 청소년문화는 사회의 전체 문화 중 일부분을 이루는 문화라는 뜻이다. 하위문화로서의 청소년문화는 전체 사회문화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청소년이라는 연령 집단에 적합한 문화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각 연령집단마다 그 연령에 걸 맞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문화가 존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로 간주된다.

넷째, 청소년문화를 대항문화(counter-culture) 또는 반(反)문화로 보는 입장이 있다. 기성세대의 문화를 주류 문화라고 하면 청소년문화는 반문화가 된다. 청소년들은 기성세대의 문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문화를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개혁과 변화를 요구한다. 새로운 세대가 기성세대에게

비판을 가하고 반항하는 이유는 그들이 미숙하거나 빼뚫어졌기 때문이기보다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인생관과 역사관, 부모세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청소년문화를 새로운 문화로 보는 시각이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식으로 새로운 세대는 그들 나름의 새로운 문화를 형성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청소년들이 보여주는 이상한 몸짓과 말투, 이상스러운 옷차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남녀간의 행동, 한심스러운 인생관 등은 어른들의 눈에나 이상스럽고 한심스럽게 보이는 것이지, 청소년 자신들에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행동이다. 그런 만큼 청소년문화를 청소년들이 가지고 살아갈 그들 세대의 문화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들 중 우리 사회에 가장 일반화된 것은 미숙한 문화, 비행 문화의 차원에서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부모와 같은 “어른의 시각”에서 청소년은 언제나 자라는 과정에 있는 존재이며, 따라서 이들의 문화는 미숙한 문화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던 까닭이다.

그러나 이번 월드컵은 청소년에 대한 기성세대의 이 같은 인식이 상당 부분 “오류”임을 보여주었다. 젊은 네티즌들은 인터넷을 통해 월드컵과 축구에 대한 일반 여론을 조성하고 선도했으며,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질풍노도”와 같은 그들에 떠밀려 몸과 마음이 붉게 “동화되고” 말았다.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 및 젊은 세대의 문화는 세대와 지역의 벽을 뛰어넘는 곳으로까지 영향력을 확대했으며, 일정 부분 한국 문화를 이끌어 가는 주류문화로까지 발전했다(최원기, 2002). 이는 거리응원 과정에서 젊은이들이 보인 행동방식과 문화가 신속하게 통세대적으로 확산된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단체로 넥타이를 풀고 거리에 나온 직장인이나 머리에 띠를 두른 꼬마아이와 젊은 엄마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목이 터져라 대한민국을 외치고 월드컵의 열정을 몸소 체험하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서적 유대감을 새롭게 형성할 수 있었다. 이제 청소년들의 집합행동과 문화가 우리 사회의 생동적 발전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자극인 동시에 활력소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신세대가 우리의 주목을 받는 이유도 이들이 이처럼 미래의 창조적 화합을 책임질 새로운 세대로서의 싹을 보였기 때문이다.

가. 세대 화합의 구체적 방법론 제시

월드컵이 우리에게 안겨준 선물 중의 하나는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 간에 화합과 일체감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와 세대간 대화의 장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기성세대에게 청소년들은 나약하다거나, 버릇이 없다거나, 자기만 알고 이웃과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거나 하는 등의 부정적 시각이 강했다. 젊은 세대들은 그들대로 기성세대를 “낡고 부패한 세대”라고 폄하하곤 했다. 그런데 붉은 악마라는 공동의 경험은 세대간의 물이해와 갈등을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한달 여의 월드컵 기간 동안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함께 응원했는데, 이처럼 기성세대와 청소년세대가 한마음 한뜻으로 응원한 경험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 중 하나인 세대 갈등을 해결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나. 청소년 친화적인 놀이문화의 모형 제시

R 세대의 청소년들은 길거리에서 기존의 도덕주의, 금욕주의, 엄숙주의에서 탈피하여 신명나는 놀이를 즐겼다. 놀면서 평생토록 기억에 남을 엄청난 체험을 했다. 평소에는 금지되었을 공간에서, 평소 같으면 해서는 안 될 “신나게 놀기”를 해도 어른들에게 혼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했다는 소리를 듣는 묘한 상황이 전개된 것이다. 이 같은 역설의 상황이 가능했던 이유는 길거리 응원이 단순히 축구경기를 응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국민적인 축제요 집단적 놀이였기 때문이다(황익주, 2002; 김홍주, 2002; 이순철, 2002). 이와 같은 자발적이고 창발적인 놀이는 정부가 개입하여 인위적으로 그 열기를 지피려 하거나 공식화, 제도화, 시스템화 등의 방식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재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허용된 일탈” “자발성” “포용성” 등 R 세대의 놀이에서 나타난 특징들은 우리 사회에도 앞으로 자발적이고 창발적이며 청소년 친화적인 새로운 놀이문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다. 청소년문화에 내재된 자발적 잠재력의 활용 가능성 제시

맹목적인 유행의 추종과 비행문화의 온상으로 오해받곤 했던 청소년문화가 월드컵을 계기로 우리 사회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다. 월드컵 기간 동안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로 한 곳에 모였고, 자신의 목소리로 대한민국을 외쳤다. R 세대의 잠재력을 분출시킨 거리응원은 예전의 동원된 국가 행사와 달리 젊은 세대의 자발성에 근거를 둔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런 만큼 R 세대는 “모래알 세대”로 표현되던 N 세대가 오프라인 현장에서의 자발성(volunteerism)이라는 새로운 자양분을 공급받아 건강한 공동체주의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태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가 만든 다양성 속의 통일이 새로운 시민의식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라. 청소년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

거리응원이 국민적 축제로 승화되어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힘은 국가가 시청 광장이나 거리에 축제의 장을 마련해 주고 언론을 통한 캠페인, 질서 유지 등 최소한의 역할만을 했던 것에 있다(삼성경제연구원, 2002). 그런 만큼 국가는 과거처럼 의도적으로 대중을 동원하거나 직접 개입하는 방식의 청소년정책에서 R 세대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동참할 수 있도록 분위기와 환경을 만드는 정책으로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국가는 공정한 룰 형성을 위한 제도와 자발적 참여의 장 마련에 주력하고 R 세대는 이를 활용하여 자신의 긍정적 잠재력을 분출하는 식의 역할 분담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그들의 실질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이 새로이 모색되어야 한다. 일부 기관에서 실험적으로 시행되어 온 청소년 창안제도, 혹은 청소년에게 문화축매요원이나 운영요원의 역할을 부여하는 방안들은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문화활동 참여의 측면에 있어서도 문화행사나 문화공간에 의례적으로 관여하는 수준을 넘어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자의식이나 일체감을 생성할 수 있는 능동적 참여 및 자원봉사의 개념이 적극

활용될 필요가 있다(김문조, 2002).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참여하는 청소년문화축제의 전형을 만들어 청소년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한 가지 예가 될 수 있다.

마. R 세대의 열정은 적극적 정치 참여의 잠재적 기폭제

청소년세대는 정치로부터 자유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에 무관심하거나 이를 혐오하는 세대로 알려져 왔다. 현상적으로 보기에 붉은 악마 신드롬과 그들의 정치 참여는 역의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는 듯하다. 월드컵 기간 중에 있었던 지방자치선거에 대거 불참했던 청소년들이 거리응원에는 폭발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표 III-56> 참조, p. 129).

그러나 한국 축구가 4 강에 오르는 동안 청소년들이 보여주었던 높은 참여 열기는 정치부문이 그들의 관심을 붙잡을 흥밋거리와 성취감을 맞볼 기회를 조금이라도 제공한다면 폭발적인 정치참여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역(逆)해석을 가능하게 한다(정해구, 2002). 이미 2000 년 총선의 “낙천낙선 운동”이나 2002 년 대통령선거과정에서 그 일면이 드러난 바 있는 젊은 세대의 정치 참여 및 변화의 열망은 이 같은 희망의 현실화 가능성을 보여주는 분명한 징표이다.

제일기획이 최근 전국 5 대 도시의 17-39 세 1 천 6 백 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80%가 “내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낙관적 반응을 보였다. 또 이들 중 70%는 “최근의 사회 변화를 바람직하게 생각한다”고 응답했다(중앙일보, 2003. 6. 8). 이들은 열정(passion)과 힘(potential power)을 바탕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참여(participation)를 통해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대(paradigm-shifter)이며, 386 세대의 사회의식, X 세대의 소비문화, N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R 세대의 공동체 의식이 융합돼 나타나는 새로운 전형의 신세대 집단이다.

6. 패러독스 시대, 패러독스 세대

21 세기의 초입에 들어선 오늘의 사회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우리의 예측과 기대를 벗어난 사건들, 서로 모순되는 현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 그중 특히 눈에 띄는 현상은 신민족주의의 대두와 세계시민의식의 성장, 물질 만능주의와 탈물질주의, 보편주의와 원리주의, 문화의 동질화와 이질화처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동시에 공존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한 분야나 학술 담론 수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과학, 기업경영 등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공존을 의미하는 세방화(glocalization), 대량 생산과 소품종 주문 생산의 동시적 추구를 의미하는 대량 주문생산(mass customization), 전문화와 전문적인 영역 구분의 파기를 동시에 함축하는 유연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와 같이 겹으로 보기에는 상충되는 현상들의 결합을 표현하는 독특한 신조어들이 학계에서 양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김종길, 2001).

복잡성과 불확실성, 대립되는 요소들의 공존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로 이행해감에 따라 개인이나 조직, 국가가 직면하는 도전 역시 증대하고 있으며, 그 방향 역시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차원적이다. 구체적으로 우리의 조직행동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서로 상충되는 요소나 모순들에 부딪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우리는 이제 더 적게 비용을 지출하면서 더 많은 일을 하도록, 집중하면서도 다원화하도록, 권한을 아래로 위양하면서도 세부 사항을 더 잘 알도록,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실패하지 않도록 강요받고 있다(Stroh and Miller, 1993: 28-39). 바야흐로 개인과 조직, 국가의 수준 모두에서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요구받는 “패러독스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Handy, 1994; Yoon, 1998).

포스트모더니즘(postmodernism) 이론가들은 이러한 뒤집음과 뒤섞임의 현상을 종종 “해체” 혹은 “탈구성”(deconstruct)의 용어로 표현하곤 했다.

이것은 단순히 기존 문화에 대한 저항이나 반대가 아니다. 탈구성은 구성되어 있던 것,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던 것이 해체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순되고 역설적으로 보인다. 결국 우리가 혼란스러운 것, 모순된 것, 패러독스라고 생각하는 것은 원래부터 잘못된 것이 아니다. 단지 우리들에게 익숙한 종전의 구조가 탈구성되는 과정이 역설적으로 보이는 것일 뿐이다(정명호, 1997: 45).

사회변동의 큰 흐름에서 볼 때, R 세대는 “패러독스의 시대”(the age of paradox)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전령이다. 386 세대든, 개발세대든, 전쟁세대든 간에 기성세대는 통제와 자율,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인간과 기계,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그리고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현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양자택일(either/or) 세대”였다.

<표 V-1> 패러독스 세대의 특징

양자택일 세대	패러독스 세대
소규모 조직화 vs. 거대 조직화	즉시적(ad-hoc) 조직화
장소의 공동체 vs. 역할의 공동체	관심의 공동체
영속적 vs. 한시적	일시적
인간 vs. 기계	하이테크 하이터치
오프라인 공간 vs. 온라인 현장	온라인공간과 오프라인현장의 결합
집단주의 vs. 개인주의	집단적 개인주의
통제 vs. 자율	자율적 통제
통일성 vs. 다양성	다양성 속의 통일
정주형 vs. 이동형	유목형
로컬(local) vs. 글로벌(global)	글로컬(glocal)
민족주의 vs. 개방주의	개방적 민족주의
하향식 vs. 상향식	미들-업-다운(middle-up-down)
계획적 vs. 우연적	우연적 계획
공식적 vs. 비공식적	탈공식적
기계적 vs. 유기적	자기조직적
경쟁 vs. 협동	상생

반면에 R 세대는 서로 충돌하는 요소와 가치관들 사이의 조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체현했다. 예컨대, 이들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양자택일 대신에 집단적 개인주의를, 민족주의와 개방주의의 양자택일 대신에 개방적 민족주의를, 경쟁과 협동의 양자택일 대신에 상생을, 통제와 자율의 양자택일 대신에 자율적 통제를, 지방화와 세계화의 양자택일 대신에 세방화를 추구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명백히 “패러독스 시대”에 조응하는 “패러독스 세대”이다(<표 V-1>, p.204).

젊은 세대의 패러독스적 성향은 월드컵 축제 기간 중 이루어진 길거리 응원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현장의 유기적 결합으로 이중적인 가치지향을 조화시켰다. 온라인 공간에서 만개하는 개인의 취향과 표현 욕구 및 자발성이 한 편에 있고, 사회 문화 현실에서 작동하는 강한 집단 응집력과 단결의 요구가 다른 한 편에 있다면, 이 둘이 배타적이 되기보다는 상보적이 되도록 이끄는 어떤 능력이 월드컵 축제에 내장되어 있었다(한상진, 2002). 이들은 사이버공간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면서도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된 모습에서 탈피하여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나타냈으며, 기성세대와도 하나가 되어 화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와 더불어 선진 세계에 일방적으로 매몰되지 않는 탈사대주의의 성향도 보였다.

일반적으로 집단주의는 공공의 적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으로 대중을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약하고, 따라서 일탈과 손실이 큰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패러독스 세대로서의 신세대는 동원된 행사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 참여했으며, 월드컵을 동원된 행사가 아닌 놀이로서 즐겼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재충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거리청소와 같이 자신의 할 일을 술선수범하는 자기 규율적인(self-regulated) 자세도 보였다. 길거리응원과 평화적인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무질서의 질서”는 시민의식이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 행동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화된 기준에 의해 윤리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내적 자기규율(self-regulation)로 승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복지향은 편협한 집단 귀속의식에서 보다 넓은 국민의식, 종국적으로는 보편적 세계시민(cosmopolitan) 의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였다. 개인 대 개인 또는 집단 대 집단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통의 정체성”을 찾아 공유하는 것이다. 청소년 주도의 월드컵 길거리응원은 남자냐 여자냐, 기성세대냐 젊은 세대냐, 노동자냐 자본가냐 하는 식의 개별적 하위 집단 정체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상위의 공통 정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별적인 정체성을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통합의 잠재력을 보였다(최인철, 2003: 27).

또한 타 국가에 대한 내국인 응원단인 서포터즈는 열린 마음과 작은 관용의 표현으로 세계에 감명을 주었으며, 이 같은 개방적 국민의식은 폐쇄적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서 세계시민 의식으로, 더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정서, 즉 자유, 정의, 빈곤, 평화, 환경 등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였다.

산업사회의 원리들을 상당 부분 부정하는 인터넷,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활동하는 청소년세대, 이들이 주도한 붉은 악마 현상과 촛불시위는 우리 사회가 패러독스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음이다. 패러독스 시대로의 이행은 우리에게 산업화 시대 이래 익숙한 엄격성, 폐쇄 구조, 포괄적인 주제, 중심 권위, 고정 가치 등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다원성, 차이, 불안정성, 다양성, 모호함, 유연성, 패러독스 등을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월드컵, 붉은 악마, R세대, 2030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전환기적 교훈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바로 이 점이 아닌가 한다.

결 론

1. 요약과 논의

2. 포스트월드컵의 청소년 정책과제

1. 요약과 논의

2002년 한일 월드컵을 통하여 우리는 아시아권 국가 최초의 4강 진출이라는 신화와 더불어 경기외적인 측면에서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였던 이른바 “월드컵현상”이라는 독특한 사회현상을 경험하였다. 또한 월드컵 이후 전개된 촛불시위, 대통령선거 등 일련의 사회과정을 통하여 월드컵현상의 외연이 확대되면서 우리는 월드컵현상이 단순한 일과성의 이변이 아닌 한국 사회·문화의 구조적 변화 또는 그 잠재적 가능성을 시사하는 사회과학적 지표일수도 있다는 인식을 얻게 되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월드컵현상의 주도세력으로 부각된 신세대 청소년들의 역할과 그 의미이다. 이른바 “R 세대” “W 세대”로 지칭되는 신세대들은 월드컵을 전후한 일련의 사회과정의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대론적 관점에서 광의의 월드컵현상의 의미를 재해석하면 “신세대의 능동적·자발적 사회참여” “온라인 세대의 오프라인 진출” “세대간 교류와 공감대 형성” “개방적인 매니어집단의 등장”으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월드컵현상을 통해 나타난 신세대의 성격과 역할은 그들을 사회적 이슈에는 무관심한 자기중심적·소비지향적 세대로만 낙인해 온 우리사회의 통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이것은 월드컵현상을 통해 확인된 신세대의 모습이 그동안 사회적 제약으로 발현되지 못하였던 그들의 내재적 속성이었거나, 아니면 신세대의 의식과 태도가 변화된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월드컵현상을 통해 나타난 신세대의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실증적·이론적으로 구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월드컵현상을 통해 확인된 신세대의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조장하고 함양할 수 있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과제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가. 월드컵현상의 문화적 배경

2002년 한일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행사에 머물지 않고 한국사회 문화변동의 성격과 방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었다. 산업화의 시작과 함께 “청소년”이라는 연령에 기초한 새로운 사회범주가 등장하면서부터, 기성문화(주류문화)와 청소년문화는 상호 영향과 길항의 변증법적인 관계 속에서 사회의 문화적 변동을 이끌어 왔다.

정보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새로운 매체와 과학기술에 친숙한 청소년문화는 인터넷에 기반한 가상현실 공간을 장악하고 점차 그 영향력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가고 있다. 청소년문화는 이제 과거의 부분문화, 대항문화의 성격에서 벗어나 사회의 문화적 주도권을 놓고 기성문화와 경합하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월드컵현상은 우연히 등장한 일과성의 이변은 아니며, 이와 같은 거시적인 일련의 문화변동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지난 해 우리사회가 체험한 국민적 역동성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가상현실 공간에서 성장한 신공동체 문화가 월드컵을 계기로 현실사회에 발현되고, 기성세대가 이를 수용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월드컵을 통해 문화적 자의식을 확보한 청소년세대는 이후 가상현실 공간을 매개로 직접 거리와 광장으로 뛰어나와 촛불시위의 확산과 새로운 정권 탄생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2002 한일 월드컵과 한국의 청소년문화는 상호 영향력을 교환하면서 문화변동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였던 것이다. 월드컵과 청소년문화의 관계구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정보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가상현실 공간에서 성장해 온 청소년문화의 잠재적 역량은 붉은 악마로 상징되는 월드컵 응원문화를 통해 현실사회에서 발현되게 되었다. 청소년세대의 자발성·개방성에 기초한 응원문화가 세대와 계층, 지역을 초월하여 전 국민에게 확산됨으로써 열광 속의 질서, 다양성과 통합성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거리응원이 가능하였던 것이다.

둘째, 월드컵은 우리사회에서 청소년문화가 가상현실에서 현실세계로, 소

외와 고립에서 참여와 개입으로 옮겨가는 문화변동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월드컵 거리응원에서 나타난 청소년문화의 신공동체적 속성은 사회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연결되어 미군 장갑차사건에 대한 촛불시위의 발의와 전국적인 확산과정에서 청소년세대의 주도적인 역할과 참여를 가능하게 하였다.

셋째, 그 결과 기성세대에 의해 주도되어 왔던 기존의 비합리적 관행들도 이제는 새롭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논리구조가 힘을 얻어가고 있으며, 점차 기성세대 전반으로 확산되어가고 있다. 청소년 인권과 선거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고, 지난 해 연말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2030 세대”로 지칭될 수 있는 젊은 계층의 사회적 영향력이 강화되었던 것도 청소년문화를 기축으로 한 한국사회 문화변동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월드컵현상의 사회·문화적 맥락

지난 해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는 청소년세대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인 역할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청소년들을 거리와 광장으로 유인하여 월드컵을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킬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맥락과 그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청소년들의 월드컵 참여는 사회의 정치·경제·문화적 권력이 조성한 “허용된 축제적 일탈의 장”의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다. 한국팀의 경기가 있는 날이면, 거리와 광장에는 전광판을 비롯한 응원시설과 소품이 준비되고, 일상적 자기표현의 수위를 넘는 흥분과 열광이 암묵리에 용인되고 장려되기까지 하였다. 이와 같은 사회적 권력의 허용적 태도는 월드컵이 내포하고 있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에 대한 전략적 고려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월드컵은 단일 경기종목의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올림픽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갖고 있다. 전세계의 대부분의 국가가 FIFA의 가맹국이고, 개최 기간 중 세계인의 이목은 월드컵 경기에 집중되어, TV 시청 인구가 올림픽의 규모를 월등하게 상회한다. 따라서 국가, 기업, 언론의 입장에

서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행사에 머물지 않고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자본의 수출증대 효과를 기할 수 있는 전략적 매체가 되기도 한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관련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민족주의의 고양을 통해 정치·사회적 갈등을 잠재우는 사회적 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청소년세대를 월드컵 응원으로 유인한 또 하나의 요인은 붉은 악마의 성공적인 응원전략과 매스미디어를 통한 응원관련 상징의 급속한 확산·공유의 메커니즘을 들 수 있다.

축구매니아들의 폐쇄적 온라인 동호회로 출발한 붉은 악마는 축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온라인-오프라인을 포괄하는 개방형 조직으로 그 성격을 변경하였다. 복잡한 가입절차가 생략되면서 붉은 악마의 회원수는 급속하게 증대하였고, 조직구조의 개방성·이질성 극복을 위해 간결하고도 단순한 응원상징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호, 응원가가 고안되었다. 월드컵 기간 중 나타난 “모든 청소년의 붉은 악마화” 나아가서는 “전 국민의 붉은 악마화” 현상은 이와 같은 붉은 악마의 응원전략과 매스미디어의 경쟁적인 보도 열기, 월드컵에 편승한 기업의 광고전략이 맞물린 상승효과로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월드컵 참여가 성공적으로 이뤄지게 된 마지막 요인은 학습으로 인한 스트레스, 일상의 무료함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신세대의 억압된 욕구를 들 수 있다.

가정과 학교의 제한된 생활공간에 갇혀 있던 청소년들에게 월드컵은 허용된 축제와 일탈의 장을 제공했다. 월드컵 기간 중 청소년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자신들의 억압된 욕구와 개성을 분출할 수 있었다. 불과 며칠 사이에 한국팀의 승리를 기원하는 수천개의 사이버 커뮤니티가 개설되고, 거의 모든 인터넷 게시판은 네티즌들의 흥분과 열기에 가득찬 글들로 메워졌다. 또한 청소년들은 수동적인 TV 시청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소품과 페이스페인팅, 태극기 패션으로 무장하고 거리와 광장에서 전개된 응원을 주도해 갔다.

다. 청소년의 월드컵 경험과 평가

청소년들의 월드컵 참여경험과 그 평가, 월드컵경험이 청소년들에게 미친 영향 등을 설문조사의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전국의 중·고교생과 24 세 이하의 대학생 2,306 명을 표본으로 하여 학급단위의 집단조사와 개별조사를 병행하였다.

월드컵 응원참여 경험

월드컵대회 기간 중 거리와 광장, 공공시설 등에서 전개된 응원에 참여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8 할 수준에 달하였다(78.5%). 응원참여율에서 남녀간의 차이는 없었고, 중·고교생보다는 대학생의 참여율이 높은 편이었다. 응원한 장소로는 길거리·광장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56.6%), 다음으로 집 이외의 실내공간(47.7%), 대형 공공시설(38.8%), 월드컵 경기장(10.9%)의 순이었다. 시설공간의 응원은 남자, 대학생의 참여율이 높았지만, 길거리·광장 응원에는 여자도 남자와 대등하게 참여하였고, 고교생의 참여빈도가 가장 높았다.

전체 청소년의 7 할 이상이 붉은 색 T-셔츠를 착용하였고(70.4%), 절반 이상이 태극기 등 소품을 활용하였으며(54.9%), 보디(페이스) 페인팅 경험자도 3 할을 넘었다(35.5%). 응원참여율은 남녀가 유사하였지만, 응원행태에 있어서는 여자가 훨씬 적극적이어서, 보디(페이스) 페인팅, 태극기 소품 활용, 붉은 색 T-셔츠 착용 경험률이 여자가 남자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월드컵을 계기로 한 새로운 응원문화가 여자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월드컵대회의 평가

월드컵 이전에 한국팀의 성적을 4 강 이상으로 예상했던 청소년은 1 할 남짓한 소수에 불과하였다(14.2%). 대다수의 청소년들에게 지난 해 월드컵에서의 한국팀의 성적은 기대 이상의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월드컵대회의 전체적인 평가에 있어서는 전체 청소년의 9 할이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응답하였다(90.0%). 대체로 남자보다는 여자, 대학생보다는 중

· 고교생이 월드컵의 성과를 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었다.

월드컵 성공의 기여요인으로서 조사대상이 된 11 가지 항목 중에서 “선수들의 단결과 조직력”(95.3%), “히딩크 감독의 전술/지도력”(95.0%), “붉은 악마등 서포터즈의 활동”(92.3%)이 9 할 이상의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전체적인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은 직접 경기에 참여한 한국팀의 감독과 선수들의 노력이 월드컵 성공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기성세대보다는 청소년 자신들의 관심과 참여를 더 높이 평가하였고, TV·신문과 같은 일반 대중매체보다는 인터넷이 월드컵대회의 성공에 보다 많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월드컵대회의 운영과 진행을 담당한 공공부문에 대한 평가가 다른 요인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월드컵의 영향과 효과

월드컵대회의 개최경험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이 92.4%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국민들의 시민의식의 발전”(84.3%),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79.7%) 등의 순이었으며, “정치적인 민주화와 발전”(54.2%)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과 “시민의식 발전”의 응답률이 높은 것은 국제적인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루었다는 자신감과 월드컵기간 중 확인된 시민들의 높은 질서의식이 청소년들에게 강한 인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월드컵 경험은 청소년들의 국가 이미지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터키는 이미지가 크게 호전된 반면(51.7%), 이탈리아와 미국은 매우 악화되었다(각각 54.3%, 49.1%). 이탈리아의 경우 경기 후의 판정시비가, 터키와 미국의 경우에는 경기외적 요인(한국전쟁 참전국, 미군장갑차 사건)이 이미지 변화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월드컵을 통해 청소년들이 느끼고 경험한 것을 모두 19 가지 항목에 걸쳐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가 가장 높은 응답률(87.7%)을 나타내었고,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86.2%),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86.2%)는

청소년이 8 할 이상에 달하였다. 응답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들은 월드컵을 통해 일상생활의 스트레스 해소뿐만 아니라 노력과 훈련의 중요성과 같은 중요한 사회적 원칙들을 재확인하고, 국가적 자부심과 자신감이 높아졌고, 세계시민으로서의 국제적 관심과 유대감이 증진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응원참여 청소년의 특성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특성을 비참여집단과 비교하여 조사하였다. 먼저 배경변인에서는 성·지역·계층뿐만 아니라 학업성적에 있어서도 양 집단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교급별로는 대학생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편이었는데, 이것은 중·고교생의 학업부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일반 청소년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월드컵대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는 응원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훨씬 긍정적이었다. 월드컵이 성공적인 행사였다고 평가한 청소년의 비율이 참여집단이 비참여집단보다 월등하게 많았고, 월드컵 성공의 기여요인으로서 사회적 관심과 참여, 감독·선수들의 능력과 역할에 대해서도 참여집단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월드컵대회를 통해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보다 많은 생활·의식의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월드컵대회가 우리사회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인터넷 활용도·의존도의 측면에서 응원참여 집단과 비참여집단간에는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즉, 응원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보다, 적극참여집단이 일반참여 집단보다 컴퓨터의 점유도와 인터넷 이용빈도, 정보매체로서의 인터넷 의존도가 높은 수준이었다.

생활만족도의 측면에서는 응원참여 집단이 비참여 집단에 비해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자신의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또한 월드컵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자기 세대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인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사회참여의 측면에서는 응원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촛불시위 참여율이 매

우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월드컵 응원 참여 청소년들이 사회적 이슈와 쟁점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평화적인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성향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청소년의 생활·의식 특성과 그 변화

월드컵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들의 새로운 행동·의식의 특성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사회 청소년들이 생활영역 전반에 걸쳐 어떤 태도와 의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앞서의 월드컵 경험과 평가 조사와 동일한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고, 같은 조사표를 사용하여 2000 년에 실시된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이종원 외, 2000)의 응답결과와 시계열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가족의식·가족관

연로한 부모님 부양의사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적극적 부양형(“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돌봐 드리겠다”)이 과반수를 상회하였으며(62.8%), 소극적 부양형이 3 할 수준이었고(33.6%),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 제도에 의존하겠다는 응답은 소수에 머물렀다.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적극적 부양형이 근소하게 증가하였고, 소극적 부양형은 감소하였다. 부모님을 자식이 모셔야 한다는 전통적인 부양의식이 큰 변화없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식을 보면, “반드시 결혼을 해야할 필요는 없다”와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이혼할 수 있다”의 긍정응답률이 과반수를 상회하였다(각각 55.5%, 75.1%). 상당수의 청소년이 전통적인 결혼·이혼관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세대관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결혼을 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대다수의 청소년이 반대하지만(71.7%), 전통적인 3 세대 가정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이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50.5%).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대해서 모든 항목에 걸쳐 긍정응답률이 소수에 머물러(“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가 22.0%,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가 21.2%, “남자·여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가 38.2%,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가 12.3%),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전통적인 세대관, 성역할관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결혼·이혼에 대한 태도는 매우 급속한 속도로 서구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현실 인식

현행 학교교육의 문제점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각 항목 별 긍정응답률을 보면 “과외를 안해도 학교수업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가 48.9%, “잘사는 집 아이가 못사는 집 아이보다 공부도 더 잘한다”가 41.3%, “공부를 잘 할려면 부모의 뒷받침이 중요하다”가 67.2%였다. 청소년의 상당수가 대학 진학을 위해서는 과외가 불가결하고,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개인의 노력 못지 않게 가정의 배경이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우리사회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청소년도 과반수를 상회하였다(58.3%).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대학 진학을 위해 과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크게 증가하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좋은 성적을 위해서는 가정의 계층적 배경이 중요하다는 응답률도 증가하였다.

현재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질문한 결과,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64.8%로서 가장 많았고, “자신의 적성/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46.9%). 청소년들이 현재 중·고등학교의 교육내용이 주로 상급 학교 진학에 대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성/소질 계발의 측면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국가관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모두 10 가지 항목의 사회문제 유형을 서술형 문장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을 응답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에 그렇다고 응답한 청소년이 89.5%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잘살고 못사는 사람간의 격차가 심하다”(88.8%), “집안이나 뒷 배경이 중시된다”(86.7%),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84.5%),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84.0%)의 긍정응답률이 8 할을 상회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사회문제 항목 중 하나를 제외하고 모두 과반수 이상이 그렇다고 응답하여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 현실에 대하여 비판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동일한 조사문항에 대한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항목에서 긍정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들의 사회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이 심화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우리사회의 부문별 발전수준에 대한 응답결과를 보면, “국민들의 문화·예술수준이 높다”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청소년이 37.5%로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23.6%),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고 있다”(19.3%), “경제적으로 풍요롭다”(17.5%) 등의 순이었고,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의 긍정응답률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9.6%).

같은 조사문항에 대한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항목에 걸쳐서 긍정응답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국가 전반의 발전수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은 변함이 없지만, 짧은 기간 동안에 모든 부문에 걸쳐 긍정적인 평가가 증가한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고 있다”에 대한 긍정응답률이 2000 년의 11.1%에서 19.3%로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월드컵대회를 통해 시민들의 높은 질서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 그 주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

우리사회 현실 전반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는 청소년이 8 할 수준에 달하였지만(82.0%), 자신이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만족하는 청소년도 7 할 이상이였다(71.8%). 많은 청소년들이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국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은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했을 때 한국인으로서의 만족한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는데,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 경험이 일정 부분 영향을 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 일반·정보화

청소년들이 자신의 일상생활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 또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동네), 친구관계, 취미/여가생활의 다섯가지 생활영역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친구관계의 만족응답률이 87.9%에 달하여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가정생활(71.4%), 취미/여가생활(71.2%)의 순이었고, 학교생활(66.9%)과 자기 동네(66.7%)의 만족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이해하고 있다는 응답률이 친구가 81.5%로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어머니(73.7%), 아버지(57.5%), 학교선생님(38.8%)의 순이었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또래집단이 차지하는 높은 비중을 엿볼 수 있다.

현재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고민·걱정거리가 무엇인지 질문하였다. 응답결과를 보면,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다고 응답한 청소년은 3.7%에 불과하였고, 구체적인 고민·걱정거리로서는 “진로문제”를 선택한 청소년이 39.3%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공부/학업문제”(25.6%), “금전/경제적인 문제”(10.6%), “이성문제”(7.1%)의 순이었다. 고민·걱정거리의 상담상대는 친구나 선·후배가 49.0%로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어머니(18.2%), 형제/자매(6.0%), 아버지(4.1%)의 순이었으며, 학교선생님의 응답률이 가장 낮았다(1.3%).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거리를 부모님이나 학교선생님과 상의하기보다는 주로 또래집단내에서 해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청소년도 16.9%에 달하였다.

청소년들의 정보화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집에 컴퓨터가 있는지, 있다면 그 주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컴퓨터가 없는 청소년은 극소수였고, 8 할 이상이 집의 컴퓨터를 주로 자신이 사용한다고 응답하였다.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컴퓨터가 없는 가정이 14.8%에서 3.3%로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컴퓨터를 주로 자신이 사용한다는 응답률도 51.9%에서 77.5%로 크게 증가였다.

인터넷의 이용빈도는 “거의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이 7 할 수준에 달하였고(69.8%), 전체 청소년의 94.8%가 일주일에 최소한 하루 이상 이용한다고 응답하였다. 2000 년의 응답결과와 비교하면, 인터넷을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은 12.6%에서 2.3%로 감소한 반면, “거의 매일” 이용하는 청소년은 46.9%에서 69.8%로 2 할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3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인터넷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보급되어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불가결한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 월드컵현상과 신세대의 사회·문화적 정체성

본격적인 정보사회의 도래와 함께 “세대”가 사회적 담론의 새로운 소재로 떠올랐다. 지식정보사회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에서 청소년세대는 기성세대로부터 일방적으로 문화·지식을 전수받는 존재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의 창출자와 전달자의 위치를 점유해 가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붉은 악마-촛불시위-대통령선거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회·문화과정을 통하여 젊은 네티즌의 물결은 이제 현실을 바꾸는 하나의 강력한 힘으로 부상했다.

이들이 기성세대가 지탱하고 누려왔던 가치관 속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목소리를 거리낌 없이 낼 수 있게 되고 기존 사회의 틀을 깰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 시대의 도래, 사이버공간의 확장이 결정적인 동력이었다. 결국 시대적 흐름 속에서 권위적이고 보편화된 가치관과 질서를 거부한 젊은 세대는 사이버 시대의 주역으로 활약하면서 기성의 문화를 흡수하고,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어내면서 사회의 전면에 등장해 세대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어낸 것이다.

21 세기 초입에 들어선 오늘의 사회는 상호모순되는 이질적 요소의 동시적이라는 새로운 사회현상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공존을 의미하는 세방화(glocalization), 대량 생산과 소품종 주문 생산의 동시적 추구를 의미하는 대량 주문생산(mass customization), 전문화와 전문적인 영역 구분의 파기를 동시에 함축하는 유연 전문화(flexible specialization)와 같이 겹으로 보기에에는 상충되는 현상들의 결합을 표현하는 독특한 신조

어들이 학계에서 양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복잡성과 불확실성, 대립되는 요소들의 공존을 특징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로 이행해감에 따라 개인이나 조직, 국가가 직면하는 도전 역시 증대하고 있으며, 그 방향 역시 이전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차원적이다. 바야흐로 개인과 조직, 국가의 수준 모두에서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목표들을 동시에 달성하도록 요구받는 “패러독스의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사회변동의 큰 흐름에서 볼 때, R 세대는 “패러독스의 시대”(the age of paradox)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전령이다. 386 세대든, 개발세대든, 전쟁세대든간에 기성세대는 통제와 자율,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인간과 기계, 민족주의와 세계주의, 그리고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현실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고수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양자택일(either/or) 세대”였다. 반면에 R 세대는 서로 충돌하는 요소와 가치관들 사이의 조화 가능성을 타진하고 체현했다. 예컨대, 이들은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양자택일 대신에 집단적 개인주의를, 민족주의와 개방주의의 양자택일 대신에 개방적 민족주의를, 경쟁과 협동의 양자택일 대신에 상생을, 통제와 자율의 양자택일 대신에 자율적 통제를, 지방화와 세계화의 양자택일 대신에 세방화를 추구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명백히 “패러독스 시대”에 조응하는 “패러독스 세대”이다.

젊은 세대의 패러독스적 성향은 월드컵 축제 기간 중 이루어진 길거리 응원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 공간과 오프라인 현장의 유기적 결합으로 이중적인 가치지향을 조화시켰다. 온라인 공간에서 만개하는 개인의 취향과 표현 욕구 및 자발성이 한 편에 있고, 사회 문화 현실에서 작동하는 강한 집단 응집력과 단결의 요구가 다른 한 편에 있다면, 이 둘이 배타적이 되기보다는 상보적이 되도록 이끄는 어떤 능력이 월드컵 축제에 내장되어 있었다. 이들은 사이버공간을 주요 활동무대로 하면서도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개인주의적이고 파편화된 모습에서 탈피하여 “우리는 하나”라는 공동체의식을 나타냈으며, 기성세대와도 하나가 되어 화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또 이들은 민족적 자긍심의 고취와 더불어 선진 세계에 일방적으로

매몰되지 않는 탈사대주의의 성향도 보였다.

일반적으로 집단주의는 공공의 적에 대한 분노나 적개심으로 대중을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 절제가 약하고, 따라서 일탈과 손실이 큰 경우가 많다. 하지만 패러독스 세대로서의 신세대는 동원된 행사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스스로 찾아 참여했으며, 월드컵을 동원된 행사가 아닌 놀이로서 즐겼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재충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면서도 자발적인 거리청소와 같이 자신의 할 일을 술선수범하는 자기 규율적인(self-regulated) 자세도 보였다. 길거리응원과 평화적인 촛불시위에서 보여준 “무질서의 질서”는 시민의식이 외부적인 기준에 의해 행동이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화된 기준에 의해 윤리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내적 자기규율로 승화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witz향은 편협한 집단 귀속의식에서 보다 넓은 국민의식, 중국적으로는 보편적 세계시민(cosmopolitan) 의식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였다. 개인 대 개인 또는 집단 대 집단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통의 정체성”을 찾아 공유하는 것이다. 청소년 주도의 월드컵 길거리응원은 남자냐 여자냐, 기성세대냐 젊은 세대냐, 노동자냐 자본가냐 하는 식의 개별적 하위 집단 정체성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상위의 공통 정체성을 부각시킴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개별적인 정체성을 뛰어넘어 하나가 될 수 있는 통합의 잠재력을 보였다. 또한 타 국가에 대한 내국인 응원단인 서포터즈는 열린 마음과 작은 관용의 표현으로 세계에 감명을 주었으며, 이 같은 개방적 국민의식은 폐쇄적 자국 이기주의를 넘어서 세계시민 의식으로, 더 나아가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정서, 즉 자유, 정의, 빈곤, 평화, 환경 등에 대한 보다 많은 관심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였다.

산업사회의 원리들을 상당 부분 부정하는 인터넷, 이를 기반으로 하여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 공간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활동하는 청소년세대, 이들이 주도한 붉은 악마 현상과 촛불시위는 우리 사회가 패러독스의 시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음이다. 패러독스 시대로의 이행은

우리에게 산업화 시대 이래 익숙한 엄격성, 폐쇄 구조, 포괄적인 주제, 중심 권위, 고정 가치 등을 포기하고, 그 대신에 다원성, 차이, 불안정성, 다양성, 모호함, 유연성, 패러독스 등을 활용할 것을 요구한다. 월드컵, 붉은 악마, R 세대, 2030 세대가 우리에게 주는 전환기적 교훈이 있다면 일차적으로 바로 이 점이 아닌가 한다.

2. 포스트월드컵의 청소년 정책과제

가.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

2002 년 한일 월드컵을 통하여 우리는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된 모습과 더불어 그동안 인식하지 못하였던 청소년세대의 새로운 사회·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른바 “월드컵현상”을 통해 나타난 신세대의 새로운 모습은 그들을 사회적 이슈에는 무관심한 자기중심적·소비지향적 세대로만 낙인해 온 우리사회의 통념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었다.

월드컵대회 기간 중 청소년들은 거리와 광장에서 전개된 응원과정을 주도하여 월드컵을 국민적 축제로 승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미군 장갑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시위의 전국적 확산과 새로운 정권의 출범과정에서 청소년·청년세대는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하여 현실을 개혁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정보사회의 진전과 더불어 새로운 매체와 과학기술에 친숙한 청소년세대는 인터넷에 기반한 가상현실 공간을 장악하고 점차 그 영향력을 현실사회 전반으로 확산해 가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정책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정책대상·환경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의 정립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월드컵현상을 통해 확인된 신세대 청소년들의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조장하고 정보화사회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그 대표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월드컵이 내포하고 있는 스포츠를 통한 국제평화의 이념과 지난 해 우리사회가 성취한 성과를 계승할 수 있는 기념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2002 년 한일 월드컵대회는 단순한 스포츠행사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 시민사회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기록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청소년과 일반국민에게 공개하는 작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접근성·활용도, 예산 등의 측면에서 물리적인 시설보다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형태로 “사이버 월드컵기념

관”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해 촛불시위 과정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정치·사회적 쟁점과 이슈에 대한 청소년들의 참여욕구는 점차 증대하고 있으며, 이를 제도적·합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의 사회참여는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참정권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의 법령이 18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하여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유독 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서는 20세 이상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현행 선거법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선거연령을 18세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선거연령의 하한을 조정하여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셋째, 청소년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작업이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청소년육성과 관련된 법령은 모두 140여개에 달하는데, 각 법령마다 청소년연령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서로 상충되는 조문들이 혼재해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들 법령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서는 법령 조문의 비교·검토작업과 함께 소관부서와의 협의·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청소년관련 법령의 기본준거가 되는 “청소년기본법”의 개정을 통한 올바른 위상 정립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청소년기본법은 “타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상위법으로서 규정되어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과 차별화되지 않는 청소년육성관련 세부적인 정책과정과 절차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기본법이 청소년관련 각종 법령의 기본준거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를 통한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네트워크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육성부문의 제한된 예산과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시설·물량 위주의 성장전략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자원의 개발 못지 않게 전국에 산재해 있는 기존의 가용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그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유스트레블 네트워크”와 지역 단위의 다양한 청소년 조직·기관의 협의기구인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보호 네트워크”를 그 대표적인 정책대안으로서 제안하고자 한다.

다섯째, 청소년관련 정보·자료의 디지털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육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확산과 더불어 관련 정보에 대한 청소년과 일반국민의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문서·책자 위주의 정보 관리와 보급으로는 증가하는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고 체계적인 관리도 불가능할 것이다. 장기적인 계획하여 청소년 정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를 추진하고 인터넷과 연동하여 일반인이 쉽게 열람·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청소년 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의 일차적인 과제로서 “청소년 수련활동 데이터베이스”와 “청소년지도자 데이터베이스” 개발사업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섯째, 지역사회의 청소년 육성·보호 기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사회에서 마을·동네로 지칭되는 지역사회는 주민들간의 긴밀한 유대와 협력관계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담당해 왔다. 산업화·도시화의 과정을 통하여 이와 같은 전통적인 역할과 기능이 해체되면서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는 단순한 물리적 생활공간으로서 그 의미가 축소되어 가고 있다. 사회환경의 변화에 적합한 형태로 지역사회의 청소년 육성·보호 기능이 복원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지역사회의 청소년 육성·보호 기능의 증진방안으로서 “지역사회 청소년 정보봉사단” 구성과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개발

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세계화·국제화를 향한 시대적 흐름에 대응하여 청소년정책에 있어서도 다양한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단순한 상호방문의 형태에서 벗어나 국제평화를 위한 각국 청소년들의 토론과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공동선언의 형태로 발표하는 컨퍼런스형의 교류 프로그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는 그 현실적인 방안의 하나로서 한국·중국·일본 3 개국 청소년의 교류 프로그램인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청소년 포럼”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논의한 청소년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대표적인 정책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음 절에서는 각 정책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것이다.

<표 VI- 1> 새로운 청소년정책의 방향과 추진과제

정책방향	추진과제(대표사업)
월드컵 이념·성과의 계승	1) “사이버 월드컵기념관” 건립
청소년 사회참여 제도화	2) 참정권 확대: 선거연령 하한조정 추진
청소년법령체계 정비	3) 청소년기본법의 개정과 위상 정립
청소년관련 인력·시설 자원의 네트워크화	4) 전국 유스트레블 네트워크 구축 5)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보호 네트워크 구축
청소년 정보·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	6) 청소년 수련활동 데이터베이스 개발 7) 청소년지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
지역사회 중심 청소년육성체제 구축	8) 지역사회 청소년 정보봉사단 구성 9)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정책의 국제화	10)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청소년포럼 개최

나. 청소년 정책과제 제언

1) “사이버 월드컵기념관” 건립

■ 배경 및 목적

- 2002 년 한일 월드컵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는 청소년세대에게 국가적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아시아권 최초의 세계 4 강이라는 경기성적과 더불어 거리와 광장을 메운 수많은 군중들이 펼친 평화롭고도 질서정연한 거리응원은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한 모습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2000 년 한일 월드컵대회는 단순한 스포츠행사의 차원을 넘어서 한국 시민사회의 역사의 기념비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당시의 기록과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청소년과 일반국민들에게 공개하는 작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 최근 상암경기장의 시설을 활용하여 월드컵기록관을 설치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고 청소년과 일반국민들이 접근과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웹사이트의 형태로 월드컵기념관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정책 추진방안

- “사이버 월드컵기념관 설립위원회” 구성: 월드컵관련 각계 전문인사, 붉은악마 등 청소년대표로 구성되는 설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 재원조달 계획 수립: 재원은 월드컵 잉여금을 기반으로 하되, 웹사이트의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위해 소요되는 추가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청소년·스포츠관련 민간기업·재단의 협찬을 유도한다. 협찬기업·재단에 대해서는 웹사이트의 배너광고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각종 자료 수집·정리 및 디지털화 작업: 월드컵대회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고 웹사이트에 올릴 수 있도록 디지털화 작업을 추진한다. 정부·축구협회·매스컴 등 기관 소장자료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들이 소장하고 있는 응원도구·소품, 기념사진·동영상 자료 등을 수집대상에 포함한다.
-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웹사이트를 운영하되, 청소년과 일반국민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단을 모집하여 사회적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한다.
- 장기발전 계획 수립·시행: 1 차년도에는 2002 년 월드컵 자료를 중심으로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월드컵역사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로 그 수집대상을 확대한다. 또한, 향후 월드컵대회가 개최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관련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웹사이트의 영문화 작업을 추진하여 월드컵관련 국제적인 종합정보 사이트로서의 위상을 정립한다.

2) 청소년 참정권 확대: 선거연령 하한 조정

■ 배경 및 목적

- 지난 해 월드컵대회와 그 이후에 나타난 일련의 사회과정을 통하여 국가·사회적 이슈와 쟁점에 대한 청소년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 월드컵대회가 단순한 스포츠행사에 머물지 않고 국민적 축제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행사에 대한 청소년세대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또한 미군장갑차 사건으로 촉발된 촛불시위와 그 이후의 대통령선거과정에서도 청소년·청소년세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 사회·정치문제에 대한 청소년·청년세대의 관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국가·사회발전의 에너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만 20 세로 되있는 선거연령의 하한선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미국·영국·독일·프랑스·중국 등 세계 주요국의 대부분(77 개국)이 선거연령을 18 세로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정책 추진방안

- 현행 선거연령의 합헌성 검토: 대부분의 국내법이 만 18 세를 성년으로 간주하고 납세·국방(병역)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만, 참정권은 20 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15 조 2 항). 성년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대부분의 대학 저학년층과 청년 근로자들의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 범청소년계 협의기구 결성: 청소년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청소년학회, 청협 등의 단체가 참여하는 한시적인 협의기구를 결성하여, 각국의 선거연령 관련 법규와 운용현황, 선거연령 조정상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검토작업을 진행하고 청소년계의 합일된 개정안을 마련한다.
- 선거연령 문제 공청회 개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주최하에 청소년계의 개정안을 토대로 학계, 정당, 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및 청소년대표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안을 마련한다.

3) 청소년기본법 개정과 위상 정립

■ 배경 및 목적

-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기본법령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보호법”의 두가지로 이원화되어 있고, 청소년기본법은 문화관광부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다.
- 청소년기본법은 “타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상위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그 실제내용은 주로 문화관광부 소관의 청소년육성, 특히 수련활동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과정·절차에 관한 사항이 중심이 되어, 일부에서는 “수련활동지원법”으로 격하하여 지칭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 청소년기본법을 “교육기본법”의 예에서와 같이 청소년 육성·보호에 관한 국가의 의무와 기본 정책방향만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개정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청소년관련 법령의 상위법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정책 추진방안

- 법령의 개편의 개본방향: 현행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의 2 원체제를 기본법-육성법-보호법의 3 원체제로의 개편을 추진한다. 각 법령의 성격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될 수 있을 것이다.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 육성·보호 전반에 관한 국가의 이념과 의지를 천명하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 청소년육성·보호와 관련된 일반국민·청소년의 기본적인 의무와 권리 등을 규정한다
- 청소년육성법: 현행 청소년기본법의 내용중 문화관광부(청소년국) 소관의 청소년육성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새롭게 제정한다(법령의 명칭은 구 청소년육성법과 혼선이 없도록 조정).
-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위원회 소관의 현행 법을 존치하되, 개정·신설될 기본법·육성법의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없도록 조정해야 할 것이다.

4) 전국 유스트레블(Youth Travel) 네트워크 구축

■ 배경 및 목적

- 근년에 접어들어 배낭여행 인구가 점차 증가하는 등 여행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가고 있다. 특히 학교 주 5 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주말을 활용한 청소년 여행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청소년(중·고교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짧은 기간 동안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현재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은 640 여개로서, 그중에서 경관이 뛰어난 자연권에 위치해 있는 시설이 400 여개에 달한다(유스호스텔 포함). 지금까지 자연권 수련시설은 교통이 불편한 입지조건으로 인하여 주로 학기중의 각급학교 단체 수련활동의 용도로만 이용되어 청소년들의 인지도가 낮고 시설 활용도도 저조한 편이었다.
- 점차 증가하고 있는 청소년 여행 수요와 본격적인 학교 주 5 일제 실시에 대비하여 전국의 청소년 수련시설들을 거점으로 한 “유스트레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 정책 추진방안

- 지역별 트레블 루트 개발: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적인 관광명소, 청소년시설을 연결하는 트레블 루트를 설정한다. 청소년들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정, 비용 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 예시(경기도): 안보견학(판문점)->해양체험(강화도)->산업시찰(안산)->유적답사(수원)->영농체험(여주)

- 협력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청소년들이 할인된 요금으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시설, 운송업체, 관광시설, 여행사 등과 협약을 체결한다. 가맹시설·업체에 대해서는 시설보수, 안전설비 확보 등을 위하여 부분적인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도입한다.
- 유스트레블 웹사이트 구축: 각 지역별 트레블 루트를 종합하여 소개하는 유스트레블 네트워크 웹사이트를 구축한다. 웹사이트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각 지역별 청소년 수련시설 및 관광코스의 소개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직접 부모의 도움을 받아 온라인으로 예약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 국내외 청소년대상 홍보: 각종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하고 팜플렛, 포스터 등을 제작, 각급학교에 배포하여 동아리·클럽 단위의 이용을 활성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웹사이트의 영문화를 추진하여 저렴한 여행지를 찾는 해외 청소년 배낭여행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5) 지역사회 청소년 육성·보호 네트워크 구축

■ 배경 및 목적

- 전국의 각 지역에는 청소년 육성·보호와 관련된 다양한 조직·단체들이 산재하여 있으나, 주로 중앙조직과의 수직적인 연계하에 활동을 전개하고 있을 뿐, 지역내 기관들간의 수평적인 유대와 협력관계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라 할 수 있다.
- 지방화·분권화되어 가고 있는 사회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각 지역마다 독특한 청소년관련 사업 및 서비스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관련 조직·기관들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 정책 추진방안

- 지역사회 협의체 구성: 각 지역별로 지자체 청소년담당 부서와 청소년 육성·보호와 관련된 조직·기관(청소년단체, 지도사협회, 자원봉사센터, 학부모회 등)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사회의 청소년문제, 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정례화한다.
- 지역별 웹사이트 개설: 지역사회내 청소년 육성·보호기관의 현황과 활동내용, 연락처 등을 정리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한다. 이 웹사이트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조직·기관들간의 연락 창구로도 활용될 수 있다.
- 공동사업·활동 전개: 지역내 청소년 육성·보호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을 추진하고, 유사한 성격의 조직·기관들이 협력하여 예산·인력상으로 독자적인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활동 등을 공동으로 전개한다.

6) 청소년 수련활동 데이터베이스 개발

■ 배경 및 목적

- 2005 년으로 예정된 학교 주 5 일제의 전면적인 시행과 더불어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수련활동 프로그램은 주로 청소년 수련시설을 중심으로 책자의 형태로 보급되어 왔지만, 향후 급증하게 될 일반 청소년 및 관계기관의 수요를 감안할 때, 새로운 방식의 보급 시스템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 정보화의 진전과 더불어 각종 문서자료의 디지털화·온라인화는 시대의 필연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수련활동 프로그램도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가공작업을 거쳐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쉽게 열람·검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정책 추진방안

- 수련활동 프로그램 실태조사: 청소년 연구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차원에서 개발되어 시행되고 있는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보고서, 책자, 팜플렛 등의 자료를 수집·정리한다.
- 자료의 가공 및 DB 구축: 수집된 자료를 대상으로 인터넷을 통한 열람과 검색이 가능하도록 가공작업을 진행한다.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과 관련된 사진, 그림, 동화상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추가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병행한다.
- DB 운영 및 보완: 문화관광부 또는 한국청소년개발원의 웹사이트를 통하여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DB 서비스를 실시한다. 장기적인 계획하에 주요 선진국의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자료를 수집·번역하여 수록하는 등 지속적인 수정·보완작업을 진행한다.

7) 청소년지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개발

■ 배경 및 목적

- 현재 청소년지도사 국가자격검정을 통해 매년 천여명의 청소년지도사가 배출되고 있으며, 2003 년부터는 청소년상담사 국가자격제도가 새롭게 신설되어, 지금까지 배출된 청소년육성 전문인력이 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겸비한 이들 인력은 청소년정책의 대국민 확산과 홍보를 위한 유용한 인력자원임에도 불구하고 사후관리체계의 미흡으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국가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육성 전문인력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통해 이들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정책 추진방안

- 인적 자료 수집·정리: 지금까지 배출된 청소년지도사·상담사의 인적 사항(성명, 자격급수, 취득년도, 주요경력, 직장,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 웹사이트 개발·운영: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자격제도 안내, 관련 법령 등 정보·자료, 게시판 등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육성 전문인력 웹사이트를 개발하고, 데이터베이스와 연동하여 운영한다. 개인의 신상정보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고, 취업을 돕기 위한 구직/구인 코너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지속적인 수정·갱신작업: 본인이 직접 자신의 신상자료를 입력·수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청소년육성·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보완해 감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청소년지도자를 위한 종합정보 포털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한다.

8) 지역사회 청소년 정보봉사단 구성

■ 배경 및 목적

- 컴퓨터·인터넷 이용인구는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세대간·계층간 정보격차(digital divide)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각종 조사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인구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50대 이상 노년층의 인터넷 이용률은 주요 선진국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 인터넷은 노년층의 여가·정보활동 매체로서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지만, 노년층 대상의 인터넷 교육의 기회는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자원봉사활동의 내신반영과 더불어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임을 감안할 때, 청소년들이 노년층을 대상으로 컴퓨터·인터넷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들의 컴퓨터·인터넷 교육은 핵가족화 추세와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세대간 장벽을 해소하는 대화의 통로로서도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 추진방안

- 활동 지원체제 구축: 봉사활동을 하려는 청소년과 교육받기를 원하는 노년층을 연결해 주는 시스템이 먼저 구축되어야 한다.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또는 생활권 수련시설이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사업비 지원을 받아 재원을 조달하고 필요할 경우 지역사회 유지들로 구성되는 후원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 지역사회 단위의 봉사단 구성: 정보봉사단의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서는 지역사회(마을)나 아파트단지 단위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소 알고지내거나 낯이 익은 청소년과 노년층이 자리를 함께 함으로써 주민들간의 대화와 화합의 장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 봉사활동 실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학교 전산실이나 지역주민자치센터, 청소년 수련시설 등의 협조를 받아 일정 기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노년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봉사인력이 충분히 확보된 뒤 1:1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육이 완료되면 청소년들에게 자원봉사활동인증서를 발급하여 내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9) 지역사회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 배경 및 목적

- 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직업체험을 돕기 위해 현재 국가정책적으로 인턴십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중·고교생에게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고 있다.
-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일정 기간 지역사회내의, 관공서, 은행, 자영업체, 슈퍼마켓 등에서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청소년육성 기능을 증진시키고 청소년의 진로선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정책 추진방안

- 지역사회 협의회 구성: 지역사회 단위별로 지자체, 공공기관, 학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소년 직업체험 협의회를 구성하여 직업체험을 희망하는 청소년과 대상기관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담당하도록 한다.
- 직업체험 활동 실시: 청소년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평소 일상적으로 접해왔던 관공서, 은행, 자영업체 등에서 업무보조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신의 진로와 직업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 사례발표회 개최: 방학이 끝난 후에는 청소년들의 사례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시상과 아울러 지역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한다.

10)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청소년포럼 개최

■ 배경 및 목적

- 한국·중국·일본은 같은 동아시아권에 속하는 이웃국가이면서도 체제상의 차이에 따른 이질감, 식민침략과 지배라는 역사적 경험으로 인하여 교류와 협력의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고 있다.
- 세계시장의 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대중예술을 비롯한 문화적 교류도 점증하는 추세이지만,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아직까지 상호배타적인 민족감정이 지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과거의 불행한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청소년세대간의 교류를 활성화함으로써 동아시아지역의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기반을 다져갈 수 있을 것이다.

■ 정책 추진방안

- 준비위원회 구성: 각국의 청소년단체협의기구(한국은 청협)을 대표하는 청소년 및 실무자들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사의 주제와 진행방식, 일정 등을 결정한다.
- 청소년포럼 개최: 서울에서 첫번째 행사를 개최하고 격년제로 각국을 순회하며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환경보호 문제, 문화교류 방안, 공동 국제봉사활동 등 비정치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각국 청소년대표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행사기간 중 3 개국 청소년 문화·예술제를 함께 개최하여 축제분위기를 조성하고 일반국민들의 관심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한다.
- 공동선언 발표: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공동선언으로 발표하고 각국 정부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한다. 장기적으로는 북한, 몽골을 포함한 5 개국 청소년 포럼으로 확대·발전시킨다.

참고문헌

- 강내희(2002). “‘월드컵 현상’과 사회운동의 과제— ‘문화사회’ 건설과 사회적 공공성 구축”. 신세대 신문화 형성 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게임종합지원센터(2001). 2001 대한민국 게임백서.
- 경희대학교 사회정보연구소(2002). 월드컵 ‘거리응원’에 대한 의식조사. 서울: 경희대학교.
- 고성혜 · 이용교(1996). 청소년들의 행동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무경 · 최원기 외(1998). 일상 속의 한국문화: 자기성찰의 사회학. 서울: 나남.
- 김문조(2001). “게임과 사회”, 2001 대한민국 게임백서. 서울: 게임종합지원센터.
- 김상호(2002). “2002 년 월드컵개최가 광주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연구, 18(1). pp. 97-114.
- 김성철 · 최우영(1998). 정보사회/문화시대의 문화욕구 전망(미간행). 서울: LG 커뮤니카토피아연구소.
- 김신일(1993). “청소년문화의 의미와 성격”.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문화론. 서울: 서원.
- 김정배 · 정익재(2000).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실태 조사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정운(2002). “W 세대의 활력과 사회발전”. 신세대 신문화 형성 심포지움 자료집. 서울: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 김종길(2000). “사이버공간 속의 청소년문화와 정체성”. 학생생활연구, 제 16 집.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_____ (2001). “패러독스의 도전과 정책과정에서의 패러독스 활용 전략: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 35 집 3 호.
- _____ (2002a). “R 세대와 붉은 악마”. 월드컵과 신공동체문화. 서울: 대

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_____ (2002b). “지식정보사회의 새로운 공동체 실험 ‘붉은 악마’”. 정보화정책, 제 9 권 제 3 호. 서울: 한국전산원.
- 김종엽(2002). “2002 월드컵 응원문화와 상징체계”. 월드컵과 신공동체문화. 한국이론사회학회 특별컨퍼런스 발표 논문집.
- 김준수(2002). “‘보며’ 즐기는 놀이에서 ‘하면서’ 느끼는 신명으로”. 월드컵은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세미나 발표자료. 서울: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김홍주(2002). “길거리 응원문화와 청소년 시민의식”. 월드컵과 청소년 신문화형성.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노기성(2002). 월드컵 축구대회의 경제적 파급효과. 계간 사상, 2002 여름호.
- 동아일보(2002). 2002 년 5 월 25 일-7 월 5 일자 월드컵관련 기사.
- 맹영임 · 서정아 · 김민(2002). 청소년 대중스타 수용실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문옥표 편(1997). 한국인의 소비와 여가생활.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바슐라르(1990). 민회식 옮김. 불의 정신분석. 서울: 삼성출판사.
- 박선웅(2002). 학생다운 몸의 규율과 청소년의 자아연출: 몸의 사회학적 관점에서 본 학교위기. 한국사회학회 2002 추계 특별 심포지움 자료집.
- 박재홍(2002). “세대 개념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왜 다시 세대인가? 세대사회학의 조망. 한국사회학회 2002 년 추계 특별 심포지움 자료집.
- 백옥인(1994). “이미지시대의 문화충격과 생활의 변화”. 21 세기 프론티어: 전환의 물결과 신발전모델. 서울: 나라정책연구회.
- 붉은 악마 홈페이지(2002). <http://www.reddevil.or.kr/>
- 삼성경제연구원(2002). “‘2002 월드컵’과 사회·문화적 변화”. Issue Paper, 2002. 8. 3, 서울: 삼성경제연구원.
- 스콧 래쉬 외(1997). 윤호병 외 옮김. 현대성과 정체성. 서울: 현대미학사
- 신동민(2002). “붉은 악마의 시작”, <http://www.reddevil.or.kr/>
- 신동일(2002). “다시 생각해보는 붉은 악마의 정체성”. <http://www.reddevil.or.kr/>
- 신인철(2002). “붉은 악마 이야기를 시작하며...”. <http://www.reddevil.or.kr/>

- 신철호(2002). “월드컵과 국가브랜드”. 경제교육, 11(2). pp. 23-29.
- 안귀덕 외(1999). 한국 청소년문화: 비교문화적 분석.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유승호(2000). 사이버 커뮤니케이션론: 공동체, 지역 그리고 윤리. 서울: 녹두.
- 윤상철(2002). “월드컵과 오! 대한민국”. 민교협회보, 제 48 호, 서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 윤옥경 · 최원기 외(2001). 개인, 관계, 사회. 서울: 양서원.
- 율리히 백(2000). 조만영 옮김. 지구화의 길. 서울: 거름.
- 이경상(2002). “월드컵관련 청소년의식조사 결과”. 월드컵과 청소년 신문화 형성.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광호 · 구정화 · 맹영임(1996). 청소년 수련활동 수요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동연(2002). “카니발의 문화와 시민운동의 과제”. 월드컵은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세미나 자료집. 서울: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이무웅 · 우영제(1994). 정보사회와 인간관계론. 서울: 백산출판사.
- 이민희 외(1999). 청소년 대중문화 수용실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순철(2002). “삶의 질과 교육의 질- 교육적 상상력의 열림을 향해”. 문화연대 사회단체 토론회 자료.
- 이어령(2002). “붉은 악마의 문화 코드”. 중앙일보, 2002. 6. 21.
- 이용교(1999). “길거리 문화와 청소년 복지”. 청소년복지연구.
- 이윤희(2002). “월드컵 길거리 응원의 축제적 특성과 사회문화적 함의”. 월드컵과 신공동체문화. 서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이장영 · 강효민(2001). “전자정보 공간에서 국가대표 축구팀 서포터 ‘붉은 악마’의 공동체형성”. 정보와사회, 제 3 호. 서울: 한국정보사회학회.
- 이종원 외(2000). 전국 청소년 생활실태 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 외(2001). 전국 청소년 문제행동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종원(1998). “사이버 공동체”. 현대사회의 문화현상. 부산: 동아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_____ (2003). “한국의 청소년: 국제비교를 통해 본 생활·의식의 특성”(미간).
- 전상진(2002). “세대사회학의 가능성과 한계”. 왜 다시 세대인가? 세대사회학의 조망. 한국사회학회 2002년 추계 특별 심포지움 자료집.
- 전성우(2002). “합리성이론적 시각에서 본 월드컵 현상: 공동체적 합리성을 찾아서”. 월드컵과 신공동체문화. 서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 전효관(2000). “10 대의 놀이 문화: 차이와 다양성의 문화?”. 2000년도 여성 연구 학술대회 ‘청소년의 일상과 가족’ 발표자료.
- 정명호(1997). 패러독스와 경영.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정태영(1997). 사이버스페이스 문화읽기. 서울: 나남.
- 정해구(2002). “‘붉은 악마’ 신드롬”. 교수신문, 2002. 7. 1.
- 조선일보(2002). 2002년 5월 25일-7월 5일자 월드컵관련 기사.
- 최원기 외(2002). 월드컵, 신화와 현실. 서울: 한울.
- 최원기(1996). 프랑스 문화이론에 대한 일고찰. 1997년 전기 사회학대회 발표문.
- _____ (2001). “한국청소년의 유행문화에 대한 세대론적 고찰: 가상공간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제6호.
- _____ (2002). “월드컵과 청소년문화”. 월드컵과 청소년 신문화 형성.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원기·전경숙·김창남(2000). 청소년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정책적 대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최윤진(1999). “청소년문화”, 한국청소년학회 편. 청소년학 총론. 서울: 양서원.
- 최재석(1994).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현음사.
- 최준식(1997).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 서울: 사계절.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2000). 정보화 시대 청소년문화의 실체.
- 한국전산원(2001). 국가정보화백서.
- 한국정보문화센터(2000). PC 방(인터넷 플라자)을 활용한 정보생활화 추진 방안 연구. 서울: 한국정보문화센터.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97). 한국청소년문화: 심리-사회적 형성요인.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청소년개발원 편(1992). 청소년문화론.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개발원(2003). 청소년의 월드컵 경험과 생활·의식 특성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1999). “매니아문화 읽기- 청소년 매니아문화의 현황과 과제”. 청소년문화포럼, 창간호.

한국청소년상담원 편(1999). 청소년의 사이버문화.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한상진(2002). “히딩크효과와 신공동체문화”. 월드컵과 신공동체문화. 서울: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현대경제연구원(2002a). 포스트월드컵의 발전전략과 정책과제. VIP Report.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_____ (2002b). R 세대의 등장과 국가·기업의 과제. 서울: 현대경제연구원.

호프스테드(1995), 차재호 외 옮김.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홍상혁(2002). “붉은 악마의 탄생과 논란”. <http://www.reddevil.or.kr/>

홍성태(1996). 사이버 공간, 사이버 문화. 서울: 문화과학사.

_____ (2000). 사이버 사회의 문화와 정치. 서울: 문화과학사.

황익주(2002). “붉은 악마와 청소년 신공동체문화”. 월드컵과 청소년 신문화 형성.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Baudrillard, J.(1970). *La société de consommation*. Paris: Editions Denoel.

_____ (1995). *Le crime parfait*. Paris: Galilée.

Baym, N.(1995). “The emergence of community in computer-mediated-communication”, Jones, S.(eds). *Cybersociety: Computer-mediated-communication and community*, Thousand Oaks: Sage.

Choi, W. K.(1996). “Etude sur la méthodologie non-dualiste en sociologie phénoménologique et compréhensive: l’analyse multi-référentielle descriptive appliquée à la société sud-coréenne”. Thèse de Doctorat, Paris: Université Paris V Sorbonne

_____ (1997). “La méodologie compréhension chez M. Maffesoli”. So-

- ciété, N.56, pp. 29-43. Paris: De Boeck.
- Derrida, J.(1967). *De la grammatologie*.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 _____(1967). *L'écriture et la différence*. Paris: Seuil.
- _____(1967). *La voix et le phénomène*. Paris: PUF.
- _____(1972). *Marges de la philosophie*.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 Durand, G.(1992). *Les structures anthropologiques de l'imaginaire*. 1ed. Bordas. 1969. Paris: Dunod
- _____(1993). *L'imagination symbolique*. 1ed. 1964. Paris: Quadrige.
- _____(1994). *L'imaginaire*. Paris: Hatier.
- Fiske, J.(1989). "Commodities and culture". *Understanding popular culture*. London: Routledge.
- Foucault M.(1979).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Prison*. Sheridan A. Trans., Vintage Books.
- _____(1990). *The History of Sexuality I: An Introduction*. Hurley R. Trans., Random House.
- Handy, C.(1994). *The age of paradox*, Bost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 Jones, S.(1995). "Understanding community in the information age". Jones, S.(ed.). *Cybersociety*, Thousand Oaks: Sage.
- Maffesoli, M.(1988). *Le temps des tribus*. Paris: Librairie des Méridiens.
- _____(1993). *La contemplation du monde*. Paris: Grasset.
- _____(1996). *Eloge de la raison sensible*. Paris: Grasset.
- _____(1997). *Du nomadisme: vagabondages initiatiques*. Paris: Le Livre De Poche.
- Merleau-Ponty, M.(1945). *Phénoménologie de la perception*. Paris: Editions Gallimard.
- _____(1966). *Sens et non-sens*. Paris: Editions Nagel.
- Morin, E.(1986). *La méthode 3*. Paris: Editions du Seuil.
- _____(1991). *La méthode 4*. Paris: Editions du Seuil.

- Mucchielli, A.(1983). *L'analyse phénoménologique et structurale en sciences humaines*. Paris: PUF.
- Rheingold, H.(1993). *The virtual community*, A William Patrick Book.
- Rojek, C.(1985). *Capitalism and leisure theory*, London & New York: Tavistock Pub.
- Stroh, P. and Miller, W.W.(1993). *Learning to thrive on paradox, training and development*.
- Tapscott, D.(1998). *Growing up digital: The rise of net generation*, 허운나 · 유영만 옮김(1999). N 세대의 무서운 아이들. 서울: 물푸레.
- The Price Waterhouse Change Integration Team(1996). *The paradox principles. How high-performance companies manage chaos, complexity, and contradiction to achieve superior results*, Chicago: Irwin.
- Yoon, Se Joon(1998). "Management of paradox: A comparison of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human resource practices in Korean and Japanese firms". *Sangnam Forum*, Vol.1, No.1, Spring 1998.

부록: 조사결과 단순집계표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문 1> 당신의 성별은 ?			
(전체)	2,306	100.0	100.0
1. 남자	1,160	50.3	50.3
2. 여자	1,146	49.7	49.7
<문 2> [중·고교생] 현재 재학중인 학교는 ?			
(전체)	1,809	100.0	100.0
1. 중학교	950	52.5	52.5
2. 일반계(인문계) 고등학교	598	33.1	33.1
3. 실업계 고등학교	261	14.4	14.4
<문 2> [대학생] 현재 재학중인 학교는 ?			
(전체)	497	100.0	100.0
1. 대학교(4 년제)	458	92.2	92.2
2. 전문대학(2 년제)	39	7.8	7.8
<문 3> 나이는 만으로 몇살입니까 ?			
(전체)	2,306	100.0	100.0
11	3	0.1	0.1
12	39	1.7	1.7
13	239	10.4	10.4
14	409	17.7	17.7
15	407	17.6	17.6
16	374	16.2	16.2
17	216	9.4	9.4
18	125	5.4	5.4
19	80	3.5	3.5
20	95	4.1	4.1
21	77	3.3	3.3
22	94	4.1	4.1
23	79	3.4	3.4
24	55	2.4	2.4
25	14	0.6	0.6
<문 5> 당신이 살고 있는 곳(자기 집이 있는 곳 기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90	99.3	100.0
1. 서 울	735	31.9	32.1
2. 광역시	617	26.8	26.9
3. 시 부 (XX 시)	682	29.6	29.8
4. 군 부 (XX 군)	256	11.1	11.2
(결측치)	16	0.7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문 4> 학교성적은 다음 중 대략 어디에 해당됩니까?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98	99.7	100.0
1. 매우 못하는 편	146	6.3	6.4
2. 중간보다 못하는 편	488	21.2	21.2
3. 중간수준	878	38.1	38.2
4. 중간보다 잘하는 편	626	27.1	27.2
5. 매우 잘하는 편	160	6.9	7.0
(결측치)	8	0.3	
<문 6> 부모님의 최종학력은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부모님 이 돌아가신 분도 응답. 중퇴도 졸업으로 간주함: "중학중퇴"-> "중학교졸업"으로)			
1) 아버지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1	98.5	100.0
1. 중학교 졸업 이하	307	13.3	13.5
2. 고등학교 졸업	1,122	48.7	49.4
3. 전문대학 졸업	87	3.8	3.8
4. 대학교 졸업	598	25.9	26.3
5. 대학원 졸업 이상	157	6.8	6.9
(결측치)	35	1.5	
2) 어머니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67	98.3	100.0
1. 중학교 졸업 이하	445	19.3	19.6
2. 고등학교 졸업	1,318	57.2	58.1
3. 전문대학 졸업	65	2.8	2.9
4. 대학교 졸업	390	16.9	17.2
5. 대학원 졸업 이상	49	2.1	2.2
(결측치)	39	1.7	
<문 7> 가정의 경제수준은 다음 중 대략 어디에 해당됩니까?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302	99.8	100.0
1. 매우 못사는 편	52	2.3	2.3
2. 중간보다 못사는 편	301	13.1	13.1
3. 중간 수준	1,564	67.8	67.9
4. 중간보다 잘 사는 편	343	14.9	14.9
5. 매우 잘 사는 편	42	1.8	1.8
(결측치)	4	0.2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문 8>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다음 중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얻고 있습니까?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97	99.6	100.0
1. TV/라디오	426	18.5	18.5
2. 인터넷	1,586	68.8	69.0
3. 신문/잡지	81	3.5	3.5
4. 가족/친구/이웃	204	8.8	8.9
(결측치)	9	0.4	
<문 9> 지난 해 월드컵경기를 집 이외의 장소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응원하며 관람한 경협 이 있습니까?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4	99.0	100.0
1. 없 다	491	21.3	21.5
2. 있 다	1,793	77.8	78.5
(결측치)	22	1.0	
<문 10>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월드컵경기를 관람한 경협이 있습니까?			
1) 월드컵경기장(직접 입장해서)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306	100.0	100.0
1. 한번도 없다	2,054	89.1	89.1
2. 있다: 한번	176	7.6	7.6
3. 있다: 두번	36	1.6	1.6
4. 있다: 3~4 번	28	1.2	1.2
5. 있다: 5 번 이상	12	0.5	0.5
2) 전광판이 설치된 길거리/광장(시청앞,광화문등의 거리응원)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306	100.0	100.0
1. 한번도 없다	998	43.3	43.3
2. 있다: 한번	483	20.9	20.9
3. 있다: 두번	401	17.4	17.4
4. 있다: 3~4 번	317	13.7	13.7
5. 있다: 5 번 이상	107	4.6	4.6
3) 전광판이 설치된 대형 공공시설(야구장, 공설운동장 등)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306	100.0	100.0
1. 한번도 없다	1412	61.2	61.2
2. 있다: 한번	505	21.9	21.9
3. 있다: 두번	203	8.8	8.8
4. 있다: 3~4 번	136	5.9	5.9
5. 있다: 5 번 이상	50	2.2	2.2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4) TV/대형모니터가 있는 실내공간(강당, 식당, 카페, 영화관 등)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306	100.0	100.0
1. 한번도 없다	1,210	52.5	52.5
2. 있다: 한번	594	25.8	25.8
3. 있다: 두번	255	11.1	11.1
4. 있다: 3~4 번	165	7.2	7.2
5. 있다: 5 번 이상	82	3.6	3.6
<문 45> 월드컵기간 중 한국팀을 응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1) 붉은 색의 T-셔츠를 착용하였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4	98.6	100.0
1. 없다	673	29.2	29.6
2. 있다	1601	69.4	70.4
(결측치)	32	1.4	
2) 얼굴이나 몸에 글이나 그림(페인팅)을 그려넣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69	98.4	100.0
1. 없다	1464	63.5	64.5
2. 있다	805	34.9	35.5
(결측치)	37	1.6	
3) 한국팀을 응원하는 글귀나 그림이 있는 옷을 착용하였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66	98.3	100.0
1. 없다	1450	62.9	64.0
2. 있다	816	35.4	36.0
(결측치)	40	1.7	
4) 태극기 등 응원도구/소품을 활용하여 응원하였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4	98.6	100.0
1. 없다	1026	44.5	45.1
2. 있다	1248	54.1	54.9
(결측치)	32	1.4	
5) 응원구호를 외치거나 응원가를 따라 불렀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8	98.8	100.0
1. 없다	311	13.5	13.7
2. 있다	1967	85.3	86.3
(결측치)	28	1.2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6) 다른사람들과 어깨동무하거나 춤을 추며 응원하였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3	98.6	100.0
1. 없다	962	41.7	42.3
2. 있다	1311	56.9	57.7
(결측치)	33	1.4	
<문 11> 월드컵대회가 개최되기 전에 한국팀이 어느정도의 성적을 거두리라 예상하셨습니까 ?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6	99.1	100.0
1. 1 승도 어렵다	196	8.5	8.6
2. 1 승은 가능	453	19.6	19.8
3. 16 강 진출	1,110	48.1	48.6
4. 8 강 진출	203	8.8	8.9
5. 4 강 진출	89	3.9	3.9
6. 결승전 진출	235	10.2	10.3
(결측치)	20	0.9	
<문 12> 현재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에서도 월드컵경기가 개최되었습니까 ?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5	98.7	100.0
1. 개최되지 않았다	927	40.2	40.7
2. 개최되었다	1,348	58.5	59.3
(결측치)	31	1.3	
<문 13> 지난 해 월드컵대회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1) 경기의 전반적인 수준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0	98.9	100.0
1. 매우 미흡했다	66	2.9	2.9
2. 미흡했다	112	4.9	4.9
3. 보통수준이었다	503	21.8	22.1
4. 훌륭했다	1,143	49.6	50.1
5. 매우 훌륭했다	456	19.8	20.0
(결측치)	26	1.1	
2) 경기진행/운영의 측면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8	98.8	100.0
1. 매우 미흡했다	53	2.3	2.3
2. 미흡했다	155	6.7	6.8
3. 보통수준이었다	686	29.7	30.1
4. 훌륭했다	1,024	44.4	45.0
5. 매우 훌륭했다	360	15.6	15.8
(결측치)	28	1.2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3) 관중들의 관전태도/매너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0	98.9	100.0
1. 매우 미흡했다	56	2.4	2.5
2. 미흡했다	109	4.7	4.8
3. 보통수준이었다	357	15.5	15.7
4. 훌륭했다	827	35.9	36.3
5. 매우 훌륭했다	931	40.4	40.8
(결측치)	26	1.1	
4) 시민들의 응원참여 정도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0	98.9	100.0
1. 매우 미흡했다	52	2.3	2.3
2. 미흡했다	28	1.2	1.2
3. 보통수준이었다	128	5.6	5.6
4. 훌륭했다	527	22.9	23.1
5. 매우 훌륭했다	1,545	67.0	67.8
(결측치)	26	1.1	
5) 시민들의 공중질서의식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9	98.8	100.0
1. 매우 미흡했다	94	4.1	4.1
2. 미흡했다	167	7.2	7.3
3. 보통수준이었다	448	19.4	19.7
4. 훌륭했다	827	35.9	36.3
5. 매우 훌륭했다	743	32.2	32.6
(결측치)	27	1.2	
<문 14> 지난 해 월드컵대회에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대회의 성공에 기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요인들에 대하여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1) 히딩크 감독의 전술/지도력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4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48	2.1	2.1
2. 그렇지 않다	65	2.8	2.8
3. 그렇다	1131	49.0	49.5
4. 매우 그렇다	1040	45.1	45.5
(결측치)	22	1.0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2) 스타플레이어의 능력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2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49	2.1	2.1
2. 그렇지 않다	216	9.4	9.5
3. 그렇다	1,381	59.9	60.5
4. 매우 그렇다	636	27.6	27.9
(결측치)	24	1.0	
3) 선수들의 단결과 조직력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9	98.8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35	1.5	1.5
2. 그렇지 않다	70	3.0	3.1
3. 그렇다	1,136	49.3	49.8
4. 매우 그렇다	1,038	45.0	45.5
(결측치)	27	1.2	
4) 부모세대(성인)들의 관심과 참여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1	98.9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80	3.5	3.5
2. 그렇지 않다	398	17.3	17.4
3. 그렇다	1,221	52.9	53.5
4. 매우 그렇다	582	25.2	25.5
(결측치)	25	1.1	
5) 청소년/청년세대의 관심과 참여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3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53	2.3	2.3
2. 그렇지 않다	214	9.3	9.4
3. 그렇다	1,034	44.8	45.3
4. 매우 그렇다	982	42.6	43.0
(결측치)	23	1.0	
6) 붉은 악마등 서포터즈의 활동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3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46	2.0	2.0
2. 그렇지 않다	129	5.6	5.7
3. 그렇다	873	37.9	38.2
4. 매우 그렇다	1,235	53.6	54.1
(결측치)	23	1.0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7) 인터넷의 역할(정보제공, 시민참여 등)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2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76	3.3	3.3
2. 그렇지 않다	343	14.9	15.0
3. 그렇다	1,128	48.9	49.4
4. 매우 그렇다	735	31.9	32.2
(결측치)	24	1.0	
8) TV · 신문 등 매스컴의 역할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7	98.7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84	3.6	3.7
2. 그렇지 않다	395	17.1	17.3
3. 그렇다	1,150	49.9	50.5
4. 매우 그렇다	648	28.1	28.5
(결측치)	29	1.3	
9) 중앙정부 ·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2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75	7.6	7.7
2. 그렇지 않다	804	34.9	35.2
3. 그렇다	989	42.9	43.3
4. 매우 그렇다	314	13.6	13.8
(결측치)	24	1.0	
10) 월드컵조직위원회/축구협회의 역할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2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24	5.4	5.4
2. 그렇지 않다	496	21.5	21.7
3. 그렇다	1,198	52.0	52.5
4. 매우 그렇다	464	20.1	20.3
(결측치)	24	1.0	
11) 월드컵 경기장 시설 및 관련설비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3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03	4.5	4.5
2. 그렇지 않다	415	18.0	18.2
3. 그렇다	1,196	51.9	52.4
4. 매우 그렇다	569	24.7	24.9
(결측치)	23	1.0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문 15> 지난 해 월드컵대회를 전체적으로 평가해 볼 때,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0	98.9	100.0
1. 크게 실패한 행사였다	25	1.1	1.1
2. 실패한 행사였다	28	1.2	1.2
3. 보통수준의 행사였다	177	7.7	7.8
4. 성공한 행사였다	943	40.9	41.4
5. 크게 성공한 행사였다	1,107	48.0	48.6
(결측치)	26	1.1	
<문 16> 월드컵대회의 개최경험이 우리사회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다음 각 항목에 대하여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1) 한국의 정치적인 민주화와 발전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2	98.5	100.0
1.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1,041	45.1	45.8
2.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31	53.4	54.2
(결측치)	34	1.5	
2) 한국의 경제적인 성장과 발전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0	98.4	100.0
1.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460	19.9	20.3
2. 영향을 미칠 것이다	1,810	78.5	79.7
(결측치)	36	1.6	
3) 한국의 국제적인 이미지 개선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1	98.5	100.0
1.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172	7.5	7.6
2.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99	91.0	92.4
(결측치)	35	1.5	
4) 한국의 문화/예술수준의 발전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1	98.5	100.0
1.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499	21.6	22.0
2. 영향을 미칠 것이다	1,772	76.8	78.0
(결측치)	35	1.5	
5) 국민들의 시민의식의 발전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3	98.6	100.0
1.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356	15.4	15.7
2. 영향을 미칠 것이다	1,917	83.1	84.3
(결측치)	33	1.4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6) 국민들의 여가/문화생활의 발전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0	98.4	100.0
1.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575	24.9	25.3
2. 영향을 미칠 것이다	1695	73.5	74.7
(결측치)	36	1.6	
<문 17> 월드컵경기 관람 이후에 다음 각 국가들에 대한 당신의 이미지에 변화가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1) 폴 란 드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69	98.4	100.0
1. 훨씬 나빠졌다	52	2.3	2.3
2. 나빠졌다	100	4.3	4.4
3. 변화가 없다	1,344	58.3	59.2
4. 좋아졌다	632	27.4	27.9
5. 훨씬 좋아졌다	141	6.1	6.2
(결측치)	37	1.6	
2) 미 국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2	98.5	100.0
1. 훨씬 나빠졌다	467	20.3	20.6
2. 나빠졌다	647	28.1	28.5
3. 변화가 없다	939	40.7	41.3
4. 좋아졌다	184	8.0	8.1
5. 훨씬 좋아졌다	35	1.5	1.5
(결측치)	34	1.5	
3) 포르투갈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0	98.4	100.0
1. 훨씬 나빠졌다	115	5.0	5.1
2. 나빠졌다	292	12.7	12.9
3. 변화가 없다	1276	55.3	56.2
4. 좋아졌다	474	20.6	20.9
5. 훨씬 좋아졌다	113	4.9	5.0
(결측치)	36	1.6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4) 이탈리아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0	98.4	100.0
1. 훨씬 나빠졌다	610	26.5	26.9
2. 나빠졌다	623	27.0	27.4
3. 변화가 없다	779	33.8	34.3
4. 좋아졌다	199	8.6	8.8
5. 훨씬 좋아졌다	59	2.6	2.6
(결측치)	36	1.6	
5) 스 페 인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62	98.1	100.0
1. 훨씬 나빠졌다	100	4.3	4.4
2. 나빠졌다	216	9.4	9.5
3. 변화가 없다	1,468	63.7	64.9
4. 좋아졌다	383	16.6	16.9
5. 훨씬 좋아졌다	95	4.1	4.2
(결측치)	44	1.9	
6) 독 일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66	98.3	100.0
1. 훨씬 나빠졌다	166	7.2	7.3
2. 나빠졌다	287	12.4	12.7
3. 변화가 없다	1,332	57.8	58.8
4. 좋아졌다	361	15.7	15.9
5. 훨씬 좋아졌다	120	5.2	5.3
(결측치)	40	1.7	
7) 터 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68	98.4	100.0
1. 훨씬 나빠졌다	71	3.1	3.1
2. 나빠졌다	109	4.7	4.8
3. 변화가 없다	914	39.6	40.3
4. 좋아졌다	722	31.3	31.8
5. 훨씬 좋아졌다	452	19.6	19.9
(결측치)	38	1.6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8) 일 본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1	98.5	100.0
1. 훨씬 나빠졌다	198	8.6	8.7
2. 나빠졌다	226	9.8	10.0
3. 변화가 없다	1,345	58.3	59.2
4. 좋아졌다	398	17.3	17.5
5. 훨씬 좋아졌다	104	4.5	4.6
(결측치)	35	1.5	
9) 중 국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2	98.5	100.0
1. 훨씬 나빠졌다	203	8.8	8.9
2. 나빠졌다	245	10.6	10.8
3. 변화가 없다	1,545	67.0	68.0
4. 좋아졌다	219	9.5	9.6
5. 훨씬 좋아졌다	60	2.6	2.6
(결측치)	34	1.5	
<문 18> 월드컵 기간 중 또는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 당신은 어떤 것을 느끼거나 경험했습니까? 다음의 설명에 대하여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1) 축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92	99.4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02	4.4	4.5
2. 그렇지 않다	282	12.2	12.3
3. 그렇다	1,233	53.5	53.8
4. 매우 그렇다	675	29.3	29.5
(결측치)	14	0.6	
2) 스포츠 전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91	99.3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31	5.7	5.7
2. 그렇지 않다	670	29.1	29.2
3. 그렇다	1,072	46.5	46.8
4. 매우 그렇다	418	18.1	18.2
(결측치)	15	0.7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3) 한국인으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느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92	99.4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64	2.8	2.8
2. 그렇지 않다	253	11.0	11.0
3. 그렇다	1,123	48.7	49.0
4. 매우 그렇다	852	36.9	37.2
(결측치)	14	0.6	
4)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8	98.8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69	3.0	3.0
2. 그렇지 않다	259	11.2	11.4
3. 그렇다	1,139	49.4	50.0
4. 매우 그렇다	811	35.2	35.6
(결측치)	28	1.2	
5) 국가/사회를 위해서 무언가 의미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하였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8	99.2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74	7.5	7.6
2. 그렇지 않다	902	39.1	39.4
3. 그렇다	904	39.2	39.5
4. 매우 그렇다	308	13.4	13.5
(결측치)	18	0.8	
6) 약소국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2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346	15.0	15.2
2. 그렇지 않다	1055	45.8	46.2
3. 그렇다	636	27.6	27.9
4. 매우 그렇다	245	10.6	10.7
(결측치)	24	1.0	
7) 앞으로 국가적인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싶다고 느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7	99.2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44	6.2	6.3
2. 그렇지 않다	621	26.9	27.2
3. 그렇다	1,163	50.4	50.9
4. 매우 그렇다	359	15.6	15.7
(결측치)	19	0.8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8) 규칙과 룰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90	99.3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87	3.8	3.8
2. 그렇지 않다	346	15.0	15.1
3. 그렇다	1,332	57.8	58.2
4. 매우 그렇다	525	22.8	22.9
(결측치)	16	0.7	
9) 공중도덕과 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90	99.3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72	3.1	3.1
2. 그렇지 않다	209	9.1	9.1
3. 그렇다	1,310	56.8	57.2
4. 매우 그렇다	699	30.3	30.5
(결측치)	16	0.7	
10) 우리사회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8	99.2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10	4.8	4.8
2. 그렇지 않다	424	18.4	18.5
3. 그렇다	1,288	55.9	56.3
4. 매우 그렇다	466	20.2	20.4
(결측치)	18	0.8	
11) 용원을 하면서 부모세대와의 유대감을 느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4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76	7.6	7.7
2. 그렇지 않다	672	29.1	29.4
3. 그렇다	1,040	45.1	45.5
4. 매우 그렇다	396	17.2	17.3
(결측치)	22	1.0	
12) 용원을 하면서 친구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6	99.1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12	4.9	4.9
2. 그렇지 않다	310	13.4	13.6
3. 그렇다	1,186	51.4	51.9
4. 매우 그렇다	678	29.4	29.7
(결측치)	20	0.9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13) 외국문화/문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5	99.1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225	9.8	9.8
2. 그렇지 않다	891	38.6	39.0
3. 그렇다	897	38.9	39.3
4. 매우 그렇다	272	11.8	11.9
(결측치)	21	0.9	
14) 우리가 지구촌사회에 살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4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30	5.6	5.7
2. 그렇지 않다	389	16.9	17.0
3. 그렇다	1,255	54.4	54.9
4. 매우 그렇다	510	22.1	22.3
(결측치)	22	1.0	
15) 외국인을 친구를 사귀고 싶다고 느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9	99.3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271	11.8	11.8
2. 그렇지 않다	784	34.0	34.3
3. 그렇다	796	34.5	34.8
4. 매우 그렇다	438	19.0	19.1
(결측치)	17	0.7	
16) 평소에는 모르던 사람과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7	99.2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309	13.4	13.5
2. 그렇지 않다	944	40.9	41.3
3. 그렇다	755	32.7	33.0
4. 매우 그렇다	279	12.1	12.2
(결측치)	19	0.8	
17) 평소에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7	99.2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35	5.9	5.9
2. 그렇지 않다	290	12.6	12.7
3. 그렇다	1,138	49.3	49.8
4. 매우 그렇다	724	31.4	31.7
(결측치)	19	0.8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18)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흥분과 자극을 느낄 수 있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92	99.4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77	7.7	7.7
2. 그렇지 않다	458	19.9	20.0
3. 그렇다	988	42.8	43.1
4. 매우 그렇다	669	29.0	29.2
(결측치)	14	0.6	
19) 타고난 능력 못지않게 훈련과 노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91	99.3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09	4.7	4.8
2. 그렇지 않다	341	14.8	14.9
3. 그렇다	1,186	51.4	51.8
4. 매우 그렇다	655	28.4	28.6
(결측치)	15	0.7	
20) 공부 이외에도 무언가 특기가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92	99.4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42	6.2	6.2
2. 그렇지 않다	382	16.6	16.7
3. 그렇다	1,108	48.0	48.3
4. 매우 그렇다	660	28.6	28.8
(결측치)	14	0.6	
<문 19> 나이드신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 주십시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35	96.9	100.0
1.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님을 돌봐 드리겠다.	1,403	60.8	62.8
2. 경제적으로 힘든는 한도내에서 부모님을 돌봐 드리겠다	752	32.6	33.6
3. 되도록이면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64	2.8	2.9
4. 전적으로 부모님 자신의 힘이나 사회보장제도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16	0.7	0.7
(결측치)	71	3.1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문 20> 여러분 또래의 청소년들은 부모세대와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 설명들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응답항목을 골라주십시오.			
1) 개방적이다 (전체) (유효 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결측치)	2,306 2,284 68 184 1,210 822 22	100.0 99.0 2.9 8.0 52.5 35.6 1.0	 3.0 8.1 53.0 36.0
2) 부지런하다 (전체) (유효 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결측치)	2,306 2,282 360 1,553 311 58 24	100.0 99.0 15.6 67.3 13.5 2.5 1.0	 15.8 68.1 13.6 2.5
3) 인내심이 있다 (전체) (유효 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결측치)	2,306 2,281 462 1,457 304 58 25	100.0 98.9 20.0 63.2 13.2 2.5 1.1	 20.3 63.9 13.3 2.5
4) 정직하다 (전체) (유효 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결측치)	2,306 2,283 395 1,350 466 72 23	100.0 99.0 17.1 58.5 20.2 3.1 1.0	 17.3 59.1 20.4 3.2
5) 개성적이다 (전체) (유효 계)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그렇다 4. 매우 그렇다 (결측치)	2,306 2,281 62 177 1,044 998 25	100.0 98.9 2.7 7.7 45.3 43.3 1.1	 2.7 7.8 45.8 43.8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6) 예의바르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9	98.8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346	15.0	15.2
2. 그렇지 않다	1,477	64.1	64.8
3. 그렇다	401	17.4	17.6
4. 매우 그렇다	55	2.4	2.4
(결측치)	27	1.2	
7) 계획적이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0	98.9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285	12.4	12.5
2. 그렇지 않다	1,128	48.9	49.5
3. 그렇다	730	31.7	32.0
4. 매우 그렇다	137	5.9	6.0
(결측치)	26	1.1	
8) 감소하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3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568	24.6	24.9
2. 그렇지 않다	1,403	60.8	61.5
3. 그렇다	254	11.0	11.1
4. 매우 그렇다	58	2.5	2.5
(결측치)	23	1.0	
9) 합리적이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2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341	14.8	14.9
2. 그렇지 않다	983	42.6	43.1
3. 그렇다	804	34.9	35.2
4. 매우 그렇다	154	6.7	6.7
(결측치)	24	1.0	
10) 이기적이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2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97	4.2	4.3
2. 그렇지 않다	305	13.2	13.4
3. 그렇다	1,106	48.0	48.5
4. 매우 그렇다	774	33.6	33.9
(결측치)	24	1.0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문 21> 부모-자녀세대간 갈등의 주된 원인은 다음 중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50	97.6	100.0
1. 부모세대가 자녀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548	23.8	24.4
2. 자녀세대가 부모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213	9.2	9.5
3. 부모세대·자녀세대 모두에게 문제가 있다	1,489	64.6	66.2
(결측치)	56	2.4	
<문 22>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생각이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2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376	16.3	16.5
2. 그렇지 않다	639	27.7	28.0
3. 그렇다	1,031	44.7	45.2
4. 매우 그렇다	236	10.2	10.3
(결측치)	24	1.0	
2) 부부간에 애정이 없으면 이혼할 수도 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0	98.9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30	5.6	5.7
2. 그렇지 않다	438	19.0	19.2
3. 그렇다	1,399	60.7	61.4
4. 매우 그렇다	313	13.6	13.7
(결측치)	26	1.1	
3) 집안에는 아들이 있어야 한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1	98.9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701	30.4	30.7
2. 그렇지 않다	1,079	46.8	47.3
3. 그렇다	421	18.3	18.5
4. 매우 그렇다	80	3.5	3.5
(결측치)	25	1.1	
4) 자녀가 없는 가정은 불행한 가정이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8	98.8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524	22.7	23.0
2. 그렇지 않다	1,109	48.1	48.7
3. 그렇다	524	22.7	23.0
4. 매우 그렇다	121	5.2	5.3
(결측치)	28	1.2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5) 부모님의 의견에는 순종해야 한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5	98.7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260	11.3	11.4
2. 그렇지 않다	1,038	45.0	45.6
3. 그렇다	850	36.9	37.4
4. 매우 그렇다	127	5.5	5.6
(결측치)	31	1.3	
6) 자녀는 부모로부터 일찍 독립해야 한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5	98.7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244	10.6	10.7
2. 그렇지 않다	1,308	56.7	57.5
3. 그렇다	617	26.8	27.1
4. 매우 그렇다	106	4.6	4.7
(결측치)	31	1.3	
7) 할아버지·할머니와 한 집에 사는 것이 좋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7	98.7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212	9.2	9.3
2. 그렇지 않다	915	39.7	40.2
3. 그렇다	983	42.6	43.2
4. 매우 그렇다	167	7.2	7.3
(결측치)	29	1.3	
8) 부모님은 장남이 모셔야 한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6	98.7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539	23.4	23.7
2. 그렇지 않다	1,254	54.4	55.1
3. 그렇다	385	16.7	16.9
4. 매우 그렇다	98	4.2	4.3
(결측치)	30	1.3	
9) 남자·여자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의 차이가 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9	98.8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533	23.1	23.4
2. 그렇지 않다	874	37.9	38.4
3. 그렇다	721	31.3	31.6
4. 매우 그렇다	151	6.5	6.6
(결측치)	27	1.2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10) 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0	98.9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992	43.0	43.5
2. 그렇지 않다	1,009	43.8	44.3
3. 그렇다	214	9.3	9.4
4. 매우 그렇다	65	2.8	2.9
(결측치)	26	1.1	
<문 23> 당신은 일상생활에서 "친가"(아버지쪽 친척)와 "외가"(어머니쪽 친척) 중 어느쪽과 더 자주 만나십니까?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5	98.7	100.0
1. 친 가	894	38.8	39.3
2. 외 가	898	38.9	39.5
3. 모두 같다	483	20.9	21.2
(결측치)	31	1.3	
<문 24> 평소 학급친구들에 대해서 경쟁의식을 느끼고 있습니까?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4	98.6	100.0
1. 거의 느끼지 않고 있다	383	16.6	16.8
2. 별로 느끼지 않고 있다	870	37.7	38.3
3. 약간 느끼고 있다	868	37.6	38.2
4. 많이 느끼고 있다	153	6.6	6.7
(결측치)	32	1.4	
<문 25>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생각이나 의견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과외를 안해도 학교수업만 열심히 하면 원하는 대학에 진 학할 수 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2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336	14.6	14.7
2. 그렇지 않다	830	36.0	36.4
3. 그렇다	866	37.6	37.9
4. 매우 그렇다	250	10.8	11.0
(결측치)	24	1.0	
2) 잘사는 집 아이가 못사는 집 아이보다 공부도 더 잘한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3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427	18.5	18.7
2. 그렇지 않다	915	39.7	40.1
3. 그렇다	693	30.1	30.4
4. 매우 그렇다	248	10.8	10.9
(결측치)	23	1.0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3) 공부를 잘 할려면 부모의 뒷받침이 중요하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9	98.8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60	6.9	7.0
2. 그렇지 않다	587	25.5	25.8
3. 그렇다	1,185	51.4	52.0
4. 매우 그렇다	347	15.0	15.2
(결측치)	27	1.2	
4) 사회에서 졸업장을 중시않는다면 학교에 다니지 않겠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7	98.7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337	14.6	14.8
2. 그렇지 않다	1,041	45.1	45.7
3. 그렇다	618	26.8	27.1
4. 매우 그렇다	281	12.2	12.3
(결측치)	29	1.3	
5) 우리사회는 명문대학을 나와야만 출세할 수 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9	98.8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304	13.2	13.3
2. 그렇지 않다	646	28.0	28.3
3. 그렇다	723	31.4	31.7
4. 매우 그렇다	606	26.3	26.6
(결측치)	27	1.2	
6) 학교의 우등생은 사회에서도 성공하기 마련이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9	98.8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430	18.6	18.9
2. 그렇지 않다	1,061	46.0	46.6
3. 그렇다	535	23.2	23.5
4. 매우 그렇다	253	11.0	11.1
(결측치)	27	1.2	
<문 26> 당신은 현재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진학을 위한 입시준비에 도움이 된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7	98.7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200	8.7	8.8
2. 그렇지 않다	602	26.1	26.4
3. 그렇다	1,314	57.0	57.7
4. 매우 그렇다	161	7.0	7.1
(결측치)	29	1.3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2) 올바른 인격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9	98.8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269	11.7	11.8
2. 그렇지 않다	818	35.5	35.9
3. 그렇다	1,057	45.8	46.4
4. 매우 그렇다	135	5.9	5.9
(결측치)	27	1.2	
3) 자신의 적성/소질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7	98.7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350	15.2	15.4
2. 그렇지 않다	858	37.2	37.7
3. 그렇다	921	39.9	40.4
4. 매우 그렇다	148	6.4	6.5
(결측치)	29	1.3	
4) 올바른 생활습관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된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7	98.7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286	12.4	12.6
2. 그렇지 않다	851	36.9	37.4
3. 그렇다	1,003	43.5	44.0
4. 매우 그렇다	137	5.9	6.0
(결측치)	29	1.3	
5) 우리사회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7	98.7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317	13.7	13.9
2. 그렇지 않다	682	29.6	30.0
3. 그렇다	1,073	46.5	47.1
4. 매우 그렇다	205	8.9	9.0
(결측치)	29	1.3	
<문 27> 당신은 주변사람들이 당신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각각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1) 아버지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18	96.2	100.0
1.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268	11.6	12.1
2.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674	29.2	30.4
3.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979	42.5	44.1
4. 많이 이해하고 있다	297	12.9	13.4
(결측치)	88	3.8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2) 어머니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54	97.7	100.0
1.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45	6.3	6.4
2.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48	19.4	19.9
3.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1,142	49.5	50.7
4. 많이 이해하고 있다	519	22.5	23.0
(결측치)	52	2.3	
3) 학교선생님[대학생은 학교교수님]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8	98.8	100.0
1.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459	19.9	20.1
2.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937	40.6	41.1
3.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760	33.0	33.4
4. 많이 이해하고 있다	122	5.3	5.4
(결측치)	28	1.2	
4) 친구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0	98.9	100.0
1.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105	4.6	4.6
2. 별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317	13.7	13.9
3.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	1,091	47.3	47.9
4. 많이 이해하고 있다	767	33.3	33.6
(결측치)	26	1.1	
<문 28> 당신은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 성별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5	99.1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14	4.9	5.0
2. 그렇지 않다	553	24.0	24.2
3. 그렇다	1,284	55.7	56.2
4. 매우 그렇다	334	14.5	14.6
(결측치)	21	0.9	
2) 잘살고 못하는 사람간의 격차가 심하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2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55	2.4	2.4
2. 그렇지 않다	201	8.7	8.8
3. 그렇다	1,048	45.4	45.9
4. 매우 그렇다	978	42.4	42.9
(결측치)	24	1.0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3) 출신지역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2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09	4.7	4.8
2. 그렇지 않다	658	28.5	28.8
3. 그렇다	1,098	47.6	48.1
4. 매우 그렇다	417	18.1	18.3
(결측치)	24	1.0	
4) 학력에 따른 차별이 심하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7	98.7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59	2.6	2.6
2. 그렇지 않다	181	7.8	7.9
3. 그렇다	1,115	48.4	49.0
4. 매우 그렇다	922	40.0	40.5
(결측치)	29	1.3	
5) 사람들간에 서로를 믿지 못한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3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66	2.9	2.9
2. 그렇지 않다	503	21.8	22.0
3. 그렇다	1,294	56.1	56.7
4. 매우 그렇다	420	18.2	18.4
(결측치)	23	1.0	
6) 일부 사람들만 혜택을 받고 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4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53	2.3	2.3
2. 그렇지 않다	312	13.5	13.7
3. 그렇다	1,279	55.5	56.0
4. 매우 그렇다	640	27.8	28.0
(결측치)	22	1.0	
7) 집안이나 뒷 배경이 중시된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3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60	2.6	2.6
2. 그렇지 않다	243	10.5	10.6
3. 그렇다	1,132	49.1	49.6
4. 매우 그렇다	848	36.8	37.1
(결측치)	23	1.0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8) 올바른 일이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79	98.8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57	2.5	2.5
2. 그렇지 않다	296	12.8	13.0
3. 그렇다	1,332	57.8	58.4
4. 매우 그렇다	594	25.8	26.1
(결측치)	27	1.2	
9) 성실한 사람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0	98.9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19	5.2	5.2
2. 그렇지 않다	704	30.5	30.9
3. 그렇다	984	42.7	43.2
4. 매우 그렇다	473	20.5	20.7
(결측치)	26	1.1	
10) 젊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0	98.9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188	8.2	8.2
2. 그렇지 않다	1091	47.3	47.9
3. 그렇다	734	31.8	32.2
4. 매우 그렇다	267	11.6	11.7
(결측치)	26	1.1	
<문 29> 현재 우리사회의 현실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까?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06	95.7	100.0
1. 매우 불만이다	428	18.6	19.4
2. 불만이다	1,381	59.9	62.6
3. 만족한다	346	15.0	15.7
4. 매우 만족한다	51	2.2	2.3
(결측치)	100	4.3	
<문 30> 당신은 우리나라의 현실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1) 경제적으로 풍요롭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4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444	19.3	19.4
2. 그렇지 않다	1,440	62.4	63.0
3. 그렇다	382	16.6	16.7
4. 매우 그렇다	18	0.8	0.8
(결측치)	22	1.0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2)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4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837	36.3	36.6
2. 그렇지 않다	1,227	53.2	53.7
3. 그렇다	202	8.8	8.8
4. 매우 그렇다	18	0.8	0.8
(결측치)	22	1.0	
3) 국민들의 문화·예술수준이 높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5	99.1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309	13.4	13.5
2. 그렇지 않다	1,119	48.5	49.0
3. 그렇다	807	35.0	35.3
4. 매우 그렇다	50	2.2	2.2
(결측치)	21	0.9	
4) 범죄가 적고 치안이 잘 유지되고 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4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660	28.6	28.9
2. 그렇지 않다	1,259	54.6	55.1
3. 그렇다	334	14.5	14.6
4. 매우 그렇다	31	1.3	1.4
(결측치)	22	1.0	
5)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2	99.0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634	27.5	27.8
2. 그렇지 않다	1,288	55.9	56.4
3. 그렇다	328	14.2	14.4
4. 매우 그렇다	32	1.4	1.4
(결측치)	24	1.0	
6) 공중도덕이 잘 지켜지고 있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5	99.1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551	23.9	24.1
2. 그렇지 않다	1,294	56.1	56.6
3. 그렇다	416	18.0	18.2
4. 매우 그렇다	24	1.0	1.1
(결측치)	21	0.9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7)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5	99.1	100.0
1. 전혀 그렇지 않다	578	25.1	25.3
2. 그렇지 않다	1,169	50.7	51.2
3. 그렇다	475	20.6	20.8
4. 매우 그렇다	63	2.7	2.8
(결측치)	21	0.9	
<문 31> 당신은 자신이 한국인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91	99.3	100.0
1. 매우 불만이다	114	4.9	5.0
2. 불만이다	533	23.1	23.3
3. 만족한다	1,383	60.0	60.4
4. 매우 만족한다	261	11.3	11.4
(결측치)	15	0.7	
<문 32> 현재 당신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는 고민이나 걱정거리는 어떤 것입니까 ?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0	98.9	100.0
1. 금전/경제적인 문제	241	10.5	10.6
2. 진로문제	895	38.8	39.3
3. 공부/학업문제	584	25.3	25.6
4. 이성문제	162	7.0	7.1
5. 자신의 성격	69	3.0	3.0
6. 친구와의 관계	75	3.3	3.3
7. 건강문제	29	1.3	1.3
8. 자신의 외모/체격	82	3.6	3.6
9. 종교/인생관 문제	21	0.9	0.9
10. 가정문제	37	1.6	1.6
11.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없다	85	3.7	3.7
(결측치)	26	1.1	
<문 33> 자신의 고민이나 걱정거리를 주로 누구와 상의합니까 ? (하나만 선택)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92	99.4	100.0
1. 아버지	93	4.0	4.1
2. 어머니	418	18.1	18.2
3. 형제·자매	138	6.0	6.0
4. 학교선생님	30	1.3	1.3
5. 친구나 선·후배	1,124	48.7	49.0
6. 이중에는 없다	101	4.4	4.4
7.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는다	388	16.8	16.9
(결측치)	14	0.6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문 34> 당신은 주변의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를 나누십니까 ?				
1) 아버지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24	96.4	100.0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48	10.8	11.2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597	25.9	26.8
3. 가끔 대화한다		838	36.3	37.7
4. 자주 대화한다		541	23.5	24.3
(결측치)		82	3.6	
2) 어머니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60	98.0	100.0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77	3.3	3.4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271	11.8	12.0
3. 가끔 대화한다		725	31.4	32.1
4. 자주 대화한다		1,187	51.5	52.5
(결측치)		46	2.0	
3) 학교선생님[대학생은 학교교수님]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2	99.0	100.0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530	23.0	23.2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882	38.2	38.7
3. 가끔 대화한다		731	31.7	32.0
4. 자주 대화한다		139	6.0	6.1
(결측치)		24	1.0	
4) 친구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6	99.1	100.0
1. 거의 대화하지 않는다		29	1.3	1.3
2. 별로 대화하지 않는다		77	3.3	3.4
3. 가끔 대화한다		340	14.7	14.9
4. 자주 대화한다		1,840	79.8	80.5
(결측치)		20	0.9	
<문 35> 당신은 다음과 같은 생활의 각 영역에서 어느 정도 만족을 느끼십니까 ?				
1) 자신의 가정생활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9	99.3	100.0
1. 매우 불만이다		128	5.6	5.6
2. 불만이다		528	22.9	23.1
3. 만족한다		1,272	55.2	55.6
4. 매우 만족한다		361	15.7	15.8
(결측치)		17	0.7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2) 자신의 학교생활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6	99.1	100.0
1. 매우 불만이다	171	7.4	7.5
2. 불만이다	586	25.4	25.6
3. 만족한다	1,344	58.3	58.8
4. 매우 만족한다	185	8.0	8.1
(결측치)	20	0.9	
3)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5	99.1	100.0
1. 매우 불만이다	169	7.3	7.4
2. 불만이다	593	25.7	26.0
3. 만족한다	1,306	56.6	57.2
4. 매우 만족한다	217	9.4	9.5
(결측치)	21	0.9	
4) 자신의 친구관계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5	99.1	100.0
1. 매우 불만이다	58	2.5	2.5
2. 불만이다	220	9.5	9.6
3. 만족한다	1,350	58.5	59.1
4. 매우 만족한다	657	28.5	28.8
(결측치)	21	0.9	
5) 자신의 취미/여가생활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85	99.1	100.0
1. 매우 불만이다	107	4.6	4.7
2. 불만이다	551	23.9	24.1
3. 만족한다	1,228	53.3	53.7
4. 매우 만족한다	399	17.3	17.5
(결측치)	21	0.9	
<문 36> 지난 해에 일어난 미군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과 관련된 촛불시위 또는 항의집회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전체)	2,306	100.0	
(유효 계)	2,293	99.4	100.0
1. 없다	1,910	82.8	83.3
2. 있다	383	16.6	16.7
(결측치)	13	0.6	

	빈도 (명)	비율(%)	
		전체	유효
<문 37> 지난 해 월드컵 기간 중에 실시된 지방선거에 참여(투표)하셨습니까 ?			
(전체)	2,306	100.0	
(유효 계)	337	14.6	100.0
1. 투표하지 않았다	187	8.1	55.5
2. 투표하였다	150	6.5	44.5
(결측치)	1,969	85.4	
<문 38> 지난 해 연말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 참여(투표)하셨습니까 ?			
(전체)	2,306	100.0	
(유효 계)	348	15.1	100.0
1. 투표하지 않았다	106	4.6	30.5
2. 투표하였다	242	10.5	69.5
(결측치)	1,958	84.9	

집필진

이종원 : 서론, 제Ⅲ·Ⅳ장, 결론

이경상 : 제Ⅱ장

김종길 : 제Ⅴ장

최원기 : 제Ⅰ장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② 2003-01

월드컵현상을 통해 본
신세대의 사회·문화적 정체성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인쇄	2003년 10월 25일
발행	2003년 10월 31일
발행인	권이종 서울특별시 서초구 우면동 142
등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 739-2172

사전 승인 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복제를 금함

ISBN 89-7816-461-7

